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문학석사 학위논문

정산 조철제의
성스러운 중심지 이동 전략 연구

- 도수(度數)를 통해 연결되는
증산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

2023년 8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종교학과

최 명 훈

정산 조철제의
성스러운 중심지 이동 전략 연구

- 도수(度數)를 통해 연결되는 증산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

지도교수 유 요 한

이 논문을 문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23년 5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종교학과

최 명 훈

최명훈의 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23년 8월

위 원 장 최 종 성 (인)

부위원장 이 성 청 (인)

위 원 유 요 한 (인)

국문초록

본 연구는 증산(甑山) 강일순을 교조로 하여 정산(鼎山) 조철제가 세운 태극도의 중심지가 전라도 태인에서 부산의 보수동을 거쳐 감천동으로 이동하는 사건을 분석했다. 이를 통해 종교 공동체가 성스러운 중심지의 설정과 이동을 정당화하는 방식을 설명하고자 했다. 정산의 중심지 이동에서 본 연구가 주목하는 특징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로, 정산은 증산과의 관련성을 근거로 중심지를 이동했다. 정산은 증산과의 직접적인 교류의 경험이 없었음에도, 증산이 천지공사를 통해 우주의 법칙으로 설정했던 도수를 따라서 이동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정산의 중심지라는 공간적 측면을 다루되, 증산에서 정산으로 이어지는 종통(宗統)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했다. 두 번째 특징은 정산이 기존 중심지를 포함한 특정 역사적 위치에 매이지 않고 새로운 중심지를 설정했다는 점이다. 일제에 의해 무극도의 태인 도장이 해산되었지만 정산은 해방 이후에 다시 태인으로 돌아갈 수 있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 대신에 교단의 이름을 태극도로 바꾸며 부산에 새로운 도장을 세웠고, 기존의 중심지를 이전처럼 중요한 장소로 여기지 않았다. 세 번째 특징은 정산 사후 교단이 또 다시 중심지를 이동했던 공동체와 그러지 않았던 공동체로 분열했다는 점이다. 정산의 종통을 계승하는 우당(牛堂) 박한경의 대순진리회는 서울로 또 다시 중심지를 옮겼지만, 부산의 감천 도장에 남은 태극도는 정산의 마지막 중심지에 그대로 남았다. 본 연구는 이러한 특징들에 주목하여 정산의 중심지 이동 전략을 분석했다.

특히 중심지 이동을 정당화하는 핵심 근거가 되는 도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분석했다. 정산이라는 카리스마적 인물은 교인들과 증산을 잇는 중개자로서 도수에 따른 시간과 장소를 연결하는 데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정산은 도수를 활용하는 자신만의 독점적인 능력을 증명함으로써 증산으로부터 이어 받은 종통, 즉 카리스마를 근거로 중심지 이동을 가능하게 했다. 본 연구는 도수가 장소에 유한한 시간을 설정하는 방식으로 새로운 장소의

정당화와 기존 장소의 폐기를 가능하게 했다는 점을 밝히고자 했다. 이러한 도수의 특징은 중심지가 정해진 시간에 따라 정당성을 얻거나 잃는다는 설명을 제공한다. 여기에 더해, 도수가 중심지를 정당화하는 구체적인 근거에 대해 논의했다. 무엇보다도 도수를 통해 시간을 뛰어넘어 증산과 정산이 연결된다는 점에 주목했다. 정산은 자신의 시간대에 일어난 일을 증산의 천지공사 때의 일과 대응시키면서 자신의 일이 곧 증산의 일이라고 주장했다. 본 연구는 증산의 시간과 연결하는 것이 역사적인 위치에 매이지 않고 어떠한 공간적 위치에도 중심지를 설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점을 설명했다. 효과적인 설명을 위해서 조나단 스미스(Jonathan Z. Smith)가 장소 이동과 관련되는 시간에 관해 논의한 바를 활용해, 도수가 신화의 시간대인 증산의 '그때'와 정산의 '지금'을 이어준다는 점을 드러냈다.

중심지 이동을 가능하게 했던 카리스마적 인물인 정산의 죽음 이후에 대해서도 중요하게 다뤘다. 정산 사후의 교단은 태극도와 대순진리회로 분열했는데, 두 교단은 서로 다른 중심지 이동의 양상을 보였다. 정산 사후에 나뉜 중심지 이동의 두 양상을 효과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증산 사후의 두 사례를 앞서 분석했다. 증산 사후 시기 정산과 화은당의 사례를 비교하며 증산의 카리스마를 계승하는 방식에 따라 구분되는 중심지 이동의 두 유형을 제시했다. 정산이 도수를 해석하는 능력을 통해 종통을 부각시키며 증산의 초월적 측면을 강조했다면, 증산법종교의 창시자인 화은당(華恩堂) 강순임은 증산의 친딸이라는 혈통을 강조하며 증산의 역사적 측면을 더 중시했다. 이러한 차이는, 정산의 사례가 역사적 위치에 매이지 않고 중심지를 계속해서 이동할 수 있었지만 증산법종교는 증산과 관련된 역사적 특수성을 강조하며 특정 장소에서 중심지 이동을 완결하게 된 차이로 이어졌다. 그리고 이러한 두 유형이 정산 사후에 분열한 태극도와 대순진리회의 중심지 이동 사례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점까지 보였다. 정산 사후 태극도는 정산과 관련된 역사적 특수성을 강조하며 그가 설정한 마지막 중심지에 남았다면, 대순진리회는 증산에서 정산을 거쳐 우당 박한경으로 이어지는 종통을 강조하며 도수를 근거로 중심지를 또 다시 옮겼다.

본 논문은 종교의 공간 혹은 장소에 관해 종교 연구들이 주목해온 이론

적 특징들을 재검토하고 점검했다는 의의를 갖는다. 먼저 종교의 공간에 시간의 의미가 부여될 수 있음을 확인했다. 정산의 중심지 이동은 종교의 중심지가 새로운 장소로 옮겨가는 것뿐만 아니라 기존의 장소와 결별하는 모습까지 다룰 수 있는 사례로, 종교의 장소가 정해진 시간에 따라 성스러운 장소가 되었다가 평범한 장소로 돌아가는 변화를 모두 포함한다. 더불어 본 연구는 중심지를 설정한 교단 창시자의 죽음 이후 중심지 이동 전략에 생기는 변화를 포착함으로써, 카리스마의 상실과 계승이 장소 이동과 관계되는 양상 또한 분석했다. 이때 장소가 사건의 단순한 배경이 아니라 역동적인 변화를 유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관찰했다.

나아가 장소의 관점에서 드러나는 증산계 교단들의 차이를 제시하기도 했다. 증산계 교단에 관한 기존 연구들은 각 교단 간의 교리 차이에 주로 주목했다. 본 연구는 교리 중심적인 접근에서 벗어나 중심지 이동에 주목해 태극도와 대순진리회, 증산법종교를 분석했다. 특히 증산으로부터 이어지는 카리스마와 중심지 이동 사이의 관계를 논의하면서 각 교단이 앞선 종교 지도자의 카리스마를 장소 이동과 연결 짓는 방식을 두 유형으로 나누어 분석했다. 태극도와 증산법종교, 그리고 정산 사후 태극도와 대순진리회를 각각 비교하며 역사적 위치에 매이지 않고 중심지를 이동하는 유형과 역사적 특수성을 강조하며 특정 중심지에 정착하는 유형을 구분했다. 이는 정산 사후 중심지 이동 양상이 나뉜 현상을 효과적으로 설명하는 것뿐만 아니라 공간 혹은 장소를 중심으로 보았을 때 부각되는 각 교단의 차이를 조명하는 작업이기도 했다.

주요어 : 증산 강일순, 정산 조철제, 공간/장소, 중심지 이동, 도수, 무극도, 태극도, 대순진리회, 증산법종교

학 번 : 2020-21539

목 차

Ⅰ. 서론 ····· 1

1. 논문의 목적과 의의 ····· 1

2. 선행연구 검토 ····· 11

1) 종교의 공간과 장소에 관한 연구 ····· 11

2) 시간적 연결을 통한 종교의 장소 이동에 관한 연구 ····· 16

3) 증산계 교단의 공간과 장소에 관한 연구 ····· 21

3. 자료의 범위와 논문의 구성 ····· 23

Ⅱ. 정산의 성스러운 중심지 이동 ····· 28

1. 첫 중심지의 설립과 해산: 무극도의 태인 도장 ····· 29

2. 중심지의 이동: 태극도의 보수 도장과 감천 도장 ····· 42

Ⅲ. 도수(度數)를 통한 중심지 정당화 ····· 55

1. 장소의 정당성이 유지되는 시간을 설정하는 도수 ····· 58

2. 증산과의 시간적 연결을 근거로 한 공간의 정당화 ····· 65

Ⅳ. 정산 사후 중심지 이동의 두 갈래 ····· 77

1. 중심지 이동의 두 유형: 증산 사후 정산과 화은당의 사례 비교 ····· 79

2. 정산 사후 태극도와 대순진리회의 중심지 이동 방식 ·· 89

Ⅴ. 결론 ····· 100

참고문헌 ····· 106
Abstract ····· 111

Ⅰ. 서론

1. 논문의 목적과 의의

본 연구는 증산계 교단[1] 중 하나인 태극도(太極道)의 중심지 이동 사례에 대한 분석을 통해, 종교 공동체가 성스러운 중심지의 설정과 이동을 정당화하는 방식을 설명하고자 한다. 종교 연구자들은 '공간' 혹은 '장소'를 중요한 주제로 다루어 왔다.[2] 인간이 자신이 살아갈 공간에 의미를 부여하고, 성스러움과 만나는 곳을 종교적 삶의 중심적인 장소로 설정한다는 점에서 공간과 장소는 종교 연구에서 중요하다. 중심지 이동에 관한 연구는 종교가 중심적인 장소를 설정하는 방식뿐만 아니라 새로운 장소를 정당화하고

1) 본 연구는 '증산계 교단'을 증산 강일순을 신앙 대상으로 삼으면서 증산 사후에 생겨난 교단들로 정의한다. 기존의 증산 관련 연구들은 증산을 신앙 대상으로 삼는 교단들을 '증산계', '증산계 교단', '증산계 종교운동', '증산종단', '증산교단' 등으로 불러왔다. 차선근은 증산으로부터 비롯된 신종교들을 통틀어 '증산계'라고 칭하고 각 조직을 '증산계 교단'이라고 불렀다. 차선근, 「증산계 신종교 일괄기술에 나타난 문제점과 개선 방향」, 『신종교연구』 30(2014): 59. 박인규는 증산을 잇는 창교주들의 종교 운동을 '증산계 종교운동'이라고 부르고, 각 종교 조직을 '증산종단'이라고 표현했다. 박인규, 「일제강점기 증산계 종교운동 연구: 차월곡의 보천교와 조정산의 무극도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2019), 1. 홍범초는 증산을 교조(敎祖)로 삼는 조직들을 '증산교단'이라고 불렀다. 홍범초, 『범증산교사』 (서울: 한누리, 1988), 1. 본 연구는 기존 연구들과 마찬가지로 증산을 신앙 대상으로 삼는 조직들을 '증산계'로 포괄하고, 개별 조직을 가리킬 때는 더욱 널리 쓰이는 교단이라는 용어를 활용할 것이다.

2) 공간(space)과 장소(place)의 용어를 구분하는 것과 관련해 본 연구는 킴 노트(Kim Knott)의 논의를 참고한다. 킴 노트는 '장소'가 역동적이고(dynamic) 관련성 있는(relational) '공간'의 부분이라고 본다. Kim Knott, *The Location of Religion: A Spatial Analysis* (London: Equinox, 2005), 29-30. 킴 노트에 따르면, 공간은 사회적으로 구성되어 권력, 역사, 시간 등과 결합되는 개방적이고 역동적인 개념이다. 장소의 경우 공간 분석의 과정에서 종교가 무엇인지, 종교가 물리적 세계, 사회, 문화의 다른 측면들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살펴보기 위해 특정 영역을 구체적으로 가리키기 위해 쓰인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일반적인 의미에서 시간과 같은 층위에서 논의할 때는 '공간'을, 구체적인 사례에서 공간의 일정 영역을 가리킬 때는 '장소'를 사용할 것이다.

기존 장소와의 관계를 설정하는 방식 등 종교에서 다루는 장소의 다양한 모습을 조명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하다.

역사 속에서 종교의 공간적 이동은 흔히 발생했다. 사회적인 상황 때문에 종교 활동의 장소를 이동해야 했고, 종교의 자체적인 필요에 의해 장소를 옮기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경우에 따라 새로운 성스러운 장소가 생겨나기도 하고 기존의 성스러운 장소가 평범한 장소로 되돌아가기도 했다. 장소를 옮길 때마다 종교는 장소에 관한 자체적인 설명을 제시할 필요가 있었다. 각 종교는 자신들이 옮겨 가는 새로운 장소를 정당화해야 했고, 떠나 온 기존 장소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지 결정해야 했다. 대표적인 사례로, 예루살렘에 더 이상 쉽게 접근할 수 없는 상황에 놓였던 시기의 기독교는 새로운 교회를 만들면서 예루살렘과의 연관성을 드러내는 상징들을 활용하기도 했다.[3] 이런 점들을 고려했을 때 종교의 장소 이동에 대한 연구는 구체적으로 종교가 새로운 장소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전략과 기존 장소와의 관계를 설정하는 전략을 다루는 방식 등에 대해 주목하면서 전개될 수 있다.

본 연구는 증산(甑山) 강일순(姜一淳, 1871-1909)을 신앙 대상으로 하여 정산(鼎山) 조철제(趙哲濟, 1895-1958)가 세운 교단의 성스러운 중심지가 정읍 태인에서 부산의 보수동을 거쳐 감천동으로 이동하는 사건을 다룬다. 정산에 앞서 1871년 전라북도 고부군(현재의 전라북도 정읍시)에서 출생한

3) 구체적으로는 이탈리아 볼로냐의 산토 스테파노(Santo Stefano) 성당처럼 예수의 무덤(Holy Sepulchre)으로 알려진 주님 무덤 성당(개신교에서의 명칭은 '성묘 교회')을 본떠 만든 성당들이 있다. 이는 기존 장소와의 연관성을 부각하며 새로운 장소에 의미를 부여하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주님 무덤 성당을 복제하는 건물을 짓거나, 주님 무덤 성당을 소형화하여 새로운 성당에 부분적으로 반영하는 등 여러 방식으로 주님 무덤 성당을 본떠서 새로운 성당을 지은 사례에 대해서 조나단 스미스(Jonathan Z. Smith)가 소개한 바 있다. Jonathan Z. Smith, "Constructing a Small Place," in *Sacred Place*, ed. Benjamin Z. Kedar and R. J. Zwi Werblowsky (London: Macmillan, 1998), 20-24.

증산은 전라북도 정읍, 전주, 김제 등을 주된 활동지로 삼아 여러 치병 및 이적(異蹟) 행위를 하며 제자들을 두었다. 특히 증산은 자신이 세계와 인류를 구하기 위해 세상에 내려 온 상제(上帝)라고 주장했다.[4] 그래서 증산이 상제로서 세계(천지)를 개조하는 기초 작업으로 '천지공사(天地公事)'를 행했다는 점이 중요하다. 천지공사는 여러 병폐가 가득한 선천(先天) 세계가 끝나고 유토피아적인 후천(後天) 세계가 열린다는 개벽(開闢) 사상을 바탕으로 한다.[5]

증산은 상제로서 후천 세계를 열기 위해, 천지공사를 통해 자신이 직접 선천 세계의 '도수(度數)', 즉 세계가 운행되는 법칙을 고쳤다고 설명한다. 도수(度數)는 중국과 한국의 전통 문헌에서 주로 사회의 표준적인 절차나 제도 혹은 천문과 천체의 운행 원리와 같은 의미로 사용되었고, 천지만물이 따르는 '세계의 운행 법칙'이라는 의미로 확대되어 활용되기도 했다.[6] 도수는 한국의 신종교 전통에 수용되어 종교적인 의미로 쓰이기도 했다. 개벽 사상을 앞서 활용했던 일부(一夫) 김항(金恒, 1826-1898)이 저술한 『정역(正易)』 또한 도수가 변화하며 후천개벽이 도래할 것을 주장했으며,[7] 원불

---

4) 증산은 자신이 동학을 창시한 수운 최제우에게 제세대도(濟世大道), 즉 세상을 구할 큰 도를 가르친 존재라고 주장하며 동학의 『동경대전』에 등장하는 상제가 자신이라고 설명한다. 『증산천사공사기』, 11. 이 구절을 보면 증산은 동학의 사상을 전유하고 있다. 이외에도 증산은 불교나 유교 등 기존 종교들의 교리들을 전유하는 모습을 보인다.

5) 개벽 사상은 증산의 사상뿐만 아니라 비슷한 시기의 동학, 원불교, 정역(正易) 등에서도 나타난다. 선천 세계에 있던 많은 문제가 후천 세계라는 이상향이 열리며 해결된다는 설명은 전반적으로 비슷하지만 구체적인 부분에서는 각 종교마다 차이를 보인다. 개벽 사상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으로는 다음을 참고하라. 노길명, 「개벽 사상의 전개와 성격」, 『한국학연구』 28(2008): 181-204.

6) 『장자』, 『한비자』, 『상군서』를 비롯한 여러 중국 문헌과 『고려사』, 『조선왕조실록』 등의 한국 문헌에서 도수라는 용어가 발견되는데, 이때의 도수는 주로 규칙 또는 법도, 도리 등의 의미로 해석된다. 중국과 한국의 문헌에서 발견되는 '도수'의 전통적인 용례에 관해서는 다음의 설명을 참고하라. 박인규, 「대순사상의 도수론(度數論) 연구」, 『대순사상논총』 28 (2017): 217-22; 김탁, 「증산과 정산의 도수(度數)사상」, 『대순사상논총』 30(2018): 238-41.

7) 일부 김항은 『주역(周易)』을 바탕으로 자신만의 독창적인 해석을 담은 『정역』을 제시했다. 정역에 따르면, 선천 세계에서 1년이 365일과 1/4일이라면 후천 세계는 1년이

교에서도 도수를 세계가 운행하는 법칙이라는 뜻으로 사용하고 있다.[8] 증산은 상제인 자신이 세계를 다스리는 법칙이라는 의미로 도수를 재해석했다.[9] 천지공사는 증산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행한 핵심적인 작업이었는데, 이는 무엇보다도 새로운 세계를 위해 도수를 설정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증산의 천지공사는 앞으로 다가올 세계를 계획하는 작업이었으며, 도수는 그러한 세계의 운행 법칙이었다. 증산 이후 정산은 도수를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정산에게 도수는 자신이 세운 새로운 공동체에 부여된 상제의 뜻으로, 우주의 이치에 부합하는 원리를 가리키는 말이면서 구체적인 상황에서 상제인 증산이 자신에게 보여주는 계시로 기능했다.

도수는 증산의 계승자로서 정산이 자신의 장소를 정당화하기 위해 활용한 주된 전략이었다. 정산은 증산이 구성한 세계가 자신의 시대부터 실현되기 때문에 중심지 이동과 같은 모든 사건이 증산이 정해놓은 도수에 따라 일어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정산은 자신이 그러한 도수를 볼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러한 방식으로 활용되는 도수는 예언이나 계시처럼 기능을 하는 측면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세계 자체를 설명하는 법칙으로 활용됐다. 과거에 계획된 세계가 현재에 실현될 수 있도록 따라야 하는 법칙이었던 것이다. 본 연구는 정산이 도수를 볼 수 있는 독점적인 능력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도수를 통해 증산과의 연관성을 강조했

360일이 되는데 이는 윤력도수(閏曆度數)가 정력도수(正曆度數)로 바뀌기 때문이다. 이처럼 일부는 도수를 활용해 세계의 흐름을 설명했다. 일부의 정역 사상을 따라 영가무도교, 오방불교 등의 교단이 창시됐으며, 증산교를 비롯한 한국 신종교들 또한 직간접적으로 정역 사상의 영향을 받았다고 평가된다. 노길명, 「개벽 사상의 전개와 성격」, 190-1.

8) 『대종경』「제2교의품」, 34장; 『정산종사법어』「제5원리편」, 37장; 『대산종사법어』「제6회상편」, 49장; 『대산종사법어』「제14개벽편」, 7장.

9) 장소 이동과 관련되는 도수의 활용에 관해서는 본론에서 구체적으로 다룰 것이다. 도수가 증산과 정산에 의해 활용된 사례를 정리하고 그 의미를 분석한 연구는 다음을 참고하라. 김탁, 「증산과 정산의 도수(度數)사상」, 235-70; 박인규, 「대순사상의 도수론(度數論) 연구」, 207-41.

다는 점에 주목해 중심지를 옮겼던 사건을 분석할 것이다.

증산이 1901년 9월부터 1909년 8월까지 천지공사를 행하고 사망한 뒤 그를 따르던 사람들을 중심으로 많은 교단들이 생겨났다.[10] 보천교를 세운 월곡 차경석처럼 증산의 생전 제자(종도)들이 여러 교단을 세웠고, 증산의 친딸인 화은당(華恩堂) 강순임(姜舜任, 1904~1959)이 증산법종교(甑山法宗敎)라는 이름의 교단을 세우기도 했다. 또한 정산처럼 증산과 직접 접촉한 적이 없지만 신비 체험을 통해 증산을 경험하고 교단을 세우는 사람들도 있었다. 본 연구가 초점을 맞추는 정산 조철제가 세운 교단이 이러한 유형에 해당한다. 1920년대 초 정산이 처음 정읍 태인에 세운 교단의 이름은 무극도(無極道)였다. 정산은 '도장(道場)'이라고 부르는 교단 활동의 본거지와 같은 장소를 조성하면서 교단 활동을 시작했다. 1936년 이후 일제에 의해 교단이 강제로 해산된 이후 정산은 1948년 부산으로 도장을 옮기면서 태극도(太極道)로 교단의 이름을 바꿨다. 태극도는 정산이 사망한 후 한 차례 큰 분열을 겪었다. 정산을 계승하면서도 1968년 태극도에서 분립해 나온 대순진리회는 증산계 교단 중에서도 비교적 큰 규모로 성장해 유지되고 있다. 반면 대순진리회에 합류하지 않은 교인들은 현재까지도 태극도라는 교단명을 유지하며 부산 감천동에서 종교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정산 사후의 태극도와 우당(牛堂) 박한경(朴漢慶, 1917~1996)이 창시한 대순진리회는 모두 증산에서 정산으로 이어지는 종통(宗統)을 강조하고 있는데, 대순진리회의 경우 그러한 종통이 창시자인 우당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여긴다. 본 연구에서는 정산이 세운 무극도와 태극도, 그리고 정산 사후 갈라진 태극도와 대순진리회를 주로 다루며 각 교단의 중심지 이동에 주목할 것이다. 이 과정

10) 홍범초는 증산을 교조로 하는 교단들의 역사에 대해 정리한 바 있다. 홍범초의 『범증산교사』에는 29개의 크고 작은 교단이 소개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태극도와 대순진리회 외에도 증산의 친딸 화은당 강순임이 창시한 증산법종교를 다룰 것이다.

에서 정산의 중심지 이동 사례와 대조되는 화은당의 증산법종교까지도 연구 대상에 포함해 논의를 전개할 것이다.

정산의 중심지 이동 전략은 크게 세 가지 특징을 보인다. 가장 중요한 첫 번째 특징은 중심지를 이동할 때 증산과 직접 교류한 경험이 없으면서도 증산과의 관련성을 중요한 근거로 삼았다는 점이다. 특히 정산은 증산의 후계자로서 증산이 천지공사를 통해 설정해둔 도수를 따라서 이동한다고 주장했다. 중심지 이동의 정당성을 증산과의 연관성에서 찾은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정산의 중심지라는 공간적 측면을 다루되 증산으로부터 이어지는 종통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할 것이다. 두 번째 특징은 정산이 기존 중심지를 비롯한 특정 역사적 위치에 매이지 않고 새로운 중심지를 정당화했다는 점이다. 일제에 의해 무극도의 태인 도장이 해산되었지만 정산은 해방 이후에 다시 태인으로 돌아갈 수 있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 대신에 교단의 이름을 태극도로 바꾸고 부산에 새로운 도장을 세웠다. 또한 정산은 새로운 중심지를 찾아 떠난 뒤에는 한때 중심지로 삼았던 장소도 더 이상 이전처럼 중요한 의미를 가진 장소로 여기지 않았다. 장소에 부여되었던 유한한 시간이 끝나면서 기존의 중심지가 본래 확보했었던 정당성을 잃었기 때문이다. 대신에 정산은 어떠한 위치에 있는 장소라도 새로운 중심지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였다. 세 번째 특징은 정산 사후에 정산이 세운 교단이 또 다시 중심지를 이동했던 공동체와 그러지 않았던 공동체로 분열했다는 점이다. 정산의 종통을 계승하는 우당 박한경의 대순진리회는 중심지를 옮겼지만, 부산의 감천 도장에 남은 태극도는 정산의 마지막 중심지를 중요시 여긴다. 본 연구는 이러한 특징들을 중심으로 정산의 중심지 이동 사례에서 드러나는 신종교 창시자의 카리스마(charisma) 계승과 중심지 설정 방식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다룰 것이다.[11] 특히 앞선 종교 지도자의 카

리스마를 계승하는 방식이 중심지를 설정하는 방식과 관련 있다는 점을 다루면서 정산 사후 태극도와 대순진리회가 보이는 중심지 이동 양상의 차이를 설명할 것이다.

본격적인 논의로 들어가기에 앞서 전라도의 태인에서 경상도의 부산으로 도장을 옮긴 사건에는 종교 외부에 있는 당시의 사회적 맥락 또한 영향을 끼쳤다는 점을 언급할 필요가 있다. 종교 내부의 이데올로기와[12] 별개로 정산이 태인 도장과 결별하고 부산으로 이동한 것은 당시 사회적 맥락에서 합리적인 선택이었을 수 있다. 무엇보다 태인 도장 시절부터 정산의 교인들은 주로 경상도에 많았기 때문이다. 박인규 또한 이와 같은 지적을 했는데,[13] 당시 신문 자료와 일제의 문서들을 토대로 경상도에 무극도의 교인이 많았고 활동이 활발했다는 것을 보이고 있다.[14]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미뤄볼

---

11) 본 연구는 증산과 정산이 종교 지도자로서 신종교를 만들어내고 중심지를 설정하는 원동력을 효과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막스 베버(Max Weber)의 카리스마(charisma) 개념을 활용한다. 베버는 집단의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따르도록 하는 권위(authority)의 종류를 제시하며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지도자들에게서 발견되는 '초자연적이거나 매우 예외적인 힘'을 '카리스마'라고 불렀다. 종교의 사례에서는 많은 신자들을 이끌거나 새로운 종교를 창시한 종교 지도자가 가진 능력을 가리키는 데에 사용된다. Max Weber, *The Theory of Social and Economic Organization*, trans. A.M. Henderson and Talcott Parsons (Glencoe: The Free Press, 1947), 358-63.

12) 본 연구에서 활용되는 '이데올로기(ideology)'의 의미는 조나단 스미스(Jonathan Z. Smith)의 용례를 따른다. 스미스는 기본적으로 조르주 뒤메질(Georges Dumézil)이 이데올로기를 하나의 이상으로서, 세계와 인간의 삶이 나아가는 방향의 원인이 되는 힘을 분석하고 해석하는 수단이라고 설명한 것을 따른다. 그러면서 스미스는 이데올로기를 특정 집단의 종교적인 체계를 가리키는 데에 활용했고, 이데올로기가 현실과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Jonathan Z. Smith, *To Take Place*: Toward Theory in Ritual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7), 40-41. 스미스가 인용한 뒤메질의 논의는 다음에서 찾아볼 수 있다. George Dumézil, *Mythe et épopée 1* (Paris: Gallimard, 1986), 15. 본 연구는 정산이 중심지 이동과 관련한 현실의 상황에 대해 자체적인 이데올로기를 제시했다는 점에 주목한다.

13) 박인규, 「일제강점기 증산계 종교운동 연구: 차월곡의 보천교와 조정산의 무극도를 중심으로」, 185.

14) 박인규, 「일제강점기 증산계 종교운동 연구: 차월곡의 보천교와 조정산의 무극도를 중심으로」, 179-85. 우선 안동, 예천, 영덕, 의성, 부산 등 경상도 지역의 무극도 관련 신문 보도가 많다. 무극도의 지부 또한 경성, 평양, 김제, 대전과 함께 부산, 밀양, 대구, 안동 등 경상도 지역에 다수가 위치해 있다는 것과 간부의 대부분이 경상도 출신이라는 점도 논의된다.

때 무극도의 태인 도장이 전라도에 위치했음에도 교인들의 다수가 경상도 출신이었고, 도장 이외의 곳에서 있었던 기도 등 종교 활동 또한 경상도를 중심으로 이뤄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여기에는 조철제가 경남 함안 출신이었다는 점이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또한 무극도가 이미 전라도에서 큰 영향력을 갖고 있던 보천교를 의식하고, 차별화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을 가능성도 있다. 실제로 무극도를 제2의 보천교처럼 다루는 당시 신문 기사들을 보면,[15] 무극도가 보천교와 함께 인식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때 신문 보도에서 보천교가 대부분 부정적으로 다뤄졌기 때문에 '제2의 보천교'라는 세간의 인식은 무극도에게 부담이었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태극도가 새롭게 자리잡은 부산의 당시 상황도 살펴봐야 한다. 1945년 해방 이후 해외에서 귀환하는 사람들과 6.25 전쟁의 피난민으로 인해 부산의 인구는 급증하고 있었다.[16] 특히 6.25 전쟁 당시 피난민들이 집중해서 몰려든 곳 중에는 태극도가 부산에서 처음 자리잡았던 보수동도 있었다.[17] 해방 후 급변하는 시기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들던 부산에서 정산은 새로운 이름의 교단으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었다. 김희재는 이러한 부산의 피난지에서 피난민들이 "기존의 토착민들과의 갈등 없이 새롭게 자신들의 공간과 문화를 만들어 갈 수 있었다"고 설명하는데,[18] 이는 급변하는 당시의 사회적 맥

15) 다음의 신문기사들에서는 무극도를 '제2보천교' 혹은 '보천교의 자매격'으로 표현하고 있다. 「제이 보천교 무극종교단, 보천교와 한가지 강증산의 지류여파로 협잡하는 무리, 교도가 벌써 만여명」, 『시대일보』 1925.7.8.; 「복마전(伏魔殿)을 차저서 8 무극교정체(無極敎正體), 보천교의 자매격 무극도」, 『동아일보』 1929.7.26.

16) 1945년 부산의 인구는 281,160명이었으나 1949년 말에는 470,750명으로 늘었고, 6.25 전쟁으로 피난민이 몰려든 이후 1951년 인구는 844,134명이었다. 홍연진, 「인구와 시역의 변화」, 『부산 광복 60년』, 부산광역시사편찬위원회 엮음 (부산: 부산광역시, 2006), 35.

17) 대부분의 피난민들은 부산 남포동 주변의 영도, 국제시장, 대청동, 대신동, 보수동 일대로 몰려들었다. 김희재, 「도시공간의 변화」, 『부산 광복 60년』, 부산광역시사편찬위원회 엮음 (부산: 부산광역시, 2006), 128-29.

18) 김희재, 「도시공간의 변화」, 128.

락에서 정산에게 부산이 새로운 기회의 땅이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처럼 정산이 중심지를 옮길 때에도 종교 외부의 사회적, 정치적 맥락이 매번 작용했다. 전라도 태인을 떠나게 된 데에도 일제의 강제적인 해산 조치라는 정치적인 이유가 있었고, 부산의 첫 도장이 위치한 보수동을 떠나는 데에도 당시 부산이 도시로 개발되는 사회적인 상황이 맞물렸다. 이러한 사회적 상황들에 대응하며 정산은 종교 지도자로서 새로운 중심지를 설정했고, 정산의 중심지 이동은 자체적인 논리를 갖추며 정당성을 면밀히 확보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사회적, 정치적 상황이 끼친 영향을 인정하는 한편, 이에 대응하면서 자체적인 설명을 통해 정당성을 갖추는 종교 공동체의 시도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종교 외부의 맥락까지 짚으며 정산의 중심지 이동에서 주목해야 할 특징들을 살펴봤다면, 본 연구가 갖는 의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 제시할 수 있다. 첫째로, 종교의 장소 이동 과정에 대한 분석을 통해 종교학 이론이 주목해온 주제들을 재검토하고 점검할 수 있다. 예컨대 이 논문은 공간에 시간의 의미가 부여될 수 있음을 확인한다. 정산의 중심지 이동은 종교의 중심지가 새로운 장소로 옮겨가는 것뿐만 아니라 기존의 장소와 결별하는 모습까지 다룰 수 있는 사례로, 종교의 장소가 새롭게 도입되고 폐기되는 변화를 모두 포함한다. 이 과정에서 때에 따라 평범한 장소가 성스러운 장소로 변하기도 하고, 반대로 정해진 시간이 지나면 수년간 성스러운 장소였던 곳이 평범한 장소가 되기도 한다. 이러한 현상의 분석을 통해 공간에 부여된 시간의 측면을 다룰 수 있다. 또한 중심지를 설정한 교단 창시자의 죽음 이후 중심지 이동 전략에 생기는 변화를 포착함으로써, 카리스마의 상실과 계승이 장소 이동에 영향을 끼치는 양상을 보일 것이다. 이때 장소가 사건의 단순한 배경이 아니라 역동적인 변화를 유발하는 동인으로 작용한다는

것도 관찰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로, 장소의 관점에서 증산을 교조로 하는 교단들의 차이를 설명할 수 있다. 증산계 교단에 관한 기존 연구들은 각 교단 간의 교리 차이에 주로 주목했다.[19] 본 연구는 교리 중심적인 접근에서 벗어나 중심지 이동을 중심으로 태극도와 대순진리회, 증산법종교를 분석한다. 특히 증산으로부터 이어지는 카리스마와 중심지 이동 사이의 관계를 논의하면서, 각 교단이 앞선 종교 지도자의 카리스마를 장소와 관련짓는 방식을 두 유형으로 나누어 분석할 것이다. 태극도와 증산법종교를 비교하며 역사적 위치에 매이지 않고 중심지를 이동하는 유형과 역사적 특수성을 강조하며 특정 중심지에 정착하는 유형을 구분할 것이다. 그리고 이 차이는 증산법종교의 중심지 사례가 증산의 역사적인 측면을 상대적으로 강조하는 반면 태극도의 사례는 증산의 초월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차이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주장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구분한 두 유형을 정산이 사망한 이후 태극도와 대순진리회가 분열하는 사례에도 적용될 수 있음을 보일 것이다. 이는 정산 사후 중심지 이동 양상이 나뉜 현상을 효과적으로 설명하는 것뿐만 아니라 장소를 중심으로 보았을 때 부각되는 각 교단의 차이를 조명하는 작업이기도 하다.

19) 홍범초는 증산계 교단의 역사를 다루면서 신앙 대상이나 교리, 의례 등에 주로 주목하며 각 교단의 특징을 서술하고 있다. 홍범초, 『범증산교사』. 차선근은 각 증산계 교단들의 차이를 간과한 채 일괄적으로 기술하는 문제를 짚으면서 각 교단마다 증산에 대한 해석, 신앙, 교리, 수행, 조직 등에서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차선근, 「증산계 신종교 일괄기술에 나타난 문제점과 개선 방향」, 57-95. 이러한 연구들은 종교의 의례나 조직과 같은 측면도 다루고 있지만, 각 교단의 특징을 설명할 때 주로 교리를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는 모습을 보인다.

2. 선행연구 검토

1) 종교의 공간과 장소에 관한 연구

기본적으로 본 연구가 종교의 공간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종교 연구에서 공간을 중요하게 다룬 연구들을 짚을 필요가 있다. 먼저 에밀 뒤르켐(Émile Durkheim)과 미르체아 엘리아데(Mircea Eliade)의 논의는 본 연구에서 다루는 성스러운 중심지의 의미와 그 중심지를 통해 정산의 교인들이 얻는 경험에 관해 설명하는 데에 활용될 것이다. 또한 조나단 스미스(Jonathan Z. Smith)와 킴 노트(Kim Knott)가 장소에 관한 종교 연구의 방향을 제시한 바를 따라서 정산의 중심지 이동에서 드러나는 장소의 역동적인 변화를 포착하고 장소를 통해 증산계 교단을 이해하는 시각을 제시하고자 한다.

종교에 대한 설명으로 성스러움과 범속함의 구분을 제시했던 뒤르켐은 이 구분을 공간의 구분으로도 설명한 바 있다. 그는 기본적으로 종교적 믿음이 세계를 성스러운 영역과 범속한 영역으로 나눈다고 봤다.[20] 나아가 뒤르켐은 종교가 성스러운 것들과 관련 있는 믿음과 실천이 통합된 체계라고 정의내리는데, 이때의 성스러운 것들은 금지되거나 따로 떨어뜨려 놓인 것들(things set apart)이라고 말했다.[21] 이는 성스러운 것이 금기를 통해서 범속한 것들로부터 거리를 지키면서 격리되고(isolated) 보호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22] 이러한 설명은 성스러움의 속성이 공간의 구분을 통해 드러난다는

20) Émile Durkheim, *The Elementary Forms of the Religious Life* (New York: Free Press, 1995), 34-44.
21) Durkheim, *The Elementary Forms of the Religious Life,* 44.
22) Durkheim, *The Elementary Forms of the Religious Life*, 38.

것을 보여준다. 세계를 성스러운 공간과 범속한 공간으로 나뉜다고 보았던 뒤르켐의 시각은 본 연구에서 다루는 장소의 속성에 전반적으로 적용된다. 두 차례 중심지를 이동한 정산은 이러한 성스러운 공간과 범속한 공간의 구분을 보다 역동적으로 활용했다. 정산은 본래 평범했던 장소에 의미를 부여하며 다른 장소와는 구분되는 성스러운 중심지로 설정했다. 하지만 정산이 새로운 중심지를 찾아 떠날 때 기존의 중심지는 더 이상 성스러운 장소로 여겨지지 않고 범속한 장소로 간주됐다. 정산이 장소를 대하는 이러한 입장을 설명할 때 뒤르켐이 나누었던 성스러운 공간과 범속한 공간의 구분이 이론적인 바탕으로 활용될 것이다.

엘리아데는 성스러운 시간과 더불어 성스러운 공간이라는 용어를 통해 성스러움을 경험하는 종교적 인간에 대해 논의했다. 엘리아데는 성스러운 공간을, 우주론적 차원에서 세계를 구성하려는 종교적 인간이 경험하는 대상이자 성스러움이 현현하는 위치로 중요하게 다뤘다.[23] 뒤르켐과 마찬가지로 엘리아데는 종교적 인간에게 공간이 동질적이지 않다고 보았고, 성스러움이 나타날 때 범속한 공간에 그것과 질적으로 다른 성스러운 공간이 틈입한다고 주장했다.[24] 나아가 그는 성스러움이 나타나는 곳이 세계의 중심으로 설정되어 종교적 인간이 그 중심을 향하고 그 중심에서 살아가길 원하게 된다고 설명했다.[25] 성스러운 공간은 종교적 인간에게 범속한 경험을 통해서는 찾을 수 없던 지향점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엘리아데는 성스러운 공간에서 종교적 인간이 경험하는 의미의 세계를 분석하는 데까지 나아갔다.[26] 공간과 장소의 측면에서 종교를 조명하는 본 연구는 성스러움이 공간

23) Mircea Eliade, *The Sacred and The Profane: The Nature of Religion* (New York: Harcourt, 1987[1957]), 63-65.
24) Eliade, *The Sacred and The Profane*, 20-29.
25) Eliade, *The Sacred and The Profane*, 36-47.
26) 조나단 스미스는 *To Take Place*의 1장에서 엘리아데의 중심 개념에 대한 비판점을 제

및 장소의 설정에서 비롯될 수 있다는 뒤르켐과 엘리아데의 시각과 기본적으로 관련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엘리아데의 분석은 무극도와 태극도의 교인들이 경험하는 도장이 성스러운 장소로 간주될 수 있는 이유와 도장을 통해 교인들이 얻는 경험의 의미를 효과적으로 설명해준다. 엘리아데의 설명에 따르면, 정산의 교인들은 증산으로부터 이어지는 종통을 근거로 설정된 장소, 즉 도장에서 증산과 연결되는 경험을 한다. 이처럼 본 연구는 엘리아데의 설명을 바탕으로 교인들이 신앙의 대상인 증산을 경험하며 거주해야 할 지향점으로 삼는 무극도와 태극도의 도장을 정산의 '성스러운 중심지'라고 보고, 정산이 중심지를 옮기는 과정에서 드러나는 공간적 측면에 대해 다룰 것이다.

스미스는 종교 연구에서 다루는 장소를 인간에 의해 만들어지는 역동적인 개념으로 강조했다. 스미스는 자신의 연구에서 '공간'과 '장소'라는 용어를 구분하였는데, 그는 추상적인 성격의 공간과 달리 장소는 구체적인 의미를 갖는 용어이며 인간의 능동적인 행위와 관련되는 사회적인 개념이라고 규정했다.[27] 장소를 단순히 인간이 수동적으로 놓이는 용기가 아니라 인간의 적극적인 사고 작용의 산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28] 나아가 스미스는 장소가

시한 바 있다. Smith, *To Take Place,* 1-22. 스미스는 엘리아데가 중심의 상징을 오스트레일리아 어보리진 사례에 적용하는 부분에서 구체적인 역사적 사실이 엄밀히 들어맞지 않는 점을 지적한다. 자료의 엄밀한 활용에 대한 스미스의 지적은 타당하지만 엘리아데의 중심 상징은 인간이 성스러운 장소에 대해 지향하는 바를 설명하는 데에 여전히 활용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유요한은 엘리아데가 스미스와는 다른 관점에서 인간의 장소에 대한 인식에서 공통적으로 찾을 수 있는 일반적인 설명을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요한, 「거인 엘리아데의 어깨 위에서: 엘리아데 비판에 대한 엘리아데 관점의 답변」, 『종교학 연구』 30(2012), 66.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스미스가 비판한 것처럼 '성스러운 기둥'이나 '우주 축'의 모티브가 나타나지 않더라도 공간의 방위와 방향성을 확립하는 기준의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유요한, 「첫 순교자 묘에서 꿈꾸다: 하늘과 땅을 잇는 세계의 중심, 초남이성지」, 『종교학연구』 40(2022): 46-47쪽 30번 각주.

27) Smith, *To Take Place*, xii.

28) Smith, *To Take Place,* 26-28. 스미스는 이전의 글에서도 장소의 이해와 상징화(symbolization)를 통해 사회와 개인이 장소를 창조한다는 점에서 장소가 정적인 개념이 아닐 수 있다고 설명했다. Jonathan Z. Smith, *Map is not Territory: Studies in the*

개인적인 감정들의 경험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사회적으로 조직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29] 이러한 스미스의 논의는 성스러운 공간에 대해 현상학적으로만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성스러운 공간을 구성하는 사회적, 문화적 맥락을 고려할 수 있도록 했다는 의의를 갖는다.[30]

여기서 스미스가 제시한 공간과 장소의 구분을 본 연구는 따르지 않는다는 점을 짚을 필요가 있다. 본 연구가 사용하는 공간이라는 용어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개방적이고 역동적인 개념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킴 노트는 1990년대에 들어서 공간이라는 개념이 추상적이고 기하학적인 것이라는 데카르트적 관념에 국한되지 않고, 복잡하고 역동적인 개념으로 확장되었다고 설명한 바 있다.[31] 다만 스미스가 장소를 사회적 구성물이자 역동적인 개념으로 본 시각은 여전히 유효하다. 노트 또한 '장소'라는 용어가 과거에는 정적이고 경계가 있는 고정된 측면 때문에 비판을 받았지만, 장소 또한 역동적이고 개방적인 개념으로 재논의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32]

이처럼 종교의 공간을 역동적으로 다루는 맥락에서 노트는 공간적 전회(spatial turn)로 대표되는 최근의 흐름을 종교 연구 방법론에 적용하려고 시도했다.[33] 공간적 전회는 20세기 말부터 인문학과 사회과학 등의 분야에

History of Religions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78), 143-46.

29) Smith, To Take Place, 45.

30) 킴 노트는 스미스의 작업이 성스러움과 공간/장소의 현상학적 개념에 기반을 둔 이전의 흐름에서 사회적, 문화적 구성주의적 접근(social and cultural constructionist approaches)으로 전환시켰다고 평가한다. Kim Knott, "Spatial Theory and Method for the Study of Religion," *Temenos* 41(2005): 171.

31) Knott, "Spatial Theory and Method for the Study of Religion," 155-56.

32) 관련된 논의는 다음을 참고하라. Knott, *The Location of Religion*, 30-33. 본 연구에서 활용하는 공간과 장소의 용어 구분에 대해서는 각주 1번을 참고하라.

33) 노트는 공간의 원천이 되는 신체를 공간 분석의 출발점으로 삼고, 공간을 여러 차원(dimensions), 특성(properties), 측면(aspects), 역동성(dynamics)으로 나눠서 분석하는 자신의 방법론을 제시했다, 킴 노트가 제안하는 방법론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은 다음을 참고하라. Knott, *The Location of Religion,* 11-58, 124-30; Kim Knott, "Religion, Space, and Place," *Religion and Society* 1(2010): 36-37.

서 나타난 학문적 흐름으로, 전통적으로 시간과 역사를 집중적으로 살펴보았다면 이제는 공간적 측면 또한 중요하게 조명하려는 것을 대체로 공통적인 목표로 삼는다.[34] 공간이 사회적 구성물로서 인간의 여러 현상을 이해하는 데에 중요한 측면이라는 시각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35] 다시 말해, 모든 사건이 공간에서 일어난다는 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사건이 '어디에서 일어났느냐'의 문제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노트는 이러한 흐름을 종교 연구에 적용해 공간의 다양한 측면을 조명하고 공간을 권력, 역사, 시간 등과의 관계 속에서 역동적인 것으로 볼 것을 강조했다.

본 연구는 공간에 관한 종교 연구를 확장한 스미스와 노트의 논의를 따라 공간의 역동적인 측면을 고려하며, 종교 연구에서 공간을 주된 연구 대상으로 삼았을 때 포착할 수 있는 점을 드러낼 것이다. 먼저 정산의 중심지 이동 과정에서 나타나는 여러 장소들이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흐름에 주목할 것이다. 정산은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사회적, 정치적 사건들에 대응하며 특정 장소들을 성스러운 중심지로 설정했다. 이때 과거에는 평범했던 장소가 중심지로 설정되고, 특정 시기에 도달했을 때는 기존 중심지가 다시 평범했던 장소로 돌아가는 변화에 초점을 두고 논의를 진행할 것이다. 그리고 중심지를 설정하던 정산이 사망한 이후 정산 교단의 장소가 겪는 변화 또한 중요하게 분석할 것이다. 일례로, 태극도에게 감천 도장은 정산이 이

34) '공간적 전회(spatial turn)'이라는 용어 자체는 지리학자 에드워드 소자(Edward W. Soja)가 처음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Edward W. Soja, Postmodern Geographies(London: Verso, 1989), 39. 공간적 전회에 대해서는 비슷한 제목으로 출간된 두 연구서를 참고하라. Jörg Döring and Tristan Thielmann(ed.), *Spatial Turn* (Bielefeld: Transcript, 2008); Barney Warf and Santa Arias(ed.), *Spatial Turn* (Oxfordshire: 2009, Routledge). 앞의 책은 번역본이 출간되었다. 외르크 되링, 트리스탄 틸만 엮음, 『공간적 전회』, 이기숙 옮김(서울: 심산출판사, 2015). 한편 공간적 전회에 대해 긍정적인 시각만 있는 것은 아니다. 특히 외르크 되링과 트리스탄 틸만은 책의 서론에서 지리학 내부에서 공간적 전회를 중요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입장에 대해서도 소개하고 있다. 외르크 되링, 트리스탄 틸만 엮음, 『공간적 전회』, 43-52.

35) Warf and Arias(ed.), *Spatial Turn*, 1.

동한 여러 중심지 중 하나에 불과했던 장소였지만 정산 사후 정산과 관련된 '유일한' 장소로서 특별한 의미를 갖게 됐다. 이처럼 정산 교단의 역사 속에서 장소가 맞이하는 변화의 흐름을 다룰 것이다.

또한 이러한 장소의 변화가 종교를 이해하는 데에 중요한 측면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태극도, 대순진리회, 증산법종교 등 증산계 교단 간의 차이를 공간의 차원에서 효과적으로 조명하고자 한다. 본론에서 증산법종교의 완결되는 중심지 이동의 유형과 비교했을 때 태극도는 계속되는 중심지 이동의 유형을 갖고 있다는 점을 다룰 것이다. 중심지 이동의 양상이 다르다는 점에 주목해 정산의 카리스마가 증산의 역사적인 측면보다 초월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특징이 있다는 것을 드러내고자 한다. 증산법종교는 역사적 특수성을 강조하며 특정 역사적 위치에 정착했지만, 정산의 태극도는 역사적 위치에 매이지 않고 어느 위치든 중심지로 정당화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두 유형은 정산 사후 태극도와 대순진리회의 중심지 이동 사례에도 적용된다는 점 또한 다루면서 결과적으로 이러한 중심지 이동의 차이가 두 교단의 카리스마 계승 방식의 차이와 관련 있다는 점을 논의할 것이다. 이러한 교단의 차이가 공간의 차원에서 중심지 이동을 조명할 때, 보다 효과적으로 드러난다는 점이 중요하다. 중심지 이동이라는 공간적 차원을 중심으로 보는 시각이 증산의 카리스마를 계승하는 종교가 발전하는 과정, 그리고 나아가서는 종교를 이해하는 방식을 확장해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2) 시간적 연결을 통한 종교의 장소 이동에 관한 연구

공간의 차원에 주목해 종교를 이해하는 맥락에서 본 연구는 정산의 중심적인 장소가 이동하는 현상을 분석한다. 본론의 Ⅲ장에서는 정산이 중심지

를 이동할 수 있었던 정당성의 근거에 대해 구체적으로 다룰 것이다. 특히 정산이 도수를 활용해 증산과 시간을 뛰어넘어 연결되고, 그러한 시간적 연결을 근거로 삼아 중심지를 옮길 수 있었다는 점에 관해 논의하고자 한다. 따라서 시간적 특징을 바탕으로 장소를 옮기는 것이 가능하다고 설명하는 연구들을 바탕으로 정산의 중심지 이동이 정당성을 얻는 근거를 파악할 것이다. 이는 종교의 시간과 공간의 관계에 관한 또 다른 측면을 드러내는 작업이기도 하다.

로버트 올시(Robert Orsi)는 특정 장소에 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시간적 일치를 통해 공간적 단절을 극복하려는 종교의 사례를 제시한 바 있다.[36] 올시의 논의는 시간적 연결이 공간적인 정당성을 대체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정산의 중심지 이동 전략을 설명하는 실마리를 제공한다. 올시는 미국 시카고에 있는 성인 유다 타대오의 성지(National Shrine of Saint Jude Thaddeus)의 시간에 맞춰 신자들이 기도하는 현상에 주목했다.[37] 미국의 가톨릭 신자들은 시카고의 해당 성지에 직접 방문하지 않는 대신, 성지에서 기도하는 시간에 맞춰 자신의 집에서 기도함으로써 방문을 대신한다. 이 성지를 세운 글라렛선교수도회 소속 신부 제임스 토트(James Tort)는 신자들에게 성지에 반드시 방문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알리고 대신 성지에서 의례가 행해지는 정확한 때에 맞춰 집에서 기도할 것을 강조했다. 공

36) 본 논문에서 소개하는 올시나 스미스에 앞서, 아브라함 헤셸(Abraham Joshua Heschel)이 유대교의 안식일(Sabbath) 사례를 통해 시간적 일치를 바탕으로 공간적 단절을 극복하는 것에 관해 논의한 바 있다. 헤셸의 설명에 따르면, 안식일이라는 시간에 유대인들은 각자의 집에서 신과 함께하는 경험을 할 수 있다. 헤셸은 시간을 통해 신과 관련된 경험을 한다는 점에서 안식일을 '시간 속의 궁전(palace in time)'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Abraham Joshua Heschel, *The Sabbath: Its Meaning for Modern Man* (New York: Farrar Straus and Giroux, 1994[1951]), 14-17. 시간과 공간의 관계에 관한 이러한 헤셸의 시각은 이후 종교 연구자들에게 널리 받아들여졌다.

37) Robert Orsi, "The Center out There, in Here, and Everywhere Else: The Nature of Pilgrimage to the Shrine of Saint Jude, 1929-1965," *Journal of Social History* 25(1991): 213-32.

간적 거리를 시간적 일치를 통해 극복하는 것이다. 올시는 이 사례에서 시간이 인간과 거룩함이 교류하는 증거이자 매개체가 된다고 설명하고, '공간이 시간이 된다'라고 표현했다.[38] 이러한 올시의 사례는 시카고의 성지라는 특정 역사적 위치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시간적 연결을 통해 공간적 단절을 극복하려는 시도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다루는 정산의 사례는 역사적 위치에 매이지 않고 시간적 연결을 바탕으로 새로운 중심지를 설정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시간적 연결을 바탕으로 역사적 위치와 관계없이 새로운 장소를 정당화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조나단 스미스가 구체적으로 논의한 바 있다.

조나단 스미스(Jonathan Z. Smith)는 종교의 장소 이동 현상에서 시간이 가진 중요성을 다른 사례를 통해 설명했다. 구체적으로는 전례력이라는 시간의 구조를 통해 공간적 거리를 극복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논의했다. 스미스는 *To Take Place*의 4장에서 예루살렘의 성전(Temple)과 성묘(Holy Sepulchre)에 접근하지 못하는 역사적 상황 속에서 유대교와 기독교가 어떻게 그 장소를 옮겼는지 분석했다.[39] 스미스가 다루는 사례들에서 장소 이동은 새로운 위치에 기존의 장소를 복제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중심으로 검토되고 있다. 스미스의 설명에 따르면, 성전의 위치는 구체적인 지형과 관계없이 우연히 선정된 것이고, 물리적 위치와 분리될 수 있는 고도화된 체계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체계를 다른 위치에 옮기는 방식으로 복제가 가능하다. 반면 구체적인 지형과 역사적으로 관련이 있는 장소는 기존 장소의 복제가 성전의 사례처럼 곧바로 이뤄지지는 않는데 이러한 유형의 장소가 어떻게 복제될 수 있는지 다루고 있는 것이 스미스의 주된 논의다. 성전

38) Orsi, "The Center out There, in Here, and Everywhere Else," 21-22.
39) Smith, *To Take Place*, 83-95.

과 달리 역사와 긴밀히 결속돼 있고 위치의 특수성 또한 갖고 있는 성묘 교회는 전례력을 기반으로 한 의례를 통해 복제될 수 있었다. 이러한 의례가 확립되는 과정을 거치며 시간의 구조가 강조되었고, 이러한 시간적 연결을 바탕으로 장소의 복제가 가능했다는 것이 스미스의 주요한 주장이다. 성묘 교회 사례에 대한 스미스의 설명은 앞서 제시한 올시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특정 역사적 위치를 시간적 연결을 통해 옮기는 내용이다. 하지만 스미스는 예루살렘 전통과 비교되는 오스트레일리아 어보리진의 사례를 통해 정산의 사례에 적용될 수 있는 논의를 전개했다.

본 연구가 스미스의 논의 중에서 중요하게 활용할 부분은 시간적 연결을 바탕으로 역사적 위치에 매이지 않고 장소를 옮기는 아란다(Aranda) 신화의 사례에 대한 분석이다.[40] 이는 도수를 통해 시간을 거슬러 증산과 연결함으로써 새로운 중심지를 설정하는 정산의 사례를 효과적으로 설명하는 데에 활용된다. 아란다 신화에 따르면, 신화적 시대라고 할 수 있는 '꿈의 시간(Dreamtime)'에, 신화적 존재인 조상들이 장소나 지형으로 변형되어 지금까지 남아 있다. 따라서 아란다 족에게 지금의 장소나 지형은 모두 신화의

40) Smith, *To Take Place*, 112-14. *To Take Place*의 5장 후반의 논의는 의례와 장소에 초점을 맞춰 이뤄지고 있다. 스미스에 따르면, 의례는 주의(attention)를 기울이는 양식이다. 그리고 의례와 관련해 장소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장소는 주의의 방향을 설정해 상황적으로 의례 대상이나 행위를 성스럽게 만든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스미스는 장소에 관한 의례와 신화가 결합하는 사례에서 나타나는 특징을 논의한다. 스미스에 따르면, 의례는 어떤 사물이나 행위의 차이를 정교화하는 차별화 작업을 기반으로 한다. 하지만 어떤 것을 다른 것으로 변형시키는 양식인 신화와 의례가 결합하면서 의례의 특성인 차별화는 상실된다. 그래서 장소에 관한 신화와 의례가 결합하면, 신화 안에서 어떤 장소든 새롭게 주의를 기울이는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스미스는 장소에 관한 신화와 의례가 결합하는 사례로 아란다 신화와 기독교의 예루살렘 전통을 제시한다. 아란다 신화가 시간적 연속을 공간적 연속으로 확장한 사례라면, 기독교의 예루살렘 전통은 반대로 공간적 연속을 시간적 연속으로 확장한 사례다. Smith, *To Take Place*, 103-117. 아란다 족의 의례는 '그때'와 '지금'의 차이를 바탕으로 조상과 사람을 잇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신화의 변형에 의해 '그때'와 '지금'이 연결되며 그러한 차이가 상실된다. 정산의 도수 활용 또한 '그때'와 '지금'의 차이를 바탕으로 하되 두 시간대가 연결되는 형식을 취한다.

시간 속 조상들의 활동에서 결정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시간과 관련해서 보면 아란다 신화에는 조상의 변형이 이어주는 두 시간대, 즉 조상들이 활동하던 '그때'와 우리가 현재로 보는 '지금'이 있다. 스미스는 아란다 족의 조상 신화가 '그때'와 '지금'의 시간을 연결하면서 특정 역사적 위치에 매이지 않고 새로운 장소를 설정한다는 점을 짚었다. 스미스는 이것을 시간적 연속이 공간적 연속으로 확장되는 사례라고 표현하였으며 이 경우에 어떤 장소든 새롭게 등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본 논문의 Ⅲ장에서는 정산의 사례에서도 도수를 활용하는 정산에 의해 증산의 '그때'와 정산의 '지금'이 연결된다는 점을 논의한다. 그리고 이러한 시간적 연결을 바탕으로 도수에 따른 장소가 역사적인 위치와 관계 없이 정당화될 수 있다는 점을 밝힐 것이다.

아란다 신화와의 비교에서 드러나는 유사점뿐만 아니라 차이점 또한 중요하다. 아란다 신화를 비롯해 많은 종교에서는 '의례'를 통해서 신화의 시간과의 연결을 시도한다.[41] 의례가 진행되는 동안 의례 참가자들은 의례가 기념하는 사건의 시기로 돌아가는 경험을 하는 것이다. 하지만 정산의 사례에서는 정산이라는 역사적 인물이 의례를 대신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차이가 있다. 아란다 신화의 사례는 신화의 시간 속 조상에게 계속해서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물건이나 장소가 무한히 나타날 수 있다. 하지만 태극도에서는 정산이라는 역사적 인물의 사후에 도수 해석이 끊기면 더 이상 신화의 시간이라고 할 수 있는 증산의 천지공사에 접근할 수 없다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정산이라는 카리스마적 인물만이 유일하게 도수를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정산 사후 교단은 분열되며 중심지를 설정하는 방식

41) Smith, *To Take Plac*e, 13. 보다 일반적인 시각에서 엘리아데는 의례를 통해서 신화의 시간과 연결되는 현상에 대해 설명한 바 있다. Eliade, *The Sacred and The Profane*, 77-95.

에서 서로 다른 모습을 보이게 됐다. 본 연구는 정산 사후 중심지 설정 양상이 나뉜 현상에 대해 다루면서 증산으로부터 이어지는 종통과 중심지 설정 사이의 관계에 주목할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증산에 이어 도수를 보던 정산의 카리스마를 사후 교단들이 장소와 관련짓는 방식에 따라 중심지 이동에 어떤 차이가 생기는지 Ⅳ장에서 보다 자세히 다룰 것이다.

3) 증산계 교단의 공간과 장소에 관한 연구

한국의 신종교와 관련하여 공간과 장소에 대한 개괄적인 연구들이 있었다. 특히 류병덕과 김홍철 등은 증산계 교단들을 비롯한 전라북도 지역의 종교들을 '모악산하' 종교로 묶고, 해당 종교들과 지역적인 특성을 연관지어 연구를 진행했다.[42] 허남진은 천도교, 증산교, 대종교, 원불교, 통일교 등 신종교의 성지들을 짚고 그 특징을 정리했다.[43] 강돈구, 윤용복, 허남진, 고병철은 한국 신종교의 성지를 정리했는데 여기에는 '증산 종단', 대순진리회, 증산도가 포함돼 있다.[44] 이러한 연구들은 신종교의 성지를 정리하고 신종교의 공간적 측면에 대한 관심을 드러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지만, 그러한 성지들의 복합적인 측면이나 역동적인 변화에 대해 다루는 것으로 나아가지는 못했다. 또한 증산계 교단에 대해서 다루는 과정에서 장소와 관련된 교단 간의 차이가 중요하게 다뤄지지 않았다.

최근에는 증산계 종교의 공간에 대한 세부적인 연구도 진행되고 있다.[45]

---

42) 류병덕, 『계룡산하 종교집단체와 모악산하 종교집단체의 비교 연구』 (익산: 원광대학교, 1968); 김홍철, 「모악산하 민중종교운동의 발생원인에 관한 연구」, 『한국종교사연구』 5(1996), 297-329.

43) 허남진, 「한국 신종교 성지의 양상과 특징」, 『한국종교』 42(2017), 173-201.

44) 강돈구, 윤용복, 허남진, 고병철, 『한국의 신종교 성지』 (성남: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2021).

45) 김승남, 「대순진리회 도장의 공간배치와 성소적 의미」, 『신종교연구』 34(2016),

특히 무극도(태극도)의 중심지 이동에 관해 박인규와 차선근이 구체적으로 다룬 바 있다. 박인규는 일제강점기 시기의 보천교와 함께 무극도의 역사를 다루면서 무극도의 태인 도장 설립에 증산의 언행이 반영됐다는 점과 부산으로 옮기는 데에 '釜山(부산)'의 파자 해석과 도수에 따른 설명이 있었다는 점을 짚고 있다.[46] 차선근은 무극도와 태극도를 비롯해 대순진리회가 장소를 설정하는 데 고려한 요소들을 정리한 바 있다. 차선근은 대순진리회의 성지(sacred site)가 교조(敎祖)인 증산과 관련된 역사적인 장소가 아니라 도장과 영대라는 점을 짚고, 도장의 위치를 결정하는 데에 풍수(風水)와 도수, 천장길방(天藏吉方)의 요소가 있다는 점을 논의했다.[47] 특히 차선근은 도수로 인해 정산의 중심지가 특정 시기에 따라 새롭게 드러나거나 생명력을 잃는다는 점을 짚었다.[48] 이는 도수가 장소에 유한한 시간을 부여한다는 점에 관한 논의의 가능성을 제시했다고 볼 수 있다.

이 연구들이 제시한 정산의 중심지 이동을 가능하게 한 요소들은 본 연구가 다루는 무극도와 태극도, 대순진리회의 사례에도 적용될 수 있다.[49] 하지만 박인규와 차선근은 정산의 중심지 이동에서 드러나는 전략들이 정당성을 갖는 구체적인 근거에 대한 논의로 나아가지 않았다. 박인규의 연구는 장소에 집중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중심지 이동과 관련된 교리적인 해석을 제시하는 수준에 그쳤고, 차선근은 대순진리회의 장소가 인간에 의해 만들

1-32; 허남진, 「대순진리회의 성지와 순례의 의미」, 『대순사상논총』 22(2014), 539-565.

46) 박인규, 「일제강점기 증산계 종교운동 연구」, 203-6.

47) Cha Seon-Keun, "Is Sacred Site Discovered? Or Created?: A Case Study of Daesoon Jinrihoe" in *Sacred Sites and Sacred Stories Across Cultures,* ed. David W. Kim (London: Palgrave Macmillan, 2021), 327-54.

48) Cha, "Is Sacred Site Discovered? Or Created?," 339-42.

49) 정산 이후 태극도 내에서 우당 박한경을 후계자로 따르는 세력은 1968년 이후 대순진리회로 분립했고, 박한경을 따르지 않는 세력은 감천 도장에 태극도라는 이름으로 남았다. 풍수와 도수, 천장길방의 요소를 통해 중심지를 설정하는 방식은 대순진리회와 무극도 및 태극도에서 유사하게 나타난다.

어지는 것인지, 성스러운 장소가 우선하고 인간에게 발견되는 것인지에 대한 논의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리고 두 연구는 정산의 중심지 이동을 증산으로부터 카리스마를 계승하는 방식과 관련지을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정산 사후 그를 계승하는 두 교단인 태극도와 대순진리회가 중심지를 대하는 방식이 서로 달라지는 점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지 않다. 본 연구는 선행 연구들이 제시한, 중심지 이동을 가능하게 하는 이데올로기적 요소들을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중심지 이동의 전략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정산의 중심지 이동을 정당화하는 근거를, 도수가 증산과 정산을 연결하는 특징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다룰 것이며 증산과 정산의 카리스마가 계승되는 방식이 어떻게 중심지 설정 방식과 관련을 맺는지 논의할 것이다.

3. 자료의 범위와 논문의 구성

본 연구는 정산 조철제의 종교 활동을 중심으로 논의하기 때문에 태극도의 경전 『태극진경』을 주된 자료로 활용한다. 태극도는 1989년 『진경(眞經)』을 발행했는데 이는 증산의 생애를 대상으로 하는 『무극진경』과 정산의 생애를 다룬 『태극진경』으로 구성돼 있다. 태극진경을 통해 정산의 전반적인 종교 활동과 도장을 옮길 때마다 있었던 정산의 언술들을 참고할 것이다. 이외에 효과적인 설명을 위해 이상호가 저술한 『증산천사공사기(甑山天師公事記)』나 『대순전경(大巡典經)』 그리고 대순진리회의 자료들도 함께 참고할 것이다. 1926년 발행된 『증산천사공사기』는 보천교 간부 출신으로 증산교라는 증산계 교단을 세운 이상호가 저술한 책으로, 증산에 대해 저술한 최초의 자료다. 이를 보완해 1929년 발행된 『대순전경』 초판

은 증산계 교단이 발행한 경전 중 시기적으로 가장 앞선 것이다. 또한 대순진리회가 1968년 태극도와 분열되기 이전까지 교단의 역사를 공유한다는 점에서 그 경전인 『전경(典經)』이나 정기 간행물인 『대순회보』 등을 정산을 이해하는 과정에서도 참고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증산교본부의 지도자인 종령을 역임했던 홍범초가 1988년 펴낸 『범증산교사』 또한 참고할 것이다. 『범증산교사』는 20개가 넘는 증산계 교단들의 역사를 외부자의 입장에서 다루려고 한 책으로, 각 교단의 자료를 나열하는 방식으로 서술하고 교단별로 정보의 수준이 차이가 있다는 단점이 있지만 많은 정보를 담고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 자료들이 각각 특정 교단의 입장을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 『태극진경』은 태극도로부터 갈라져 나와 대순진리회를 세운 우당 박한경에 대해 비판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는 본 연구에서 주목하는 태극도 감천 도장의 배타적인 강조와 감천 도장을 떠난 무리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으로 나타난다.[50] 반면 『전경』은 정산이 마지막으로 설정했던 중심지인 감천 도장에 관해 거의 언급하지 않으며 감천 도장을 중시하지 않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이러한 『태극진경』과 『전경』이 보이는 내용상의 차이는 각 교단 간의 입장 차이를 드러내는 데에 활용할 것이다.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정산의 중심지 이동과 관련해 다음과 같이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먼저 Ⅱ장에서는 정산이 정읍의 태인 도장을 설립하고 그곳을 떠나 부산의 보수동을 거쳐 감천동으로 이동하는 과정을 다룰 것이

50) 『태극진경』 8장 121절에서는 “도를 대강전을 떠나 진법 밖에서 구하려 하지 말라”는 내용을 포함하며, 『태극진경』 9장 18절은 “대강(大降)을 대강전을 떠나 다른 곳에서 찾거나 도통을 내가 설법한 진법공부 아닌 다른 방법으로 얻으려 한다면 그러한 생각만 가져도 벌써 배신, 배도자가 됨이니 계지신지(戒之愼之)하라.”와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다. 이 과정에서 정산이 성스러운 중심지를 설정할 때 동원하는 이데올로기에 대해 살펴본다. 정산은 1920년대 초 무극도라는 이름으로 교단 활동을 시작하며 전라북도 정읍군 구태인 도창현(지금의 정읍시 태인면 태흥리)에 첫 도장을 세웠지만, 무극도는 일제의 강제 해산 조치로 인해 1936년 이후 해산됐다. 이후 정산은 1948년 교단 이름을 태극도로 바꾸고 부산의 보수동에 도장을 조성한 뒤 1955년에 다시 한 번 부산 감천동으로 옮기게 된다. 여기서는 무엇보다도 이러한 과정 속에서 정산이 각 장소에 의미를 부여하고 중심지 이동을 설명하는 데에 복합적으로 활용했던 증산의 언행, 풍수(風水), 도수(度數), 지명의 파자(破字) 해석 등 여러 요소들을 제시할 것이다. 특히 일제의 강제적인 해산 조치로 태인 도장을 상실한 상황과 부산의 새로운 중심지를 찾는 상황을 정당화하기 위해 도수를 활용했다는 점을 짚을 것이다. 그래서 중심지 이동을 위해 여러 이데올로기적 요소들이 동원되지만, 중심지를 옮기는 상황을 교인들이 수용할 수 있도록 정당화하는 가장 핵심적인 전략은 도수였다는 점을 보일 것이다.

Ⅲ장에서는 중심지 이동을 정당화하는 근거가 되는 도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분석한다. 기존의 도장을 떠나고, 새로운 도장으로 이동하는 전략으로서 활용된 도수의 특징을 살펴본다. 먼저 증산의 천지공사에 의해 정해진 도수가 장소에 유한한 시간을 설정하는 방식으로 새로운 장소의 정당화와 기존 장소의 폐기가 이뤄진다는 점을 다룰 것이다. 이러한 도수의 특징은 중심지가 정해진 시간에 따라 정당성을 얻거나 잃는다는 설명을 제공한다. 여기에 더해 도수가 중심지를 정당화하는 구체적인 근거에 대해 논의한다. 특히 시간을 뛰어넘어 증산과 정산이 연결된다는 점을 짚을 것이다. 정산은 자신의 시간대에 일어난 일을 증산의 천지공사 때의 일과 대응시키면서 자신의 일이 증산의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처럼 증산의 시간과 연결하는 것이

역사적인 위치에 매이지 않고 중심지를 설정하는 근거가 된다는 점을 설명할 것이다. 효과적인 설명을 위해서 조나단 스미스가 장소 이동과 관련되는 시간에 대해 논의한 바를 활용해 도수가 신화의 시간대인 증산의 '그때'와 정산의 '지금'을 이어준다는 점을 짚을 것이다. Ⅳ장으로 넘어가기에 앞서, 여러 종교의 사례에서 신화적 시간과의 연결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의례라면 태극도의 사례에서는 정산이라는 카리스마적 인물이 개인과 증산을 잇는 중개자 역할을 하며 도수에 따른 시간과 장소를 연결했다는 점을 짚을 것이다. 정산은 자신의 도수를 활용하는 능력을 증명함으로써 증산으로부터 이어받은 종통, 즉 카리스마를 근거로 정산의 중심지 이동 전략을 가능하게 했다.

Ⅳ장에서는 정산 사후 교단이 분열하며 태극도와 대순진리회가 서로 다른 중심지 이동의 양상을 보인 현상에 대해 논의한다. 정산 사후에 나뉜 중심지 이동의 두 양상을 효과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먼저 증산 사후의 두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증산 사후 시기 정산과 화은당의 사례를 비교하며 증산의 카리스마를 중심지와 관련짓는 방식에 따라 구분되는 중심지 이동의 두 유형을 제시할 것이다. 정산의 중심지가 도수를 해석하는 능력을 통해 종통을 부각시키며 증산의 초월적 측면을 강조했다면, 증산법종교의 중심지는 증산의 친딸이라는 화은당의 혈통을 강조하며 증산의 역사적 측면을 상대적으로 더 중시했다는 점을 보일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차이는, 정산의 사례가 역사적 위치에 매이지 않고 도수를 통해 중심지를 계속해서 이동할 수 있었지만 증산법종교는 증산과 관련된 역사적 특수성을 강조하며 특정 장소에서 중심지 이동을 완결하게 된 차이로 이어졌다는 점을 다룰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두 유형이 정산 사후에 분열한 태극도와 대순진리회의 중심지 이동 사례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점까지 짚을 것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본 연구는 정산의 중심지라는 공간적 측면을 증산으로부터 이어지는 종통, 즉 카리스마와의 관계 속에서 다룰 것이다. 정산의 중심지를 옮기는 과정뿐만 아니라 정산의 사후에 태극도와 대순진리회가 중심지를 설정할 때에도 증산에서 정산으로 이어지는 종통은 각 중심지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핵심적인 근거였다. 이어지는 Ⅱ장부터 증산과의 연관성을 바탕으로 정산의 중심지 이동이 이뤄졌다는 것을 보이며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할 것이다.

Ⅱ. 정산의 성스러운 중심지 이동

정산 조철제는 크게 두 차례 도장(道場)을 옮기면서 종교 활동을 이어갔다. 정산이 어떤 장소를 도장, 즉 교단의 주된 종교 활동의 장소로 설정할 때에는 증산과의 연관성을 강조하는 여러 해석들이 뒤따랐다. 정산의 중심지에는 특히 교인들이 이주해 주거 공동체가 형성되곤 했다. 전라도의 태인 도장 설립 후에는 경상도 등지에서 상당수의 교인들이 이주해 와서 태인 전체 인구가 2-3천여 명에서 3만 명이 넘을 정도로 늘었다고 알려졌다.[51] 부산으로 옮겨간 뒤에도 한때는 '부산에 가야만 도를 믿을 수 있다'는 말이 돌 정도로 교인들의 이주가 계속됐다.[52] 1964년 기준으로 감천동의 전체 인구는 1만 1천여 명이 되었는데,[53] 그 중 교인은 6천 명이 넘었다.[54] 이처럼 정산의 종교적 해석들은 교인들이 살아갈 곳을 정하고 그 장소의 의미가 형성되는 데에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설정되는 장소들은 정산의 교인들에게 성스러운 중심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들에게 성스러운 중심지는 증산이라는 신앙의 대상을 경험하는 곳이자 의미 있는 삶을 위해 가까이 거주해야 할 지향점이었다. 도장을 방문한 교인들은 증산의 영위가 있는 영대에서 의례를 수행하고, 그곳으로 이주한 많은 교인들은 의미 있게 살아갈 장소를 얻기 때문이다. 태극도에서는 부산 지역을 중부(中部)라고 칭하고 그밖의 지역을 지방이라고 불렀는데,[55] 이는 지리적인 위치와 관계 없이 도장이 위치한 부산을 중심으로

51) 종단역사연구팀, 「무극도 진업단과 개간지」, 『대순회보』 178 (여주: 대순진리회 출판부, 2016).
52) 홍범초, 『범증산교사』, 378.
53) 부산시, 『부산시 제4회 통계연보』 (부산: 부산시, 1965), 42.
54) 1964년 기준 감천동의 태극도 신도는 6,392명이었다. 부산시, 『부산시 제4회 통계연보』, 199.

여기는 태도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도 있다.

이 장에서는 본 연구의 대상이 되는 정산의 중심지 이동이 전개된 과정을 제시한다. 특히 증산과의 연관성을 강조하며 각 중심지에 의미를 부여하고, 중심지의 이동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는 풍수나 지명에 따른 해석 혹은 증산의 언행 등 여러 요소들을 짚는다. 그리고 무엇보다 과거의 중심지와 새로운 중심지에 대한 포괄적인 설명을 제공하며 중심지를 옮기는 상황을 교인들이 수용할 수 있도록 했던 핵심적인 전략이 도수였다는 점을 설명할 것이다.

1. 첫 중심지의 설립과 해산: 무극도의 태인 도장

정산이 무극도(無極道)라는 교단을 세우고 첫 도장을 설정하는 과정을 살펴보면서, 증산과의 관계를 바탕으로 중심지로서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정산의 논리를 제시할 것이다. 더불어 그렇게 세운 도장이 사회적 요인에 의해 상실되는 상황을 정산이 어떻게 정당화했는지 설명하고자 한다. 새로운 장소를 도입하고, 기존의 장소와 결별하는 정산의 방식을 모두 살펴볼 것이다.

먼저 무극도를 세우기 전까지 정산의 서사는 증산의 계시가 가리키는 목적지이자 증산의 종통을 인정받는 장소로서의 '본소(本所)'를 찾는 여정이라고 할 수 있다. 정산 조철제는 1895년 경남 함안에서 태어나 15세가 되던 1909년 부친을 따라 만주로 망명한다. 같은 해에 죽은 증산을 직접 만나지는 못했지만, 만주로 망명하던 기차 안에서 정산은 증산의 첫 음성 계시를

55) 『태극진경』, 5장 47절.

받았다고 전해진다. 이후 1917년 “속히 환국하여 나의 본소를 찾으라”[56]는 증산의 계시를 받고 귀국하여 태안 안면도에 잠시 정착했다가 1918년 전북 원평(지금의 김제시 금산면) 황새마을로 이주한다. 정산은 여러 사람을 만나고 떠돈 끝에 이곳에서 ‘본소’를 찾고 증산을 잇는 후계자로서 종통을 인정받았다고 주장했다.[57] 이후 증산의 직접적인 계시에 의해 이동하는 여정은 끝이 나고 정산은 자신의 교단을 세우고 독자적인 종교 활동을 시작한다.

정산은 1920년대 초반에 무극도를 창립하여 전라북도 정읍군 구태인 도창현(지금의 정읍시 태인면 태흥리)에 태인 도장을 세웠다.[58] 교단의 이름은 당시 자료에 따라 무극교(無極敎), 무극대도교(無極大道敎), 무극도(無極道) 등으로 다양하게 불렸다. 태인 도장의 모습에 대한 묘사는 다음과 같은데 도장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건물은 증산의 영위가 있는 영대(靈臺)이다.

> 을축년 4월 15일에 도장의 주요 건물인 영대(靈臺)와 도솔궁(兜率宮)이 영건되고 그 밖의 건물과 시설은 다음해 말에 완공되니라. 영대는 총 48칸의 건물로서 상층에 구천상제님의 영위(靈位)를 봉안하시고, 2층과 하층은 집회장으로 쓰게 하시니 그 내부는 3층이나 외부는 2층의 구조이니라. (중략) 영대와 도솔궁을 중심으로 각종 회관과 사무실, 거실과 주방, 창고와 작업실 등의 건물이 있고, 도장 주위에는 담장을 축조하였으며 동서남북 사대문을 내니라. 전체 건물의 동수는 증축한 부분을 합하여 19동이며 총 칸수는 240여 칸, 구조는 목조, 기와 지붕에 건물마다 단청을 한 전통 고전형(古典形)이니라. 공사 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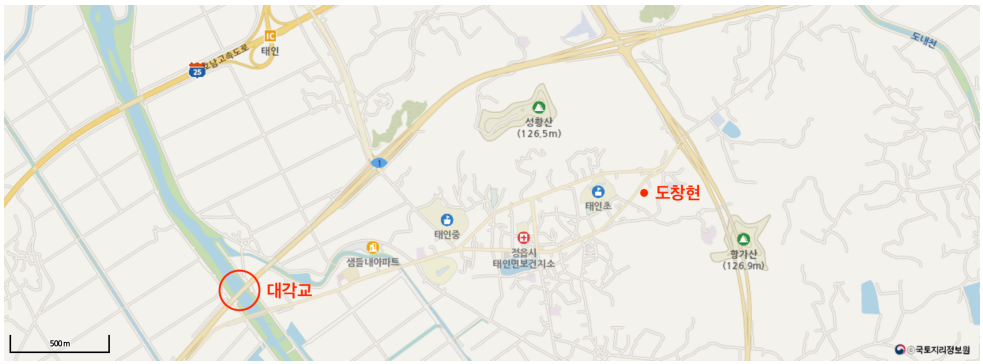
56) 『태극진경』, 2장 11절.
57) 이와 관련해 증산의 음성 계시를 수차례에 걸쳐 받고 정산이 본소를 찾아 여러 장소를 거치는 여정은 『태극진경』 2장에서 다뤄진다.
58) 구체적인 무극도의 창립 시기는 1921년 창립설과 1925년 개칭설 또는 1925년 창립설 등 자료에 따라 다르다. 1919년경에 무극도의 움직임이 있었다는 기사들도 있지만 여러 자료들이 가리키는 창립 시기는 모두 1925년을 넘지 않는다. 고병철, 「종교와 항일독립운동, 그리고 쟁점: 무극도 사례를 중심으로」, 『대순사상논총』 35(2020): 45-6.

간은 33개월, 동원 인원은 연 12만 명, 공사비는 5만원에 달하니라.[59]

이러한 도장을 설정할 때 무엇보다 강조된 것은 정산에게 종통(宗統)을 이어주는 종교 지도자이자 신앙 대상인 증산과의 관계였다. 태인의 도창현(道昌峴)에 자리잡게 된 이유에는 첫째로 해당 장소에 의미를 부여하는 증산의 언행이 있었다. 정산은 도창현이 과거 증산이 자주 찾았던 곳이며[60] 증산이 "상유도창(上有道昌) 하유대각(下有大覺) 백의군(白衣君) 백의신(白衣臣), 운회지지(運廻之地)"라는 말을 남겼다는 점을 언급했다.[61] 증산이 말한 내용은 『무극진경』 6장 46절에도 등장한다. 이 구절에 따르면, 증산은 태인 도창현을 지나면서 종도들에게 "이곳이 군신봉조지국(群臣奉詔之局)이며 상유도창(上有道昌)하고 하유대각(下有大覺)하니 백의군(白衣君) 백의신(白衣臣)의 운회지지(運廻之地)니라"는 말을 남겼다. 군신봉조지국은 신하들이 왕에게 조서를 받으며 예를 갖추는 형상을 가리키는 말로, 이는 좋은 풍수의 조건을 갖춘 대표적인 유형 중 하나다.[62] 최창조에 따르면, 이처럼 산의 형세를 비롯한 지형을 특정한 형상에 빗대어 보는 것은 풍수의 방법론 중에서도 형국론(形局論)에 해당한다.[63] 형국론은 대개 산이 생긴 모양을 사람, 동물, 조류, 파충류, 기타 여러 물체의 형상으로 본다. 우주의 만물이 고유의 기상(氣像)과 기운(氣運)을 갖고 있기 때문에 특정 형상에

59) 『태극진경』, 3장 68-69절.
60) 『증산천사공사기(甑山天師公事記)』에는 증산이 태인을 자주 방문하는 이유가 도창현(道昌峴)이라는 지명과 관련 있다는 저자 이상호의 주석("천사(天師)께서 자조 태인(泰仁)에 머무심은 도창현(道昌峴)이 있음을 취(取)하심이러라")이 등장한다. 『증산천사공사기(甑山天師公事記)』, 85-86쪽. 증산이 태인의 도창현을 자주 찾았다는 내용은 『전경』의 다른 구절에서도 찾을 수 있다. 『전경』, 행록 4장 6절.
61) 『태극진경』, 3장 59절.
62) 군신봉조형은 형국론의 여러 사례 중 하나로 언급된다.
63) 최창조, 『좋은 땅이란 어디를 말함인가』 (서울: 서해문집, 1990), 181-82, 324.

상응하는 기상과 기운이 그 형상과 닮은 지형에도 내재하고 있다고 전제하기 때문이다.[64]



〈그림 1〉 무극도의 태인 도장이 있던 전북 정읍시 태인면의 지도[65]

'상유도창, 하유대각'은 기본적으로 높은 곳에 도의 창성함이 있고 낮은 곳에 큰 깨달음이 있다는 뜻이다. 여러 해석이 있을 수 있지만, 〈그림 1〉 지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도창현이라는 지명과 근처에 있던 대각교(大覺橋)라는 다리가 있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이는 당시 태인의 지형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다.[66] 이처럼 좋은 의미와 풍수 지형을 갖춘 태인의 땅이

64) 풍수는 동아시아의 전통을 바탕으로 우주적 흐름인 기(氣)의 개념을 받아들여 땅 속에도 기가 있다고 전제한다. 지리적 형상은 곧 그곳에 내재하는 기의 특성을 반영하고, 그 기의 특성이 인간에게 영향을 끼친다고 본다. 이러한 기에 입각해 환경을 변화시키고 조화시키는 것이 풍수의 목적이다. 최창조, 『좋은 땅이란 어디를 말함인가』, 52-53.

65) 국토지리정보원의 국토정보맵을 활용했으며 도창현과 대각교의 위치는 필자가 따로 표시한 것이다. http://map.ngii.go.kr/ms/map/NlipMap.do?tabGb=total (접속일: 2023년 6월 8일)

66) 『전경』에서는 "상제께서 태인 도창현에 있는 우물을 가리켜 "이것이 젖(乳) 샘이라"고 하시고 "도는 장차 금강산 일만이천 봉을 응기하여 일만이천의 도통군자로 창성하리라. 그러나 후천의 도통군자에는 여자가 많으리라" 하시고 "상유도창 중유태인 하유대각(上有道昌中有泰仁下有大覺)"이라고 말씀하셨도다"라는 구절로 나온다. 『전경』, 예시 45절. 또한 대순진리회에서는 지형 자체에 대한 해석과 함께 수도적인 의미에서 도통(道通)과 관련한 해석을 내놓기도 한다. 일례로, 도통의 경지가 상중하로 나뉘는데 높은 도통은 도를 많이 창성하게 한 사람이, 중간 도통은 크게 어진 사람이, 낮은 도통은 크게 깨달은

운회지지(運廻之地), 곧 운이 도는 땅이라고 밝힌 증산의 언술을 통해 정산은 태인이라는 장소의 의미를 확보하고 있다.

또한 정산은 증산이 숨기고 감추었다가 자신에게 점지해준 곳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67] 이는 증산과 자신을 잇는 종통을 강조하고 태인을 도장의 위치로 정한 결정을 정당화하는 언술이다. 이때 증산이 숨기고 감추었다가 자신에게 드러내 보인 곳은 '천장길방(天藏吉方)'이라는 표현으로도 불린다. 하늘이 감추어둔 길한 곳이라는 뜻의 천장길방은 정산이 증산과 자신의 관계를 강조하며 도장의 위치를 설정할 때 여러 차례 쓰인 용어다. 천장길방과 관련해서는 뒤에서 다시 자세히 다룰 것이다.[68]

증산의 언술 외에도 정산은 풍수에 따른 해석을 추가적으로 동원했다. 풍수에 따른 해석은 정산이 중심지의 물리적 지형에 특별한 의미를 더하기 위해 여러 차례 동원됐다. 특히 증산 또한 특정 장소에 대해 평가하고 그 의미를 해석할 때 풍수를 여러 차례 활용한 바 있다.[69] 태인 도장의 사례에서 정산은 군신봉조의 형상 이외에도 좌청룡 우백호와 주산과 안산으로 둘러싸인 풍수 지형이 가진 의미를 언급했다. "대지는 그 주위에 좌청룡(左靑龍)인 황금산(黃金山), 우백호(右白虎)인 성황산(城隍山), 주산인 항가산(恒伽山), 안산(案山)인 도이산(道伊山)이 그림처럼 배열"된다는 내용이 등장하는데,[70] 이는 사신사(四神砂)와 관련된 풍수를 의미한다. 풍수는 기(氣)가 바

사람이 받는다는 식의 해석이 있다. 류병무, 「대순문답: 상유도창 중유태인 하유대각」, 『대순회보』 190 (여주: 대순진리회 출판부, 2017). 박인규 또한 『전경』의 같은 구절을 인용하며 도통에 대한 비슷한 설명을 내놓았다. 박인규, 「일제강점기 증산계 종교운동 연구」, 64-65.

67) 『태극진경』, 3장 62절.

68) 천장길방은 증산이 천지공사를 통해 정해둔 '도수'에 따른 것이라는 점에서 크게 보면 도수를 바탕으로 하는 체계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69) 『증산천사공사기』, 74, 111(사명당). 증산 또한 풍수의 원리를 여러 차례 활용했다. 대표적으로 증산은 풍수에 따른 해석을 바탕으로 네 개의 명당, 즉 사명당(四明堂)을 제시했다.

70) 『태극진경』, 3장 62절.

람을 타면 흩어지고 물에 닿으면 머문다고 본다. 따라서 기를 포용할 수 있도록 바람을 잡아 모아서 가두는 장풍(藏風)의 방식이 필요한데, 대표적으로 사신사의 지형이 이러한 장풍을 실현한다. 기를 얻을 수 있다고 알려진 혈(穴)은 풍수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인데, 이때 혈의 전후좌우에 있는 산의 형세를 사(砂)라고 부른다. 전후좌우 네 곳의 사(砂)는 수호신으로서 동아시아의 신화적인 동물인 청룡(靑龍), 백호(白虎), 주작(朱雀), 현무(玄武)의 이름으로 불리고, 사신사로 둘러싸인 혈 앞의 평탄한 땅은 명당(明堂)으로 간주된다. 원칙적으로 명당에서 보았을 때 왼편은 청룡, 오른편은 백호, 앞쪽은 주작, 뒤쪽은 현무가 된다. 명당이 기대기 때문에 가장 중심이 되는 산은 현무인데 이 같은 이유로 주산(主山)이라고도 불리며, 앞쪽으로는 안산(案山) 또는 조산(朝山)이 있다.[71] 정산은 이러한 사신사에 관한 풍수를 활용해 도창현의 지형에 의미를 부여한다.

또한 구체적인 지형이나 지명에 의미를 부여하기도 했다. 대표적으로 치마바위가 태인 도장의 필수 조건으로 고려됐는데, 정산은 "그곳에 치마바위가 있어야 하느니라"라는 말을 하고 치마바위를 확인한 후에 토지를 매입했다고 알려진다.[72] 차선근은 병풍처럼 치마바위가 둘러진 지형이 풍수적으로 비옥함과 부를 이룰 수 있게 한다고 설명한다. 치마바위는 정산이 부산의 보수동에서 새로운 도장의 위치를 물색할 때에도 중요하게 고려했던 요소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 더해 차선근은 태인 도장이 항가산의 경사면에 위치하는데, 항가산이 가리키는 인도의 갠지스(Ganges)강은 생명력, 정화, 구원, 번영 등을 상징한다고 덧붙인다.[73]

---

71) 장풍법과 사신사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은 다음을 참고했다. 최창조, 『좋은 땅이란 어디를 말함인가』, 183-84, 216-17, 311-12.
72) 『태극진경』, 3장 59-60절.
73) Cha, "Is Sacred Site Discovered? Or Created?," 340.

하지만 이렇게 설정된 정산의 중심지는 10여 년이 흐른 뒤, 사회적인 요인으로 인해 더 이상 제자리를 지킬 수 없게 됐다. 본 연구에서 주목하는 '도수(度數)'를 바탕으로 한 정산의 중심지 이동 전략은 이러한 이동의 상황에서 특히 잘 드러난다. 도수는 증산과의 관계를 강조하며 중심지를 옮겼던 정산에게 핵심적인 것이었다. 무극도는 태인에서 10년 이상을 활동했으나 1936년 이후 일제에 의해 강제 해산됐다.[74] 이후 영대 등의 도장 건물들은 싼값에 경매로 넘어가거나 해체되었다. 무극도의 해산을 앞두고 정산은 다음과 같이 도수를 통해 상황을 설명했다. 여기서 말하는 '낙화도수'와 '잠룡도수'는 모두 후일을 기약하며 교인들에게 기다릴 것을 당부하기 위해 활용된 정산의 용어다.

> 모든 일에는 때가 있는 법이니라. (중략) 지금 이후의 시기는 낙화도수(落花度數)와 잠룡도수(潛龍度數)이니 꽃은 낙화요, 용은 잠룡(潛龍)이니라. 27년간 허공부, 허도수가 이 시기이므로 나는 다시 입산수도 할 것이니 그대들은 각자 집으로 돌아가 내가 다시 찾을 때를 기다리라.[75]

> 잠룡은 물용(勿用)이나 현룡(見龍)을 기(期)하고, 낙화는 비정(非情)이나 결실을 위함이니 결실 전에 요동하면 화가 있으리라. 1년이 될지, 3년이 될지, 10년이 될지라도 나와 도를 믿고 기다리되, 만약 나와

74) 대순진리회 내부에서는 무극도의 해산 시기를 1936년이 아니라 1941년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대순종교문화연구소, 「무극도 해산시기에 대한 고찰」, 『대순회보』 85 (여주: 대순진리회 출판부, 2008). 이에 대해 권동우는 1936년 정읍 본부가 해체된 후 표면적으로 교단이 완전히 해산된 것으로 보도되었지만 일부 지역의 교도들이 활동을 지속하고 있었을 수 있기 때문에 1941년 강화된 일제의 치안 유지법에 의해 완전히 해산되었다는 대순진리회의 주장도 가능성을 열어두고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말한다. 권동우, 「'유사종교해산령'의 실체에 관한 연구: '무극도'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학』 44(2021): 71-2.

75) 『태극진경』, 3장 114절.

도를 잊고 난법난도(亂法亂道)하거나 지동지서(之東之西)하면 만나지 못하리니 각골, 명심하라.[76]

'도수'는 본래 중국과 한국의 전통 문헌에서 제도, 규칙, 법도 혹은 천문(天文)과 천체(天體)의 운행(運行) 원리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박인규에 따르면, '도수'가 등장하는 가장 오랜 문헌은 『장자』로, 여기서는 '제도'라는 의미로 도수가 사용했다고 해석된다. 이외에도 『한비자』, 『상군서』를 비롯한 여러 문헌에서 도수는 규칙 또는 법도, 도리 등의 의미로 쓰였다.[77] 또한, 도수의 '도(度)'는 천체의 각도를 세는 단위로도 자주 쓰이면서 천체의 운행 원리와 관련된 수치를 의미했다.[78] 『고려사』, 『조선왕조실록』을 비롯한 한국의 문헌에서도 마찬가지로 도수는 우주가 운행하는 원리라는 의미로 여러 차례 사용된 바 있다.[79] 조선 후기에는 천문, 지리, 역법, 수리 등에 관한 실용적인 지식을 '명물도수(名物度數)'라는 표현으로 일컫기도 했다.[80] 이처럼 도수는 중국과 한국에서 오랫동안 천지만물(天地萬物)이 따르는 '세계의 운행 법칙'을 가리키는 용어로 사용되었다. 근대 한국에서 나타난 신종교들 또한 도수라는 용어를 세계가 운행하는 원리 혹은 법칙과 같은 의미로 활용하는 모습을 보였다. 일부(一夫) 김항(金恒)은 『정역(正

76) 『태극진경』, 3장 117절.
77) 박인규, 「대순사상의 도수론(度數論) 연구」, 217-18.
78) 박인규, 「대순사상의 도수론(度數論) 연구」, 219-20.
79) 박인규, 「대순사상의 도수론(度數論) 연구」, 220-22; 김탁, 「'증산과 정산의 도수(度數)사상」, 241.
80) 여기서 '명물(名物)'은 각종 사물의 명칭과 특징을 뜻한다. 각종 사물과 법칙을 뜻하는 '명물도수'는 천문, 수리 등의 지식을 의미했고, 이에 관한 학문이라는 뜻으로 '명물도수학'이라는 용어 또한 쓰였다. 실용적인 지식으로서 명물도수는 조선 후기 실학의 관점에서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되는 반면, 많은 유학자들에게는 부차적인 것으로 여겨졌다. 조현범, 「조선 후기 유학자들의 서학 인식: 종교/과학 구분론에 대한 재검토」, 『한국사상사학』 50(2015): 127-34. 노관범의 연구에 따르면, '명물도수'라는 용어는 조선 후기에 '이용후생(利用厚生)'과 유사한 맥락에서 쓰이기도 했다. 노관범, 「조선시대 '利用厚生'의 용법과 어휘 추세: 한국문집총간 정집을 중심으로」, 『한국실학연구』 40(2020): 599-608.

易)』에서, 선천 세계에서 후천 세계로 전환하는 개벽이 일어나는 것이 도수의 변화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81] 원불교에서도 "천지의 운행하는 도수"라는 표현이 활용되는 등 세계가 운행하는 법칙이라는 뜻으로 도수가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82]

증산은 '세계가 운행하는 법칙'이라는 뜻의 도수를 상제(上帝)인 자신이 세상을 다스리는 법칙이라는 의미로 재해석했다. 특히 증산은 상제로서 '하늘도 뜯어고치고 땅도 뜯어고쳐 선천(先天)과 후천(後天)의 도수를 조정하여 낡은 선천을 마감하고 후천선경이 돌아오게 했다'고 주장했는데, 이것이 바로 증산의 핵심 교리인 천지공사(天地公事)다. 정산은 이렇게 증산이 천지공사를 통해 새롭게 설정한 도수를 자신이 파악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도수를 파악하는 상황에서 '도수를 본다'고 표현했는데, 증산이 말한 도수가 확대되고 체계화되어 활용된 것은 도수를 볼 수 있는 정산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83] 증산이 직접 도수를 활용한 사례는 정산과 비교했을 때 그 수가 적은데, 이는 정산의 경우 거의 모든 종교적 행위 혹은 상황에 도수라는 이름을 붙였기 때문이다.[84] 앞서 말한 것처럼 '낙화도수'나 '잠룡도수'는 특정한 상황에 맞는 도수를 가리키기 위해 정산이 활용하는 여러 도수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정산은 어떤 사건들이 증산이 설계한 도수에 따라 발생한다고 설명함으로써 특정 사건을 정당화하는 데에 도수를 활용했다. 이렇게 도수가 활용되는

---

81) 노길명, 「개벽 사상의 전개와 성격」, 190-1; 송재국, 「정역의 개벽사상」, 『한국종교』 35(2012): 109-13.

82) "천지의 운행하는 도수"라는 표현은 2대 종법사였던 정산 송규 종사의 법어에 등장한다. 『정산종사법어』 「제5원리편」, 37장. 이외에도 소태산 박중빈 대종사의 언행을 담은 『대종경』과 3대 종법사였던 대산 김대거 종사의 법어에서도 '도수'의 용례를 확인할 수 있다. 『대종경』 「제2교의품」, 34장; 『대산종사법어』 「제14개벽편」, 7장.

83) 김탁, 「증산과 정산의 도수(度數)사상」, 263.

84) 김탁은 증산과 정산이 도수를 활용했던 언술의 예시들을 모아서 정리한 바 있다. 김탁, 「증산과 정산의 도수(度數)사상」을 참고하라.

방식을 보면, 미래에 있을 일을 증산이 앞서 예언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고, 그러한 증산으로부터 정산이 계시를 받은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 하지만 도수는 기본적으로 세계 자체를 설명하는 법칙으로 이해된다. 정산은 증산이 계획한 세계가 자신의 시기에 실현될 수 있도록 수행을 통해 도수를 파악했다. 특히 증산의 천지공사를 통해 계획된 후천 세계나 도수의 구체적인 내용이 대부분 알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정산은 특정 사건이 도수에 따른 것이라고 자체적으로 선언하는 방식으로 도수를 활용했다. 이렇게 도수를 활용하며 정산은 특정 사건들을 증산의 천지공사와 연관지으며 정당화할 수 있었다. 앞서 증산의 언행을 활용하는 등 증산과의 관계를 강조했던 맥락과 마찬가지로 도수 또한 증산과의 연결을 강조하는 수단이었다.

특히 도수는 중심지와 관련된 이러한 역사적 상황을 수용할 수 있는 해석을 제시했다. 무극도 태인 도장의 해산은 외부의 강제적인 폭력에 의해 중심지가 상실된 사건이라고 할 수 있지만, 정산의 도수에 따른 해석을 통해 이러한 역사적인 사건은 교인들에게 수용되었다. 당시 무극도의 교인들은 태인 도장의 해산이 일제에 의한 강제적인 것이었음을 인지한 것으로 보인다.[85] 하지만 정산의 잠룡도수에 따른 상황 해석으로 인해 많은 교인들은 이러한 도장의 상실을 받아들일 수 있었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무극도 해산 이후부터 태극도로 다시 교단 활동을 시작하기까지의 공백기 또한 도수를 통해 설명됐다. 무극도가 해산된 이후 정산은 잠시 전주에 머물다가 1939년 자신의 고향인 경남 함안군 칠서면 회문리의 회룡재(廻龍齋)로 이거하여 9년여의 시간을 보냈다.[86] 정산에 따르면, 이곳은 잠룡 도수 이후

85) 『태극진경』, 4장 3절. 몇몇 도인들은 정산의 잠룡과 무극도의 해산이 '왜정의 탄압' 때문이라고 여기고 정읍경찰서 습격을 모의하기도 했다고 알려진다.

86) 홍범초, 『범증산교사』, 368-371. 당시 이야기는 『태극진경』 4장 전반에 걸쳐 전개된다. 정산이 은거했던 시기에 주로 머물렀던 회문리의 회룡재 또한 중요한 장소로 볼 수 있다. 정산이 회룡재를 '회문도장'이라고 부르도록 하기도 했다. 『태극진경』, 4장 21

현룡(見龍) 도수가 오기 전까지 회룡(廻龍) 도수를 이루는 곳이었다. 처음에 많은 신도들이 찾아왔지만 정산은 이들에게 여러 차례 기다릴 것을 전하며 돌려보내고 자신은 수행을 하며 은거하였고, 해방에 가까워졌을 때에는 은밀히 교인들과 소통하며 교세를 늘려나갔다.[87] 은거한 지 10년째가 되던 해인 1945년 정산은 큰 고비를 넘겼으니 변화가 찾아올 것이라며 여러 활동을 재개했고, 그로부터 3년 뒤인 1948년에 태극도를 창립했다.

이러한 정산의 도수 활용은 교인들이 태인 도장에 대한 상실감에 머무르지 않고 미래에 대한 기대를 갖도록 했다. 달리 말하면, 정산의 도수로 인해 무극도의 해산이 전형적인 모습의 장기적인 디아스포라(diaspora)로 이어지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88] 디아스포라는 대개 종교인들이 제자리에서 벗어난 방향 상실에 따른 고통, 잃어버린 땅에 대한 애착에 관한 이야기로 이어진다.[89] 해산 초기에 어떤 사람들이 믿지 못하고 도장에 직접 찾아왔다는 등 교인들이 혼란에 빠졌다는 기록도 있지만,[90] 전체적인 흐름을 봤을 때 정산의 도수에 따른 해석은 새로운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교인들에게 제공했다. Ⅲ장에서 살펴보겠지만, 이는 정산의 도수 활용이 증산과 연결되는 경험을 제공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무극도의 교인들은 그들의 신앙

절. 하지만 회룡재는 태인이나 부산의 도장들처럼 여러 정당성을 확보하여 선택한 장소가 아니며 교인들의 집단 이주가 이뤄진 장소가 아니었다는 점에서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

87) 『태극진경』, 3장 114, 117절과 4장 11절, 28절 등에 보면, 정산이 교인들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기다릴 것을 말한다.

88) 하지만 장소 이동 혹은 이주를 경험한다는 점에서 디아스포라와 공유하고 있는 부분도 있다. 존 코리건은 '이주'를 공간에 대한 종교 연구의 주된 주제 중 하나로 짚고 있다. 또한 디아스포라가 계속되는 재조정과 긴장의 장소이자 분열과 통합 과정의 공간이라고 표현한다. John Corrigan, "Spaitlity and Religion," in *Spatial Turn*, ed. Warf and Arias, 163.

89) Thomas A. Tweed, *Our lady of the Exile: Diasporic Religion at a Cuban Catholic Shrine in Miami*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97), 95. 트위드는 미국 마이애미의 쿠바계 미국인들이 찾는 자선의 성모 성지(Our Lady of the Charity)에 관한 연구를 통해 디아스포라 상황 속 종교에 대해 다루었다.

90) 『태극진경』, 4장 1-5절.

대상인 증산이 천지공사라는 중요한 작업을 통해 앞서 설정해두었던 일이 자신들의 시점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여겼기 때문에 자신들에게 닥친 상황을 수용할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무극도는 역사 속에서 정치 권력에 의해 중심지를 잃게 되었지만 정산의 도수 활용을 통해 장소의 상실을 극복하고, 부산으로의 장소 이동 또한 가능했다고 볼 수 있다.

도수를 통해 사회적, 정치적 상황을 수용했다는 특징은 1936년경 일제에 의해 해산된 다른 교단의 사례와 비교했을 때 더욱 잘 드러난다. 또 다른 증산계 교단인 보천교 또한 무극도와 비슷한 시기에 일제에 의해 교단이 강제로 해산되고 교단의 중심지를 잃는 경험을 했다. 그러나 정산의 사례와 달리 해방 이후 보천교의 여러 교인들은 해산 이전과 같은 장소(전북 정읍시 입압면 대흥리)에서 교단을 재건하려고 시도했다.[91] 이들은 일제의 강제 해산으로 기존 장소를 상실한 이후에도 그 장소가 여전히 중요하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산은 도수를 통해 이러한 장소의 상실이라는 상황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극복하려고 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도수는 중심지 자체에 대한 설명과 더불어 도장의 이동과 관련된 전반적인 상황에 대한 정당성을 제공하는 중심지 이동 전략의 핵심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도수는 증산의 천지공사라는 사건과 관련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정산은 도수를 통해서 자신의 시점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증산과 적극적으로 연결할 수 있었다. 정산의 중심지 이동 전략이 주된 정당성을 증산과의 연관성에서 찾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도수는 더욱 중요하다. 이런 이유로 인해 정산은 태인 도장을 떠날 때뿐만 아니라 다른 도장을 새롭게 찾거나 떠날 때마다 도수를 일관적으로 활용했다.

---

91) 홍범초, 『범증산교사』, 144-47.

마지막으로 도수에 의한 해석은 태인 도장과 결별하는 역사적 상황을 설명하는 것뿐만 아니라 태인 도장을 폐기하는 전략까지 포함한다는 점을 짚고자 한다. 도수는 기존의 중심지가 계속해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여기지 않고, 특정 시점 이후에는 원래 갖고 있던 특별함을 잃어버린다고 생각하게 하는 근거가 됐다. 이와 관련해서는 정산의 종통을 물려받았음을 주장하며 대순진리회를 세운 우당 박한경의 설명을 참고할 만하다.

> 도주님 재세 시 을축년(1925년)에 태인에 도장을 건립하셨다가 일제에 의해 해산되고, 광복을 맞이하여 종교 자유가 시행되었지만 다시 태인으로 가지 않으셨다. 다른 종교 같으면 원래 그 자리인 태인에 다시 도장을 세우려고 했을 것이다. 그러나 도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다. 그곳은 끝난 것이다. 도수다.[92]

태인 도장이 폐기되는 것은 도수가 태인 도장이라는 장소에 부여된 시간과 관련되기 때문이다. 이처럼 도수는 특정 사건이나 사물, 장소 등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시간을 설정한다. 특히 이때 부여되는 시간은 유한할 수 있다. 이러한 도수의 특징은 이어지는 Ⅲ장에서 자세히 다룰 것이다.

지금까지 1절에서 정산이 교단 활동을 시작하며 전북 태인에 첫 도장을 세우고 일제에 의해 강제로 떠나는 과정에서 도수가 중심지 이동 전략의 핵심으로 동원되었음을 보였다. 정산의 중심지 이동 전략은 증산과의 관계를 강조하면서 여러 이데올로기적 요소들을 동원했으며 도수는 증산의 천지공사와 연관된다는 점에서 특히 중요하게 사용되었다. 다음 2절에서는 태인 도장 해산 이후 부산으로 이동하는 상황에서 정산이 중심지를 정당화하기

92) 「우당 박한경 훈시」 1989년 6월 25일.

위해 활용했던 이데올로기적 요소들에 관해 설명하고자 한다. 특히 정산이 부산으로 이동할 때에도 도수를 일관적으로 적용했음을 확인할 것이다.

2. 중심지의 이동: 태극도의 보수 도장과 감천 도장

태인 도장의 해산 이후 함안 회문리에서 은거했던 정산은 1948년 태극도(太極圖)라는 교단의 새로운 이름을 공표하고, 부산의 보수동(寶水洞)에 새로운 도장을 건설했다. 1936년에는 일제의 탄압으로 교단이 해산했다면, 1950년에는 전쟁이 일어나면서 도장이 위치한 공간은 또 다시 변화를 맞이했다. 6.25 전쟁이 발발한 이후 많은 사람들이 부산 등 남쪽 지역으로 피난하게 됐고, 태극도의 교인들 또한 남하하여 보수동 근처로 모여 들었다. 이들은 판옥, 토옥 등 가건물을 짓고 피난 생활을 하였고 보수동 일대는 교인들의 집단지처럼 조성되었다.[93] 전쟁 이후에도 교인들은 주거 공동체를 형성하였고, 다수가 귀향하지 않고 그대로 정착했다고 알려져 있다.[94] 또한 포교가 활발히 진행되며 부산 이외의 지방에서도 교인들이 늘어났고, 부산의 도장을 왕래하는 지방의 교인들도 많아졌다.[95]

부산이라는 새로운 장소로 옮겨갈 때에도 기본적으로 정산은 도수를 활용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먼저 정산은 무극도 태인 도장의 해산 이후 교단 활동을 잠정 중단했다가 수년 만에 재개하는 상황을 '현룡도수(見龍度數)'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도수로 설명한 바 있다.[96] 여기에 더해서 정산은

93) 홍범초, 『범증산교사』, 377.
94) 『태극진경』, 5장 38절.
95) 홍범초, 『범증산교사』, 375.
96) 『태극진경』, 5장 3절.

부산에서 새로운 도장의 위치를 찾을 때에도, 그 땅이 '도수'에 맞아야 한다는 점을 언급했다.[97] 태인 도장과 관련한 상황에 이어서 부산의 도장을 세우는 상황에서도 마찬가지로 정산은 도수를 일관적으로 활용한 것이다.

부산으로 옮기는 상황을 설명할 때 정산은 도수와 함께 기존의 성스러운 장소를 상징적으로 복제하는 전략을 활용하기도 했다. 이는 '釜山(부산)'의 파자(破字) 해석과 치마바위의 풍수 해석을 활용하는 모습에서 나타난다. 부산으로 장소를 옮길 때 정산은 증산이 말했던 금산(金山)의 의미를 복제하고자 했다. 금산은 전라북도 김제시와 완주군에 걸쳐 있는 모악산의 별칭이다. 증산은 다음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자신이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왔던 장소이자 특별한 의미를 가진 장소로 금산을 가리켰다. 달리 말하면, 정산에게 종통을 물려주는 교조이자 교단의 신앙 대상인 상제가 설정했던 의미를 갖는 성스러운 장소가 금산인 것이다.

> 내가 서천서역대법국 천계탑(天階塔)에 내려와서 삼계를 둘러보고 천하를 대순(大巡)하다가 이 동토에 그쳐 모악산 금산사 미륵금상에 임(臨)하여 30년을 지내면서 최수운(崔水雲)에게 천명과 신교를 내려 대도를 세우게 하였더니 수운이……대도의 참빛을 열지 못하므로 갑자년에 천명과 신교를 거두고 신미년에 세상에 내려왔노라.[98]

> 내가 금산사로 들어가리니 나를 보고 싶거든 금산사로 오너라.[99]

> 세계의 젖줄은 남조선이며 세계의 명당자리는 금산사, 문명개화의 국가가 삼천나라나 되고 도술문명이 세계를 뒤덮는다.[100]

---

97) 『태극진경』, 5장 4절.
98) 『대순전경』, 9장 11절.
99) 『대순전경』, 12장 11절.

정산은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釜山(부산)'을 파자(破字)하여 "부산의 글자 형상이 팔금산(八金山) 또는 입금산(入金山)이라, 증산상제님께서 '내가 장차 금산사(金山寺)로 들어가리라' 하신 곳이 바로 이곳"[101]이라고 하였다. 이는 증산과의 연관성을 강조하면서도 금산이라는 기존의 의미 있는 장소를 상징적으로 복제하려는 시도라고 볼 수 있다. 종교의 특정 장소를 상징적으로 복제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나단 스미스(Jonathan Z. Smith)의 설명을 참고할 수 있다.

스미스는 기존의 장소를 새로운 위치에 복제하는 전략들을 제시한 바 있다.[102] 크게 환유의 방법과 전유의 방법으로 나뉘는데, 환유의 방법은 부분을 전체로 바꾸는 전략이고 전유의 방법은 동일성(identity)의 논리를 등가성(equivalence)의 논리로 바꾸는 전략이다.[103] 정산의 사례는 전유의 방법을 통해 상징적인 복제를 시도하는 방식으로 설명될 수 있다. 전유의 방법을 통한 상징적 복제의 다른 예로는 예루살렘의 성묘를 모델로 삼고 모방하여 교회를 짓는 사례가 있다. 스미스는 교회의 제단을 성묘라고 부르거나 성묘라는 이름이 붙은 용기에 성체를 보관하는 사례 등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러한 방식의 상징적 복제는 완전히 동일하지 않지만 상징적으로 유사한 것으로 기존 장소의 특징을 모방하려는 시도이다. 마찬가지로 정산이 '釜山(부산)'을 파자하며 내놓은 해석은 교조이자 상제인 증산에 의해 설정된 장소인 금산을 상징적으로 복제하려는 시도라고 볼 수 있다.

부산이라는 지명의 파자 해석을 통해 증산이 말했던 의미의 금산을 상징

100) 『전경』, 예시 14절.
101) 『태극진경』, 5장 6절.
102) Smith, *To Take Place*, 86-7.
103) Smith, "Constructing a Small Place," 20-24. 이 글에서 스미스는 *To Take Place*의 내용에 대해 보충 설명을 하고 있다.

적으로 복제하는 전략이 있었다면, 이전의 중심지였던 무극도의 태인 도장을 복제하려는 시도 또한 동반됐다. 태인 도장과의 연관성을 만드는 전략은 풍수적 의미의 복제를 통해서 이뤄졌다. 앞서 언급했듯 정산은 태인 도장을 위한 부지를 찾을 때 치마바위의 존재 여부를 확인한 뒤 도장 설립을 확정했다.[104] 이러한 치마바위의 존재는 다음과 같이 부산에서 새로운 도장의 입지를 고를 때에도 등장한다.

> 그러면 네가 가서 내가 공부하기에 적합한 집을 선택하라. 그 곳은 부산의 산맥이 끝나는 곳으로 하되 용은 물이 있어야 하니 바다가 보여야 하며, 수(水)자가 든 땅으로서 태인 도장처럼 치마바위가 있어야 도수에 맞되[105]

> 상제님의 명령을 전하고 함께 며칠 간 여러 곳을 수소문한 끝에 하명과 부합되는 집을 찾으니라. 우선 그 지형, 지세가 낙동정맥의 남단인 엄광산(嚴光山)이 구봉산(龜峯山)으로 이어진 산맥의 끝을 이루는 치마바위가 있어 길이는 태인 도장에 비하여 반쯤 되나, 높이는 배가 넘으니라.[106]

이처럼 정읍 태인 도장과 마찬가지로 부산의 보수 도장은[107] 치맛자락이 펼쳐진 것과 같은 바위 절벽 아래에 자리잡았다. 이는 치마바위라는 지형적 특성을 통해 풍수적 의미를 상징적으로 복제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을 것이

104) 『태극진경』, 3장 59-60절.
105) 『태극진경』, 5장 4절.
106) 『태극진경』, 5장 7절.
107) 정산은 감천동으로 이동한 이후 감천 도장을 '부산 도장'이라고 명명하면서 기존 '보수 도장'의 명칭을 '보수 도정(道庭)'으로 바꾸었다. 『태극진경』, 7장 87절. 본 연구에서는 편의상 '보수 도장'이라는 명칭만을 사용한다.

다. 차선근 또한 부산 보수동에서의 풍수적 의미는 태인 도장의 풍수와 같은 종류의 것이었다고 설명한 바 있다.[108]

파자 해석이나 풍수에 따른 해석의 의미를 복제하는 것은 그러한 지형 해석이 하나의 의미 체계를 구성한다는 점을 전제로 한다고 볼 수 있다. 파자 해석이나 풍수에 따른 해석이 물리적 지형에 특정 의미 체계를 만들면 그 의미 체계가 원래의 물리적 지형과 다른 물리적 지형으로 옮겨간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109] 앞에서 언급했던 '상유대창 하유대각'이나 형국론에 따른 해석 등은 풍수를 바탕으로 지도 상의 여러 의미 체계를 공간적으로 배치한다. 이러한 배치는 지리적인 현상들 간의 관계와 관련되는 것뿐만 아니라 그러한 현상과 관련되는 인간적인 요소 같은 사회적 관계와도 관련된다. 정산의 사례에서는 부산의 물리적 지형과 더불어 정산이라는 인물의 종통에서 나오는 권위와 도수의 시간 등이 장소의 의미 체계에 포함된다. 이렇게 물리적 지형에 의미 체계가 부여되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의 의례가 장소 이동을 위해 복제되는 체계로 기능했듯이 풍수 또한 물리적 위치와 분리될 수 있는 의미 체계를 제공하는 것을 설명할 수 있다.[110]

정산이 이끄는 교단이 부산으로 옮기게 된 데에는 '釜山(부산)'의 파자 해석과 도수(度數)에 의한 설명이 주요하지만 증산이 부산을 방문했다는 점

108) Cha, "Is Sacred Site Discovered? Or Created?," 341.

109) 이러한 설명은 지리학계의 신문화지리학파가 내놓은 경관텍스트(landscape text)와 관련된 논의로 설명할 수도 있다. 경관텍스트는 경관이라는 것이 물리적 지형이지만 사회적으로 경험되고 재생산되는 의미체계이기도 하다는 의미에서 쓰이는 용어다. Trevor J. Barnes and James S. Duncan, "Introduction: Writing worlds," in *Writing Worlds: Discourse, text and metaphor in the representation of landscape*, ed. Trevor J. Barnes and James S. Duncan (London: Routledge, 1992) 1-17. 권선정은 풍수를 통해 생산되고 소비되는 풍수 경관이나 장소가 경관텍스트로 해석될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권선정, 「텍스트로서의 풍수 경관」, 『문화역사지리』 21(2009): 117-34.

110) 스미스는 예루살렘 성전의 의례가 끝없이 복제될 수 있는 체계(system)로 발전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이러한 체계가 물리적인 위치와 분리될 수 있기 때문에 체계를 복제하며 장소를 옮길 수 있다고 주장했다. Smith, *To Take Place*, 83-86, 109.

과 부산의 풍수 지형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이 정산이 언급한 바 있다. 당시 성장하는 도시로서 부산의 입지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 부산은 이 강산의 동남단에 위치한 도시로서 그 지세는 국토의 신산(神山) 백두에서 비롯한 산세가 그 척추격인 백두대간의 금강산과 태백산으로 이어져서 다시 일월산, 주왕산, 보현산, 금정산으로 이어진 낙동정맥이 남으로 뻗어 내린 정기가 응결되고 영남지방 전체의 하천이 모여 흐르는 낙동강과 동해가 굽이치는 산진수회처(山盡水廻處)의 영국(靈局)이니라. (중략) 부산은 이 나라 제일의 국제항으로서 관문일 뿐더러, 장차 만방의 사람과 물화가 이곳을 통하는 군창지(群倉地), 생문방(生門方)이며 새서울이니 대해(大海)라야 대어(大魚)가 살고, 대지라야 대신명이 임함이니라. 증산상제님께서도 병오(丙午)년 가을에 이곳에 임어(臨御)하셔서 소 백두(百頭)를 대신한 백우(白牛)를 잡아 공사(公事)를 보셨으며[111]
>
> 오른쪽으로는 구덕산(九德山), 천마산(天馬山)으로 연맥된 백호와, 왼쪽으로는 복병산(伏兵山), 용두산(龍頭山)으로 연맥된 청룡이 뚜렷하고 절영도(絶影島)와 남해가 바라보이며 지명도 수(水)자가 든 보수동(寶水洞)의 21번지니라. (중략) 3월 15일에 상제님께서 임원들을 거느리시고 보수동 주택으로 이어하셔서 "집은 비록 협소하나 땅이 도수에 맞는 적지로다. 태극의 대운이 이에서 비롯되리니 이만하면 도장으로 좋이 쓰리라." 하시고[112]

111) 『태극진경』, 5장 5-6절. 증산이 부산에서 행했다는 공사는 다음의 『무극진경』 구절에 먼저 등장한다. 경상도 부산(釜山)에 행행하셔서 "이곳이 바로 산진수회처(山盡水廻處)며 세계의 관문이고 후천선경의 기지가 될 곳이므로 소 백두(百頭)를 잡아 공사를 보아야 하리로되, 음동(音同)을 취하여 백우(白牛)로써 대신하리라. "하시며 흰 소 한 마리로써 치성을 올리게 하시고 공사를 행하시니라. 『무극진경』, 6장 26절.

위에서 말하는 '산진수회처(山盡水廻處)'는 산과 물이 만나 물이 땅을 감싸고 도는 지형을 가리키는 말로, 풍수에 따른 명당의 대표적인 유형 중 하나다. 풍수는 땅의 기(氣)가 흐르는 통로를 산으로 보는데 산이 물을 만나면 그곳에서 기운이 멈추고 모여서 혈(穴)이 있다고 본다.[113] 풍수의 물을 대하는 방법론인 득수법(得水法)에 따르면, 산의 모양과 물 흐름의 방향과 방위 등에 따른 지형의 해석은 다양하지만 기본적으로 산과 물이 만나는 지형은 음양(陰陽)의 조화라는 관점에서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다.[114] 그리고 태인 도창현에 관한 설명에도 언급됐던 사신사(四神沙)를 바탕으로 한 또 다른 지형의 해석이 언급돼 있다. 이에 더해 증산이 공사, 즉 천지공사를 행했던 여러 곳 중 하나라는 점 또한 부산이라는 장소에 의미를 부여한다

정산의 태극도는 부산의 보수동에 자리잡은 이후에 감천동(甘川洞) 일대로 한 차례 더 도장을 옮긴다. 1955년 7월부터 보수동에서 철거를 시작하고 감천동에서는 택지를 조성하고 건축을 했으며 10월 중순경 800여 호의 1차 이주를 마쳤다.[115] 1956년 1월에는 태극도 본부가 감천동으로 옮겨오면서 2차 이주가 실시되었다.[116] 이러한 장소 이동의 외부적 요인으로는 행정 당국의 방침이 있었다. 당시 부산시는 도시미관과 화재의 위험성, 도시의 정비 등을 이유로 보수동의 태극도 교인들을 이주시키고자 하였고 이주와 관련해서는 태극도와 여러 차례 협의했다.[117] 구체적으로 1955년 7월

112) 『태극진경』, 5장 7-8절.
113) 최창조, 『좋은 땅이란 어디를 말함인가』, 184.
114) 최창조, 『좋은 땅이란 어디를 말함인가』, 276-77. 산은 움직임이 없어 음에 속하고, 물은 변화를 하기 때문에 양에 속한다고 보는 것이다. 이는 산과 물의 만남에서의 상대적인 구분에 의한 것으로, 산과 물 모두 각각에는 음양이 있다.
115) 하남구, 「부산시 감천2동 태극도마을의 특성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2012), 54.
116) 하남구, 「부산시 감천2동 태극도마을의 특성에 관한 연구」, 64.
117) 홍범초, 『범증산교사』, 383.

국회부의장 조경규가 태극도의 정산을 찾아 판옥철거문제를 협의했다는 내용과 감천으로 새로운 도장의 위치를 정하고 정산이 직접 이주 업무를 위한 대책위원회를 꾸리고 업무 지시를 내리는 과정들이 『태극진경』에 그려진다.[118]

보수동에서 감천동으로 중심지를 옮기는 데에도 마찬가지로 정산은 도수를 근거로 삼아 전반적인 상황을 설명했다. 부산시의 행정적인 조치로 인해 보수동에서 감천동으로 떠나야 했지만, 태극도 내부에서는 행정 당국과 협의하기 이전에 이미 정산이 '대이동도수'가 돌아오는 것을 걱정했던 것으로 이해한다.[119]

> 내가 도인들의 대이동도수를 몇 달 전에 마음에 정하였으나 너희들의 난감한 형편과 실정을 염려하여 아직 명령을 내리지 못하였더니 오늘 조 부의장과 협의한 결과 도인들의 판잣집을 철거, 이주하기로 하였느니라. 이를 좋게 받아들여 시행하는 것이 옳으니

정산은 행정 당국의 조치보다 시기적으로 앞선 때에 도수를 통해 감천동으로의 이동을 예상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앞서 태인 도장으로 이동하고 떠날 때와 마찬가지로 보수동을 떠나 감천동으로 이동하는 사건 또한 도수에 의해 예정된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도수에 따른 해석뿐만 아니라 정산은 감천동의 지형에 관해서도 풍수에 따른 해석들을 내놓았다.

---

118) 『태극진경』, 6장 36-45절.

119) 『태극진경』, 6장 34절, 38절. 국회부의장 조경규 무리가 방문하기 이전에 이미 정산은 감천의 토지시세를 알아오라고 말하기도 했다. 『태극진경』, 6장 35절. 이는 감천으로의 이동이 외부적 요인과 별개로 도수에 의해 예정되어 있었다고 여긴다는 것을 보여주는 부분이다.

감천에서도 해변이 아닌 도장 산소를 모신 반월령(半月嶺)으로부터 천마산(天馬山)과 옥녀봉(玉女峯)의 두 산록이 서로 맞닿은 동구까지의 천마 옥녀(天馬玉女) 음양합덕지궁(陰陽合德之宮)이라야 도수의 땅이 되느니라.[120]

이주지로 결정된 감천동은 본래 구덕산(九德山) 연맥이 그 최남단을 이루는 천마산으로 내닫다가 대치(大峙)를 지나면서 아미산(峨嵋山)이 융기하여 서남방의 옥녀봉에 이르는 몇 개의 산봉우리가 괴정동(槐亭洞)과의 경계를 이루고, 다시 아미산이 아미동(峨嵋洞)과의 경계를 이루는 반월령을 지나 동남방의 천마산까지 이어지면서 아미, 천마, 옥녀의 3봉 사이에 깊고 큰 동학(洞壑)을 이룬 곳이니라. 남으로는 감천만(甘川灣)의 용담(龍潭)에 임하고, 서는 옥녀봉, 동은 천마산, 북은 반월령이 병풍처럼 둘렀으며 동학 중간에는 감천수(甘川水)가 용담으로 흐르고 그 좌우가 완만한 경사지이며 그 경사가 낮은 지대 부근에 30여호의 원주민촌과 그들의 전답이 있고, 그밖에는 거의 황무지와 수풀이니라.[121]

옥녀(玉女)와 천마(天馬)라는 지명은 지형을 특정한 형상에 빗대어 보는 풍수의 형국론(形局論)과 관련 있다.[122] 옥녀는 본래 도교 신앙에 등장하는 여성으로,[123] 풍수에서는 대개 풍요와 다산을 상징한다. 양에 해당하는 천마와 음에 해당하는 옥녀가 만나 음양의 조화가 이뤄진다는 해석이나 산과 물이 만난다는 해석 등은 감천의 지형 풍수의 관점에서 좋은 입지라는 점을

120) 『태극진경』, 6장 40절.
121) 『태극진경』, 6장 43절.
122) 천마와 옥녀에 관한 구체적인 형국의 사례는 다음에서 찾아볼 수 있다. 최창조, 『좋은 땅이란 어디를 말함인가』, 327.
123) 상기숙, 「중국 도교여선의 제 양상 소고」, 『동방학』 14(2008): 399-401.

도수에 따른 해석과 함께 뒷받침한다.

감천 도장은 정산이 생전에 마지막으로 이동했던 도장으로서 주목할 만한 추가적인 특징들이 있다. 그 중 하나는 정산이 감천동 전역을 9개의 지역으로 구획하고, 이를 각각 '감(甘)'이라고 불렀다는 것이다. 각 감은 지방별 교인 공동체를 뜻하는 '방면(方面)'이 하나씩 배정되었는데, 1감은 충주 방면, 2감은 김천, 3감은 청안, 4감은 괴산, 5감은 중산과 영주, 6감은 괴산, 7감은 청주, 8감은 충주, 9감은 연풍이 배정되었다.[124] 이러한 구획의 체계화로 인해 집단 이주한 교인들은 출신 지역별로 나뉘어 거주했다. 또한 정산은 각 방면별로 호수(戶數)에 맞춰 회의실을 짓도록 했는데, 교인들은 출신 지역별로 모여 회의, 기도, 수련 등의 활동을 했다.[125] 이처럼 주거 구역을 나눠 출신 지역별로 함께 살아가도록 하고 그 안에서도 공동의 활동 건물을 마련해 종교 활동을 함께 하도록 한 조치들은 집단 이주한 교인들이 새로운 곳에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왔다. 이는 성스러운 중심지를 찾아 이주한 집단의 주거를 위해 적합한 장소로 만드는 전략이었다고 할 수 있다.

감천 도장의 주요한 요소로 대강전(大降殿)과 정산의 무덤인 능소(陵所)까지 언급할 필요가 있다. 먼저 대강전은 1957년 정산의 지시로 만들어진 감천 도장의 건물로,[126] 증산과 정산의 진영(眞影)을 보관하고 있으며 태극도의 핵심 의례라고 할 수 있는 시학(侍學) 및 시법(侍法) 공부가 이뤄지는

---

124) 『태극진경』, 6장 44절.

125) 『태극진경』, 6장 55-56절. 감천으로 집단 이주하는 시기에 정산은 각 방면마다 호수(戶數)에 맞춰 24개의 회의실을 짓도록 했다.

126) 대강(大降)은 태극도의 주문인 기도주(祈禱呪)인 '시천주(侍天主) 조화정(造化定) 영세불망(永世不忘) 만사지(萬事知) 지기금지(至氣今至) 원위대강(願爲大降)'에서 따온 것이다. 『태극진경』, 8장 36절. 본 주문('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 만사지') 앞에 강령주문('지기금지 원위대강')을 두는 동학의 주문과 순서가 다르다. 태극도를 비롯한 몇몇 증산계 교단은 대강(大降)을 상제가 내려오는 것과 연관지어 해석하기도 한다.

곳이다. 정산은 죽음을 앞둔 1958년 초 자신의 종교 활동이 끝났음을 선언하고, 자신이 교인들에게 가르친 수도 방법을 이어갈 것을 지시한다.[127] 특히 태극도의 『태극진경』에 따르면, 정산은 자신이 50년간 도수를 보기 위해 행했던 공부를 마치는 곳이 대강전이며 50년 공부를 통해 교인들에게 제시한 수도 방법이자 의례인 시학 및 시법 공부가 대강전에서만 이뤄져야 한다고 다음과 같이 말한다.

> 이 전각은 내가 장차 50년 공부를 종필(終畢)할 곳이며, 그대들이 심령심대를 봉안하고 진법을 봉행하여 대강(大降)을 봉대(奉戴)할 오도유일(吾道唯一)의 지중한 성전(聖殿)이니[128]

> 대강과 도통의 전제가 되는 진법(眞法) 공부 한 가지뿐이니라.[129]

여기서 말하는 공부인 시학 공부와 시법 공부는 각각 1957년과 1958년에 시작됐다. 시학 공부와 시법 공부 각각 36명이 대강전에서 주문(呪文)을 외는 의례로, 앞 사람이 주문 외는 것을 끝냄과 동시에 뒷사람이 이어서 주문을 외워 하루 종일 송주(誦呪)가 끊이지 않게 해야 하는 것이 특징이다. 정산은 시학 공부와 시법 공부의 절차와 유의 사항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했다.[130] 시학 공부에서는 임원 12명(시학원 1명, 정급 2명, 진급 3명, 회원 6

127) 『태극진경』, 9장 57절.
128) 『태극진경』, 8장 35절. 대강전을 유일한 수도 장소로 강조하는 것은 『태극진경』에 여러 차례 등장하지만, 마찬가지로 정산을 계승하는 대순진리회의 경전인 『전경』에는 이러한 표현이 등장하지 않는다. 이와 관련해서는 Ⅳ장에서 자세히 다룰 것이다.
129) 『태극진경』, 8장 83절.
130) 당일 공부에 참석하는 사람들은 모두 오후 9시 30분에 점호의례에 참석해야 하고, 10시 30분에는 봉심의례(奉審儀禮)에 참석해야 한다. 11시 30분에 교대하여 지정된 주문을 1시간 동안 외워야 한다. 정산은 시간을 엄수해야 함은 물론이고 주문을 끊이지 않고 정확히 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부에 참석하기 전 부정을 피하기 위해 지켜야 할 사항들 또한 언급된다. 공부의 절차에 관한 구체적인 방식들 중 몇몇은 도중에 수정됐으나

명)과 남성 교인(내수 도인) 12명, 여성 교인(외수 도인) 12명이 1개 반을 이뤄 4개의 공부실에 들어가 각자가 담당한 시간에 정해진 주문을 외워야 한다. 시학 공부는 공부의 기초 단계로서 시학에 일정 기간 참여한 후 초강식, 합강식, 봉강식라고 불리는 세 단계의 강식(降式)을 거치면서 시학 공부를 마치게 된다.[131] 시법 공부의 경우에는 시학 공부를 거친 임원(시학원, 정급, 진급, 회원) 1명과 남성 및 여성 교인 각각 1명으로 이뤄진 조를 12개 편성해 각 조가 한 시간씩 공부실에서 정해진 주문을 외운다. 이처럼 시법 및 시학 공부는 시간을 엄수하는 것과 더불어 정확한 장소에 위치하는 것이 중요한 의례라고 할 수 있다. 대강전에서만 공부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은 대강전이라는 장소가 공부라는 의례를 성스럽게 만드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132] 태극도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대강전에서의 공부를 6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이어오고 있다. 참고로 시법 및 시학 공부는 정산을 계승하며 태극도에서 갈라져 나온 대순진리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어오고 있다. 다만 대순진리회는 부산 감천 도장의 대강전이 아닌 경기도 여주에 위치한 자신들의 '본부도장'에서 장소만 바꾼 채 시법 및 시학 공부를 시행하고 있다. 정산을 계승하는 두 교단이 서로 다른 위치에서 시법 및 시학 공부를 이어오고 있는 현상에 대해서는 Ⅳ장에서 다시 다룰 것이다.

정산이 죽기 전에 완성된다. 『태극진경』의 8장 85-95절, 9장 5-42절을 참고하라.

131) 기본적으로 강식은 시학 공부에 일정 기간 참여한 교인들이 대강전에 모여 증산과 정산의 진영 앞에서 대강을 기원하며 정해진 주문을 외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초강식은 5일간 시학 공부를 마친 5개 반(180명)이 모여 진행되고, 합강식은 초강식과 15일간 시학 공부를 마친 15개 반(540명), 봉강식은 초·합강식과 45일간의 시학 공부를 마친 45개 반(1,620명)이 모여 진행될 수 있다. 이러한 단계별 강식은 최종적으로는 대강식으로 이어지는데 정산은 대강식이 후일에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또한 태극도에서는 합강식까지 치른 교인을 시법 공부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각 강식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에 대해서는 『태극진경』의 8장 98-105절, 9장 20-25절을 참고하라.

132) 조나단 스미스는 의례가 주의(attention)를 기울이는 양식이라면 장소는 그러한 주의의 방향을 정해준다고 설명한다. 그러면서 성스러움이 본질적인 것이 아니라 상황적인 것이며 특히 장소 설정(emplacement)의 범주라고 말한다. Smith, *To Take Place*, 103-4.

마지막으로 정산의 능소, 즉 무덤 또한 감천동에 위치하는데 대강전과 마찬가지로 5감에 해당하는 지역에 있다. 1958년 3월 사망한 이후 정산의 능소는 태극도에 의해 줄곧 보호되었고, 2011년 9월부터 외부에 개방됐다. 증산으로부터 종통을 이어받아 교단을 세운 정산의 무덤이 위치한다는 점은 감천동을 태극도의 성스러운 중심지로 만드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

지금까지 태인 도장에서부터 시작해 부산의 보수동을 거쳐 감천동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에서 정산의 중심지 이동 전략이 동원하는 여러 요소들을 살폈다. 정산의 전략이 증산의 언술, 풍수적 해석, 지명의 파자 해석을 중요한 요소로 동반하되, 무엇보다 도수를 중심지 이동의 핵심 전략으로 삼는다는 점을 드러냈다. 특히 도수가 전반적인 상황에 대한 포괄적인 설명을 제시하면서도 각 중심지로 이동하는 때마다 활용되며 일관적인 체계를 갖췄다는 점을 설명했다. 다음 Ⅲ장에서는 도수가 중심지를 정당화하는 방식과 그 근거에 대해 구체적으로 분석할 것이다.

Ⅲ. 도수(度數)를 통한 중심지 정당화

증산을 교조로 하는 교단 중에서도 무극도 및 태극도의 정산은 증산의 종통을 이어받은 종교 지도자로서 증산만큼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 태극도는 신앙의 대상을 양위상제(兩位上帝), 즉 두 상제로 규정하는데 이는 곧 '구천(九天) 상제'인 증산과 '옥황(玉皇) 상제'인 정산을 가리킨다. 감천 도장의 대강전에도 태극도는 증산과 정산의 진영을 함께 보관하고 있다. 따라서 이렇게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정산이 내놓는 종교적 언술들은 앞서 살펴본 증산의 언술과 마찬가지로 교인들이 세계를 해석하는 이데올로기가 되었다. 또한 정산은 자신의 종교 활동에서 증산으로부터 잇는 종통을 강조했다. 정산의 중심지 이동 전략에서도 정산 자신이 증산의 카리스마를 계승하는 것은 핵심적인 근거로 활용됐다. 특히 Ⅱ장에서 다루었듯이 증산의 카리스마를 계승하는 과정에서 정산이 가장 핵심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도수'였다. 도수는 종교적 행위의 시간과 장소를 설정하고, 증산의 천지공사와 정산을 연결해준다는 점에서 중요하다.[133] 따라서 정산의 중심지 이동 전략에서 도수에 관해 더 자세한 논의를 전개할 필요가 있다.

Ⅲ장에서는 두 차례 도장을 옮기는 상황에 대해 설명을 제시하는 정산의 도수(度數) 해석을 분석한다. 정산의 중심지 이동에서 풍수나 지명의 파자 해석 등 기존 장소를 복제하는 전략 또한 동원되지만 필수불가결한 핵심 전략은 도수 해석이다. 증산이 천지공사를 통해 세계의 운행 법칙과도 같은 도수를 새롭게 설정했다면, 정산은 그러한 도수를 읽어내고 해석한 유일한

133) 박인규는 증산의 천지공사를 통해 정해진 도수를 정산이 정확한 '시간과 장소'에 따라 시행했다는 점과 정산이 무극도를 세우는 등 여러 종교 행위를 한 것이 증산이 행한 천지공사의 연장선에 있다는 점을 짚은 바 있다. 박인규, 「대순사상의 도수론(度數論) 연구」, 207-241. 231-32.

인물로 여겨진다. 도수를 활용함으로써 정산은 증산이 계획한 세계가 자신의 시점에서 실현된다는 것을 주장할 수 있었다. 정산의 도수 해석은 증산의 핵심적인 교리인 천지공사에 참여하는 행위이자 증산과 연결되는 근거가 되는데 이는 중심지 이동의 정당성을 제공했다.

첫 번째 절에서는 도수가 중심지를 정당화하는 방식에 대해 설명한다. 여기서 강조되는 것은 특정 중심지가 정당성을 유지하는 시간을 설정하는 방식으로 도수가 중심지를 정당화한다는 특징이다. 도수는 장소에 유한한 시간을 부여하기 때문에 새로운 장소의 정당화와 기존 장소의 폐기를 모두 가능하게 한다. 이는 장소 설정에 시간의 측면이 결합되어 중심지가 시간에 따라 정당성을 얻거나 잃는다는 설명을 제공한다.

두 번째 절에서는 도수에 따른 중심지의 때와 장소가 정당성을 갖는 근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논의한다. 특히 도수가 증산과 정산을 연결한다는 점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할 것이다. 도수를 통해 정산이 시간을 뛰어넘어 증산과 연결되고, 그러한 시간적인 연결이 공간적인 위치의 정당성을 위한 근거가 된다는 점을 설명하고자 한다. 정산이 새로운 중심지의 위치를 증산이 천지공사 때 도수를 통해 정해둔 위치와 같다고 선언하는 방식으로 정당화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 증산과 연결되면서 역사적인 위치에 매이지 않고 새로운 장소를 설정할 수 있었던 정산의 중심지 이동 전략이 가진 특징을 드러낼 것이다. 이때 서론에서 언급했듯이 조나단 스미스가 *To Take Place*에서 제시했던 설명이 도수의 사례에서도 나타난다는 점을 보이며 설명을 뒷받침하고자 한다. 그리고 엘리아데의 설명을 통해 신화적 시간과 역사적 시간을 잇는 현상을 보다 일반적인 시각에서 확장하고, 정산의 사례에서는 그러한 시간적 연결을 위해서 정산이라는 종교 지도자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까지 짚을 것이다.

Ⅲ장에 들어가기에 앞서 증산에서 정산으로 이어지는 종통(宗統)의 역할을 효과적으로 조명하기 위해서 막스 베버(Max Weber)의 '카리스마(charisma)' 개념을 활용한다는 점을 짚고자 한다. 막스 베버는 집단의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따르도록 하는 권위(authority)의 종류를 제시한 바 있다. 베버는 추론으로 분석이 가능한 규칙을 따르는 '합리적·법적 권위'와 과거의 선례를 따르는 전통적 권위와 달리 비일상적인 차원에서 나오는 '카리스마적 권위'를 포착했다.[134] 베버는 카리스마가 주로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지도자들에게서 발견되는 '초자연적이거나 매우 예외적인 힘'에 해당한다고 보았다.[135] 베버는 이러한 인물들이 신이 보낸 사람 혹은 모범적인 사람으로 평가받아서 지도자로 여겨진다고 설명했다. 또한 베버는 카리스마적 지배가 규칙과 과거의 선례를 뒤엎는다는 점에서 변화를 만들어내는 혁명적인 특징을 지닌다고 평가하기도 했다.[136] 종교 지도자가 변화를 만들어내는 원동력을 설명하는 카리스마 개념은 증산이나 정산 같은 신종교 지도자의 힘을 포착하는 데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 베버 또한 카리스마적 권위를 지닌 지도자의 사례로 예수그리스도후기성도교회(The Church of Jesus Christ of Latter-day Saints)의 창시자 조셉 스미스(Joseph Smith)를 거론하기도 했다.[137]

베버의 카리스마 개념은 증산과 정산이 종교 지도자로서 신종교를 만들어내고 중심지를 설정하는 원동력을 설명하는 데에 동원된다. 무엇보다 정산의 중심지 이동 전략에서 증산으로부터 계승하는 종통은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카리스마 개념이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본 연구는 증산에

134) Weber, *The Theory of Social and Economic Organization*, 361.
135) Weber, *The Theory of Social and Economic Organization*, 358-59.
136) Weber, *The Theory of Social and Economic Organization*, 362-63.
137) Weber, *The Theory of Social and Economic Organization*, 359.

서 정산으로 이어지는 종통이 베버가 말한 카리스마에 해당한다고 보고, 정산이 설정하는 중심지의 정당성이 주로 증산과의 연결에서 비롯된다는 점에 주목할 것이다.

1. 장소의 정당성이 유지되는 시간을 설정하는 도수

정산의 중심지 이동을 위한 가장 핵심적이면서도 포괄적인 이데올로기는 '도수(度數)'의 체계를 활용하는 데에서 비롯된다. 앞서 다룬 기존 장소의 상징적 복제의 경우 정산의 중심지 이동에서 필수적인 조건이라기보다는 풍수의 해석과 마찬가지로 새로운 장소의 정당성을 강화하는 부차적인 전략들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 그러한 전략은 중심지 이동 때마다 복제하는 대상이 일관적이지 않고, 중심지 이동에 대한 포괄적인 설명을 제공하지 않는다. 하지만 도수는 어느 때에 어느 곳으로 이동해야 하는지 상황 전반에 관한 설명을 일관적으로 제공했다. 중심지 이동이 있을 때마다 정산은 도수를 봐서 중심지의 이동을 미리 감지했고, 새로운 장소를 찾을 때에도 도수에 따랐다. 다음은 중심지(태인 도장, 보수 도장, 감천 도장)의 이동이 있을 때마다 있었던 도수와 관련한 정산의 언술들이다.

> [태인으로의 이주를 앞두고]
> 너희들은 아무에게도 발설하지 말고 내일 태인 도창현에 가서 도장기지로 마땅한 곳을 찾으라. (중략) 증산상제님께서 (중략) 공사를 보셔서 나에게 주신 비장(秘藏)한 곳이므로 너희들이 찾아야 하는 도수니라.[138]

[태인을 떠나며]
지금 이후의 시기는 이미 수년 전에 말한 대로 '낙화도수(落花度數)'와 '잠룡도수(潛龍度數)'니 꽃은 낙화요, 용은 잠룡(潛龍)이니라. 27년간 허공부, 허도수가 이 시기이므로 나는 다시 입산수도할 것이요, 그대들은 각자 귀가하여 내가 다시 찾을 때를 기다리라.[139]

[보수동으로의 이주를 앞두고]
그러면 네가 가서 내가 공부하기에 적합한 집을 선택하라. 그 곳은 (중략) 태인도장처럼 치마바위가 있어야 도수에 맞되[140]

[감천동으로의 이주를 앞두고]
내가 도인들의 '대이동도수'를 몇 달 전에 마음에 정하였으나 너희들의 난감한 형편과 실정을 염려하여 아직 명령을 내리지 못하였더니 오늘 조 부의장과 협의한 결과 도인들의 판잣집을 철거, 이주하기로 하였느니라.[141]

이런 식으로 도수는 중심지의 이동과 관련한 여러 상황에서 다양하게 적용됐다. 정산은 중심지 이동 외에도 도수를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앞서 Ⅱ장에서 설명했듯이 도수는 천체의 운행 원리를 뜻하는데, 증산은 이러한 도수를 세상이 운행되는 법칙으로 재해석했다. 이러한 도수의 의미를 적극적으로 수용했던 정산은 아래에서 말한 것처럼 인간 세계의 여러 일들이 도수에 따라 일어난다고 설명하며 교인들이 당시 경험하는 역사적 사건들에 정

138) 『태극진경』, 3장 59절.
139) 『태극진경』, 3장 114절.
140) 『태극진경』, 5장 4절.
141) 『태극진경』, 6장 38절.

당성을 부여했다.

> 구천상제님의 공사도수에 따라 정신문화와 물질문명이 발달하여 조화를 이루게 하리라.[142]

> 후천세계는 이미 구천상제님께서 천상신명과 인간계를 통투(通透)하셔서 짜 놓으신 도수의 정(定)을 동(動)으로 작용시켜 지금도 당진(當進)하고 있되[143]

이러한 전제를 바탕으로 정산은 사회적, 정치적 맥락에서 벌어지는 사건들을 자신의 종교적 이데올로기 안에 편입시켰다. Ⅱ장에서 다루었듯이 태인 도장을 떠나게 했던 일제의 강제 해산, 부산 첫 도장이 있던 보수동을 떠나게 했던 부산시의 행정 조치 등의 외부 사건들을 비롯해 일본의 식민지배나 조선의 독립운동 또한 모두 증산의 천지공사 때 이미 정해졌던 일이라고 정산은 설명했다.[144]

도수를 시간과 관련해 설명하기에 앞서 도수가 증산에서 정산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어떤 중요성을 갖는지 더 자세히 살펴보겠다. 도수는 증산이 상제로서 행한 천지공사(天地公事)로부터 비롯된다. 천지공사는 증산이 상제로서 기존에 많은 병폐가 있던 선천(先天) 세계에서 미래에 다가올 유토피아로서의 후천(後天) 세계로 갈 수 있도록 '도수'를 새롭게 설정한 작업이다. 다음은 증산이 천지공사를 직접 설명한 부분이다.

---

142) 『태극진경』, 6장 84절. 구천상제는 증산을 가리킨다.
143) 『태극진경』, 9장 3절.
144) 일본의 식민 지배와 관련해서는 『태극진경』의 4장 46절에서, 독립운동과 관련해서는 『태극진경』의 2장 55절에서 언급하고 있다.

> 나는 삼계대권(三界大權)을 주재하야 선천(先天)의 도수를 뜯어고치고 후천(後天)의 무궁한 운명을 열어 선경(仙境)을 세우려 함이라. 선천에는 상극(相克)이 인간사물(人間事物)을 사배(司配)함으로 (중략) 천지가 상도(常度)를 잃고 인세(人世)에 모든 참재(慘災)가 생기나니 그럼으로 내가 천지도수(天地度數)를 정리하고 신명(神明)을 조화하야 만고(萬古)의 원(寃)을 끄르고 상생(相生)의 도(道)로써 후천선경을 열고 (중략) 먼저 신도(神道)를 조화하야 굳게 도수를 정하면 저절로 기틀이 열녀 인사(人事)의 성공(成功)을 나타내나니 이것이 천지공사(天地公事)니라.[145]

선천의 상극으로 인해 세상에 많은 문제가 생겼으니 오랜 원통함(寃)을 풀고 상생의 후천을 열어 인간과 세계를 구하겠다는 것이 천지공사의 취지이다. 그리고 이러한 천지공사의 구체적인 방법이 바로 도수를 뜯어고치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매양 사사(私事)라도 천지공사의 도수에 부처두면 그 도수에 이르러 공사(公事)가 다 끌린다 하시더라.[146]

도수의 중요한 특징은 증산 사후에도 증산과 연결될 수 있는 원리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위 구절은 어떤 사사로운 일이더라도 도수에 따라 정해두면 도수에 맞는 때가 됐을 때 일이 풀린다는 뜻이다. 다시 말해, 증산이 천지공사를 통해 도수를 한번 고친 이후에는 도수에 의해 저절로 세계의 많은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증산이 행한 천지공사의 결과가 계속해서 세계에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러한 특징 때문에 정산에게는 증산이 짜놓은 도수

145) 『증산천사공사기(甑山天師公事記)』, 9.
146) 『증산천사공사기(甑山天師公事記)』, 106.

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했다. 역사 속에서 벌어지는 많은 일들 배후에 있는 도수를 보는 것은 곧 도수를 다시 설정했던 증산과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했기 때문이다.

> 봉천명일 대치성에 앞서 가족과 도인들에게 하명하시기를 "내가 13년 전 오늘 천명(天命)과 신교(神敎)를 받들어 모신 이래, 구천상제님께서 물 샐 틈 없이 짜 놓으신 도수를 풀어 맞추는 공부에 진심갈력(盡心竭力)하여 이제 그 도수의 제1단계 공사를 성취하였노라. (중략) 수많은 도수를 마쳤으니 이는 내가 구천상제님의 도통(道統) 계승자임이 실증됨이라. 이에 나 스스로 무극대도주의 권명(權名)을 천하에 고(誥)하노라." 하시니라.[147]

> 이는 구천상제님께서 짜 놓으신 삼천(三天)의 도수로서 내가 봉행하여야 할 큰 도수 중의 하나니라. 그러므로 아무리 어려워도 하여야 할 공사며 또 나 아니면 못할 일이니라.[148]

무극도를 세우기 전 본격적인 종교 활동을 시작할 때 정산은 도수를 볼 수 있는 능력을 강조하며 자신이 증산의 후계자라는 것을 증명하고자 했다. 또한 앞서 설명한 대로 정산은 그가 행한 거의 모든 종교적 행위에 도수라는 용어를 사용할 정도로 도수를 강조했다.[149] 특히 도수를 볼 수 있는 것은 정산 자신뿐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처럼 정산의 도수를 보는 독점적인

147) 『태극진경』, 3장 8절. 정산의 용어로 종통은 도통(道統)으로 표현되고 있다.
148) 『태극진경』, 2장 77절.
149) 김탁은 도수라는 용어가 다양한 용례로 사용되고 있음을 정리하고 있다. 김탁, 「증산과 정산의 도수(度數)사상」, 263. 박인규는 도수가 크게 세 가지 의미를 지니는데 첫째로 천지, 우주 자연의 법칙 또는 원리의 의미, 둘째로 천지공사의 구체적 목록을 지칭하는 말, 셋째로 천지 법칙의 변화 과정이나 기간 및 절차를 의미한다고 정리한다. 박인규, 「대순사상의 도수론(度數論) 연구」, 222-26.

능력은 증산으로부터 이어지는 종통을 의미했으며 실제로 정산은 도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교단을 이끌었다. 다시 말해, 도수를 보는 능력을 입증함으로써 정산은 증산의 카리스마를 계승하게 되었다고 주장한 것이다.

여기서 주목하는 도수의 또 다른 특징은 도수가 어떤 일이 정당성을 갖는 시간을 설정한다는 점이다.

> 모든 일에는 때가 있는 법이니라. 그 때가 바로 구천상제님께서 짜 놓으신 도수이므로 시유기시(時有其時)라.[150]

위와 같이 말하며 정산은 모든 일에는 정당성을 유지하는 시간이 존재하며 그것이 도수에 의해 결정된다고 설명했다. 도수가 정한 시간에 따른 사건이나 물건, 장소는 증산의 천지공사에 의한 것이므로 정당한 것이다. Ⅱ장에서 살펴본 대로 이는 중심지와 같은 장소에도 적용됐다. 정산은 기존 장소를 외부 세력에 의해 잃는 사건 또한 교인들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설명을 제공했고, 새로운 장소 또한 정당화했다.

그러나 도수의 시간에는 시작과 함께 끝도 있을 수 있다. 아래의 인용문은 증산의 유품이자 종통의 증거물이라고 할 수 있는 둔궤가 도둑맞은 상황에서 벌어진 대화를 보여준다.

> 조주일이 상제님을 배신하고 몰래 반구정에 가서 둔궤를 가지고 진주 모처로 도망하여 (중략) 상우가 이 소식을 듣고 상제님께 둔궤를 찾고자 여쭈니 “둔궤는 이미 도수에 따라 쓰여 나의 일을 다 마쳤으니

150) 『태극진경』, 3장 114절. 여기서 구천상제는 증산을 가리키며 시유기시(時有其時)는 ‘때에는 그 때가 있다’는 뜻으로 모든 것에는 적합한 때가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으로 보인다.

그로써 족하고 (중략) 이제는 한낱 궤에 불과하니라"[151]

정산의 설명에 따르면, 도수에 따라 특정 사건이나 물건, 장소에 정당성이 부여되는 시간이 끝나면 그 대상은 평범한 것으로 전락하게 된다. 정산은 이전에 중요한 물건이었던 둔궤가 도수에 따라 더 이상 이전만큼 쓸모가 없는 평범한 궤가 되었다고 말한다. 이처럼 도수에 따른 시간은 어떤 대상에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지만, 역으로 기존의 정당성을 폐기할 수도 있다.

나아가 도수는 장소에도 그 정당성이 유지되는 시간을 설정했는데 이때 설정되는 시간은 유한하다는 점이 중요하다. 정산은 장소에 부여된 시간의 시작과 끝을 선언하는 방식으로 새로운 중심지를 도입하거나 기존의 중심지를 폐기했다. 여기서 주목하는 것은 장소에 부여된 시간이 유한하다는 점에서 기존의 장소가 폐기될 수 있었다는 점이다. 실제로 정산은 정산이 이끄는 교단이 떠난 후에는 도수에 따라 태인 도장과 보수 도장이 성스러운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다했다고 주장했다. 태극도가 보수동에서 감천동으로 옮겨 간 이후 정산은 보수동에는 자주 방문하지 않고 1년에 한 번씩만 방문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교인들의 종교 활동은 모두 감천동에서 이뤄졌다.[152] 여기서 말하는 기존 장소의 폐기는 다수의 장소가 생겨나며 그 중 몇몇 장소가 상대적으로 덜 중요해지는 상황과는 분명히 차이가 있다. 이 사례는 특정 장소에 정당성을 부여했던 논리가 역으로 다시 적용되는 경우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산은 도수를 통해 부여됐던 시간이 끝났음을 선언하며 기존 장소의 정당성을 폐기하고 새로운 장소로 이동할 수 있었다. 이렇게 정산이 활용하는 도수의 특징은 종교의 공간에 시간이 결합되는 하나의 사례를 효과적으로 보여준다.

151) 『태극진경』, 2장 89절.
152) Cha, "Is Sacred Site Discovered? Or Created?," 341-2.

앞서 Ⅱ장에서 정산이 기존 장소를 상징적으로 복제하는 전략 또한 활용하고 있다는 점을 짚었다. 여기서 다루는 도수의 특징까지 종합해서 고려한다면, 정산은 기존 중심지를 복제하면서도 동시에 폐기하는 작업을 동반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도수가 시간에 따라 중심지를 설정하고 폐기하는 방식에 대해 다뤘다면, 다음 2절에서는 도수에 따른 중심지 이동이 구체적으로 어떤 근거로 특정 중심지의 위치에 관한 정당성을 확보하는지 설명할 것이다.

2. 증산과의 시간적 연결을 근거로 한 공간의 정당화

앞서 도수가 중심지의 정당성이 유지되는 시간을 설정한다는 점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에는 도수가 특정 장소를 중심지로 설정하는 근거가 증산과 정산을 연결하는 특징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보일 것이다. 특히 정산이 중심지를 설정하는 때라는 시간적인 차원과 그 중심지의 위치라는 공간적인 차원을 정당화하는 전략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이러한 전략은 증산의 시간과 정산의 시간이 연결되며 공간적 위치를 정당화한다는 설명을 제시할 것이다. 이를 효과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조나단 스미스의 설명을 활용해 역사적 위치와 관계 없이 어떤 위치에서든 새로운 장소가 정당화될 수 있다는 점을 짚는다. 이는 도수가 중심지의 시간적 측면뿐만 아니라 공간적 측면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근거가 된다는 설명을 제공할 것이다.

먼저 정산의 도수에 관한 이데올로기가 정산과 증산의 두 시간대를 병치시키면서 전개된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증산과 정산을 잇는 도수의 특징에 대해 논의를 시작하려고 한다. 구체적으로 이러한 두 시간대는 정산 자신이

종교 활동을 하는 시간대와 증산이 천지공사를 통해 도수를 설정했던 시간대로 나뉜다. 정산은 두 시간대를 전제로 하는 이데올로기를 바탕으로 삼고, 증산의 시간대에 일어났던 일을 상기시키면서 자신의 시간대에 일어나는 일을 해석했다. 두 시간대를 전제로 정산의 이데올로기가 구성된다는 것은 증산이 도수로 정해뒀던 일이 정산의 시기에 실현된다는 설명에서 주로 드러난다.

> 상제님께서 임원들에게 하교하시기를 "증산상제님께서 '무극대운도수(无極大運度數)'와 '27년 허도수'를 짜시며 '왜인을 임시 일꾼으로 내세우리라.' 하시고, '일시 저들의 영유는 될지언정 영원히 영유되지는 않게 하리라.' (중략) 하시며, '저희는 너희 일꾼이 되어 일은 분명하게 잘할 것이나 갈 때에는 품삯도 못 받고 빈손으로 돌아가리니, 말대접이나 후하게 하라.' 하심이 모두 오늘의 일을 두고 이르심이니라." 하시니라.[153]

위에서 정산은 과거 증산이 예정했던 일이 “오늘의 일”이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처럼 정산은 자신의 시간대에서 벌어지는 일을 증산의 시간대와 병치시켰다. 이것은 증산으로부터 이어지는 자신의 종통을 강조하면서도 자신의 시점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기 위한 것이었다.

> 일찍이 구천상제님께서 무극주로서 지멸지경의 인세에 하강하셔서 삼계공사로 도수를 짜 놓으신 사실을 잠시라도 잊어서는 아니되느니라. 나는 이제 태극주로서 무극주상제님의 도수를 풀어 설법(設法)함이니[154]

153) 『태극진경』, 4장 46절.

이런 맥락에서 정산은 교인들에게 위의 글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증산(구천상제)이 천지공사를 통해 도수를 설정해두었다는 사실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여기서는 “일찍이” 증산이 천지공사를 한 시간대와 “이제” 정산이 도수를 풀어내는 시간대가 병치되고 있다. 이러한 정산의 이데올로기는 자신의 시점에서 살아가는 교인들에게 증산이 천지공사를 했던 시점을 떠올리도록 했다. 증산의 시간대에서 일어난 일을 정산의 시간대에서 일어나는 일을 대응시켰기 때문이다.

나아가 정산은 도수를 보는 능력을 통해 이러한 두 시간대를 적극적으로 연결하려고 했다. 정산은 증산이 천지공사를 통해 설정한 도수를 보기 위해서 수도(修道) 행위의 일환인 ‘공부’를 했다고 알려진다. 정산은 도수를 보기 위해 자신의 종교 활동 중 공부를 계속했다.

> 내가 13년 전 오늘 천명과 신교를 받들어 모신 이래, 구천상제님께서 물샐 틈없이 짜 놓으신 도수를 풀어 맞추는 공부에 진심갈력(盡心竭力)하여 이제 그 도수의 제1단계 공사를 성취하였노라.[155]

> 구천상제님의 도통(道統)을 봉승하고 백일공부를 마침으로써 상제님께서 짜 놓으신 도수에 따른 나의 할 일이 확정되었으니 그대들은 내가 하는 일이 곧 증산상제님의 일임을 믿고 따를지니라.[156]

이처럼 정산이 공부를 통해 증산과의 연결을 중시하고, 증산과 연결되기

154) 『태극진경』, 7장 33절. 여기서 삼계공사는 천지공사를 뜻하는 다른 표현으로, 하늘과 땅 그리고 사람의 삼계(三界)에 대한 공사라는 의미를 갖는다.
155) 『태극진경』, 3장 8절.
156) 『태극진경』, 2장 58절.

위해 계속해서 수행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공부를 했기 때문에 증산과 연결될 수 있었다고 주장하며 자신의 종통을 강조하는 것이기도 했다. 이때 정산은 ‘자신이 하는 일’이 곧 ‘증산의 일’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자신이 하는 일이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증산이 한 일과 동일시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정산의 이데올로기는 증산의 시간대와 정산의 시간대를 연결하고 증산과 정산이라는 두 주체를 통합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

> 증산상제님께서 '나와 그대는 증정지간(甑鼎之間)이라.' 하시고 또 '이도일체(以道一體)니라.' 하셨으므로 상제님의 도호 '증산(甑山)'에 이어 나를 '정산(鼎山)'으로 하셨느니라. 상제님께서는 무극주로서 재천(在天)하시고 나는 태극주로서 재인(在人)하니, 체용(體用)은 둘이 아니요 하나니라." 하시니라.[157]

> 구천무극주님께서 친히 9년공사로써 도수를 짜 놓으셨으니 그것은 체(體)요, 원리니라. 나는 도로써 용(用)하여[158]

위의 구절을 보면 정산은 증산과 자신의 특별한 관계를 강조하며 증산과 자신은 하나와 같다는 표현까지도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정산의 주장은 시간을 뛰어넘어 정산과 자신을 연결시키려는 시도이다. 즉, 정산은 도수라는 세계의 운행 법칙이 결정된 때인 증산의 시간대와 자신의 시간대를 연결해 정산 시간대의 상황이나 장소, 사물 등을 정당화하고 증산과 자신의 관련성을 강조한 것이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바탕으로, 정산이 도수를 정한 증산의 시간대와의 연

157) 『태극진경』, 5장 62절.
158) 『태극진경』, 9장 59절.

결을 바탕으로 새로운 중심지를 설정한다는 것을 설명할 것이다. 보다 효과적인 설명을 위해서 현재의 세계를 결정했던 과거 시간대와의 연결을 바탕으로 중요한 장소를 설정하는 다른 종교 전통의 사례에 대한 설명을 참고하고자 한다. 조나단 스미스(Jonathan Z. Smith)는 *To Take Place*에서 오스트레일리아 어보리진(Aborigine) 아란다(Aranda)의 신화 사례와 기독교의 예루살렘 전통 사례를 비교하며 중심지 이동의 문제에서 드러나는 시간의 특성에 대해 다뤘다.[159] 아란다 신화에서 의식(ceremony)을 통한 꿈의 시간(Dreamtime) 속 조상과의 연결이 현재의 장소를 설정한다는 스미스의 설명은 도수에 따른 정산의 중심지 이동 사례에 활용된다.

아란다 신화는 태초의 신화적 시대인 꿈의 시간에 조상들이 땅 아래의 잠에서 깨어나 활동하며 지금의 세계를 만든 이야기를 담고 있다.[160] 아란다 족은 꿈의 시간에 신화적 존재와도 같은 조상들이 여러 사물이나 지형과 같은 물질적인 형태로 변해 지금까지 전해져 내려온다고 여긴다.[161] 이 신화에 따르면, 지금의 지형은 모두 꿈의 시간 속 조상들의 활동으로 만들어진 결과다. 조상들이 태초의 땅을 지금의 모습으로 바꾸었기 때문이다.

스미스는 아란다 신화의 시간을 조상의 변형이 연결하는 두 시간대, 즉 조상들이 활동했던 '그때'와 우리가 현재로 여기는 '지금'으로 나눌 수 있다

159) Smith, *To Take Place*, 112-17. *To Take Place*의 5장에서 스미스는 의례와 장소에 관한 논의를 전개하면서 두 사례를 장소에 관한 의례와 신화가 결합한 사례로서 다루고 있다. 이와 관련된 설명은 본 논문의 각주 34번을 참고하라.

160) Smith, To Take Place, 7, 11. 이러한 조상에 관한 서사는 아란다 족뿐만 아니라 오스트레일리아 어보리진이 전반적으로 공유하고 있다.

161) 스미스는 낸시 먼(Nancy Munn)의 논의를 인용하며 조상의 변형(transformation)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조상의 변형에 대해 낸시 먼은 조상의 몸이 물질적 대상으로 변하는 변신(metamorphosis), 조상이 특정 장소에 흔적을 남기는 각인(imprinting), 조상의 몸 밖으로 무언가를 꺼내는 외재화(externalization)의 구체적인 유형들을 제시했다. Nancy Munn, "The Transformation of Subject into Objects in Walbiri and Pitjantjatjara Myth," in *Australian Aboriginal Anthropology*, edited by Ronald. M. Berndt (Nedlands: University of Western Australia Press, 1970), 142-44.

고 말한다. 아란다 신화 또한 '조상들이 활동했던 꿈의 시간, 즉 '그때'를 강조하며 '지금'과 병치시키기 때문이다.[162] 이때 스미스는 아란다 신화가 두 시간대를 연결하면서 특정 역사적 위치에 매이지 않게 됐다는 중요한 점을 짚었다.[163] 어떤 장소든 꿈의 시간 속 조상이 나타나는 곳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이 사례는 시간적 연결을 근거로 어떠한 위치의 장소든 새롭게 정당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스미스는 특정 장소가 잊힐 수 있는 반면 다른 장소는 새롭게 발견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그는 이러한 아란다 신화의 장소 이동이 시간적 연속이 공간적 연속으로 이행한(transposed) 사례라고 표현하기도 했다.[164] 두 시간대의 시간적인 연결을 근거로 삼아 두 시간대의 공간적인 위치의 연결을 정당화하기 때문이다. 즉, 꿈의 시간에서 특정 장소를 가리키는 조상을 만났다고 주장하면서 꿈의 시간 속 장소와 현재 시점의 장소와 연관이 있다고 주장하는 방식으로 공간적인 위치를 정당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산의 사례도 마찬가지로 시간적 연속이 공간적 연속으로 이행되는 사례로 볼 수 있다. 정산의 사례 또한 아란다 신화와 마찬가지로 증산과의 연결을 통해 특정한 역사적인 위치에 매이지 않고 중심지를 설정할 수 있게 됐

---

162) Smith, *To Take Place,* 112-13.

163) Smith, *To Take Place*, 113. 이 논의 또한 스미스는 낸시 먼의 주장을 참고했다고 밝힌다. 낸시 먼은 두 시간이 연결되면서 역사 속 인간과 신화 속 조상이 통합된다는 설명을 제시한다. 이와 관련된 낸시 먼의 설명을 더 자세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변형들이 만들어져 영원히 가시적으로 남았기 때문에 (중략) 변형들은 두 형태의 시간대를 압축했고, 따라서 특정 역사적 위치로부터 벗어났다. (중략) 인간과 조상 모두 이러한 대상들 안에서 통합됨으로써 그들의 '역사적 진실성(historicity)'이나 '죽음에 처할 상태(mortality)'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그리고 인간과 조상의 상호 동일시(identification)는 인간과 조상이라는 두 범주의 주체를 다시 통합했다." Munn, "The Transformation of Subject into Objects in Walbiri and Pitjantjatjara Myth," 144.

164) 스미스는 스태너의 표현을 빌려왔다고 밝혔다. W. E. H. Stanner, "On Aboriginal Religion: I. The Lineaments of Sacrifice," *Oceania* 30(1959): 117. 스태너는 오스트레일리아의 또 다른 어보리진 부족인 무린바타(Murinbata) 족의 카와디(Kaward)라는 의식을 설명하면서, 각 시기별로 정해진 지위와 장소가 있기 때문에 시간적 연속이 공간적 연속으로 이어진다고 표현했다.

다. 나아가 정산은 증산의 '그때'와 정산의 '지금'이라는 두 시간대의 연결을 바탕으로 각 도장으로 이동할 때마다 매번 공간적인 위치를 정당화했다.

> [태인 도장]
> 구천상제님께서 비장하셨다가 나에게 점지하신 곳이라.[165]

> [보수 도장]
> 땅이 도수에 맞는 적지로다. 태극의 대운이 이에서 비롯되리니 이만하면 도장으로 좋이 쓰리라.[166]

> [감천 도장]
> 이주할 곳은 감천이라야 하느니 (중략) 반월령(半月嶺)으로부터 천마산과 옥녀봉의 두 산록이 서로 맞닿은 동구까지의 천마옥녀음양합덕지궁(陰陽合德之宮)이라야 도수의 땅이 되느니라.[167]

위와 같이 정산은 도수를 통한 증산과의 연결을 바탕으로 새로운 도장의 위치를 증산이 도수를 통해 정해둔 위치와 같다고 주장하는 방식으로 정당화했다. Ⅱ장에서 살펴본 내용처럼 도수에 따른 장소가 되기 위해서는 풍수와 같은 다른 조건들도 갖춰져야 하는 경우도 있었다. 하지만 도수는 증산과 연결되었음을 증명한다는 점에서 중심지의 위치를 정당화하는 가장 주된 근거라고 볼 수 있다. 정리하자면, 정산은 도수를 통해 시간을 뛰어넘어 증산과 연결함으로써 결정적인 정당성을 확보하고, 특정 역사적 위치와 관계없이 여러 중심지를 설정했다.

---

165) 『태극진경』, 3장 62절.
166) 『태극진경』, 5장 8절.
167) 『태극진경』, 6장 40절.

정산이 자주 사용됐던 '천장길방(天藏吉方)' 개념은 증산과의 연결을 통해서 역사적 위치와 관계 없이 중심지를 도입하는 특징을 잘 보여준다. 천장길방은 하늘이 숨겨둔 길한 곳을 의미하는 말로, 이는 풍수 전통과도 관련될 수 있지만 무극도와 태극도, 대순진리회에서는 주로 도수와 관련되어 이해된다.[168] 도수에 따라 정해진 때에 하늘이 특정 장소를 드러낸다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정산은 도수와 마찬가지로 새로운 도장을 찾을 때마다 이러한 천장길방의 개념을 직·간접적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사용했다.[169]

> 또 부산의 글자 형상이 팔금산(八金山) 또는 입금산(入金山)이라, 증산상제님께서 '내가 장차 금산사(金山寺)로 들어가리라.' 하신 곳이 바로 이곳이니 천장길방(天藏吉方), 태극원점(太極原點)의 기지(基地)를 입금산이라야 얻을 수 있느니라.[170]

> 너희들이 나를 믿고 감천에 왔으면 감천이 왜 천장길방인지 아느냐? 우선 감천의 지형을 살펴보라. 예로부터 산봉우리가 쌍태(雙胎)만 되어도 대지라는 말이 있는데 (중략) 너희들도 이 지형 지세를 보면 이곳이 과연 천장길방의 오만년 대지임을 알리로다.[171]

정산은 각 중심지가 위치한 곳이 기존에는 특별한 의미를 갖지 않다가

168) Cha, "Is Sacred Site Discovered? Or Created?," 339-40.

169) 본문에서 인용한 『태극진경』의 구절 외에도 다음의 구절들에서 천장길방과 관련한 표현들이 등장한다. 태인 도장의 위치를 찾을 때 정산은 교인들에게 증산이 자신에게 비장(祕藏)한 곳을 도장의 위치로 주었으니 이를 찾으라고 지시했다. 『태극진경』, 3장 58-59절. 부산 보수동에서 첫 도장을 찾을 때에는 '천장(天藏)'을 찾아야 한다는 표현이 나온다. 『태극진경』, 5장 4절. 이외에도 6장 34, 40, 62절에서는 감천 도장을 가리켜 천장길방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대강전을 지을 때 쓰인 상량축문에도 하늘이 숨기고 땅이 비밀스럽게 했다는 뜻으로 천장지비(天藏地秘)라는 표현이 쓰였다. 『태극진경』, 8장 21절.

170) 『태극진경』, 5장 6절.

171) 『태극진경』, 7장 65절.

특정 시기에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는 이유를 설명할 때 천장길방의 개념을 활용했다. 천장길방으로 등장하는 새로운 중심지는 기존 중심지를 복제하는 등 기존 중심지와 관련 짓는 작업이 동반되지 않더라도 정당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천장길방은 역사적 위치에 매이지 않는 특징을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172]

정산의 사례가 갖는 중요한 특징을 한 가지 더 짚고자 한다. 태극도에서 증산과의 시간적 연결을 위해서는 정산이라는 종교 지도자의 역할이 결정적이다. 하지만 많은 종교들은 의례나 상징을 통해서 시간을 뛰어넘는 경험을 제공해왔다. 엘리아데는 반복적인 의례를 통해서 신화의 시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현상에 대해 보다 일반적인 맥락에서 설명한 바 있다.[173] 엘리아데의 설명에 따르면, 의례 참가자들은 의례가 진행되는 동안 의례가 기념하는 사건의 시간을 경험한다. 태극도의 사례에서도 정산이 1909년 4월 28일 만주로 향하는 기차 안에서 증산으로부터 후계자로서의 음성 계시를 받은 봉천명(奉天命)의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 매년 4월 28일 봉천명 치성이라는 의례를 치른다. 태극도의 교인들은 봉천명 날짜에 맞춰 치성을 치르는 동안 정산이 처음 증산으로부터 종통의 계시를 받은 순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경험을 한다.

태극도의 경우 증산 혹은 천지공사와 연결되는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 대개 정산이라는 인물이다. 정산은 증산이 천지공사로 설정한 도수를 보는 유일한 인물로서 교인들과 증산을 잇는 중개자 역할을 했다.

---

172) 천장길방의 개념은 우주 창조 신화의 형식으로도 이해될 수 있다. 일정 기간 무질서 혹은 카오스(chaos)로 있다가 우주(cosmos)가 부활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이다. Smith, *To Take Place*, 80. 천장길방 또한 하늘에 의해 정해졌으나 일정 기간 숨겨진 이후에 드러나는 것을 의미한다.

173) Eliade, *The Sacred and The Profane*, 77-95.

> 이는 구천상제님께서 짜 놓으신 삼천(三天)의 도수로서 내가 봉행하여야 할 큰 도수 중의 하나니라. 그러므로 아무리 어려워도 하여야 할 공사며 또 나 아니면 못할 일이니라.[174]

따라서 태극도가 중심지를 설정하고 이동하는 과정은 정산이 없었으면 불가능했다. 정산이 없다면 도수를 통해 증산과 연결될 수 없기 때문이다. 도수를 활용하는 능력이 증산으로부터의 종통을 증명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정산이 도수를 따라 중심지를 이동했던 과정 또한 증산으로부터 잇는 종통을 뒷받침했다고 볼 수 있다.

> 대지는 그 주위에 좌청룡인 황금산, 우백호인 성황산, 주산인 항가산, 안산인 도이산이 그림처럼 배열되고 (중략) "구천상제님께서 비장하셨다가 나에게 점지하신 곳이라"하신 상제님의 말씀이 실증됨에 더욱 기뻐하며 감복하니라.[175]

> 도장의 기지(基地)는 구천상제님께서 이미 비장(秘藏)하신 바이나 이제야 말하느니[176]

위에서 정산은 증산이 도장의 위치를 자신에게만 미리 알렸다는 점을 알리며 중심지를 설정하는 과정에서도 자신과 증산의 관계를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베버의 표현을 빌리면, 정산이 중심지를 설정하는 과정은 증산으로부터 계승하는 카리스마가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다.

하지만 정산의 사례에서 정산이라는 역사적 인물이 죽은 뒤에는 더 이상

174) 『태극진경』, 2장 77절.
175) 『태극진경』, 3장 62절.
176) 『태극진경』, 3장 58절.

도수를 활용할 수 없게 된다는 문제가 생긴다. 베버 또한 카리스마적 지도자가 사라지면 후계자 문제가 중요하다는 점을 짚기도 했다.[177] 스미스는 아란다 신화에서는 반복되는 의례를 통해서 꿈의 시간 속 조상과 계속해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장소가 '무한히' 생겨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178] 조상과 연결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있는 한 조상과 관련된 새로운 장소를 발견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산의 사례에서는 정산이 없다면 도수를 통한 증산과의 연결이 끝날 수도 있다. 반면 정산이 부재하더라도 증산에서 정산으로 이어지는 종통이 다시 이어진다면 도수의 해석을 통해 증산의 천지공사와 연결하는 것은 계속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정산 사후 정산이 세운 교단은 분열해 중심지 이동과 관련해서 서로 다른 선택을 했다. 태극도에서 갈라져 나온 대순진리회는 증산에서 정산으로 이어지는 종통을 우당 박한경이 계승하면서 다시 한 번 중심지를 이동했다. 반면 태극도에 남은 교인들은 증산에서 정산으로 이어지는 종통을 그 이상으로 잇기보다는 정산을 기념하면서 그가 설정한 중심지에 그대로 남았다. 이러한 차이는 정산의 카리스마를 계승하는 방식에서 비롯된다. 증산으로부터 정산으로 내려오는 종통을 장소와 관련짓는 방식에 따라 중심지 이동의 양상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어지는 Ⅳ장에서 보다 자세히 다룰 것이다.

Ⅳ장으로 넘어가기에 앞서 시간을 거슬러 신화적 시간과 연결을 추구하는 것에 관해 일반 교인들이 경험하는 의미를 짚고자 한다. 이는 시간과 신화에 관한 미르체아 엘리아데(Mircea Eliade)의 논의를 통해 효과적으로 설명

177) Weber, *The Theory of Social and Economic Organization*, 364.
178) Smith, *To Take Place*, 113-14.

된다. 엘리아데의 설명에 따르면, 신화는 주로 성스러운 역사와 관련되어 태초에 벌어진 사건을 통해 세계에 성스러움이 나타나는 이야기를 제공한다.[179] 범속한(profane) 인간은 자신을 인간의 역사 속에 속한다고 여기는 반면, 종교적 인간은 이러한 신화에 나타난 성스러운 역사에 자신이 속한다고 여긴다. 이러한 신화의 의미에 따르면, 증산의 천지공사 또한 아란다의 조상 신화와 마찬가지로 세계에 성스러움이 나타나는 역사가 만들어지는 사건을 다루는 신화라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 '그때'라는 신화의 시간과 연결하는 것은 신화에 따른 성스러운 역사에 속하려는 시도이자 그러한 신화를 역사 속에서 재실현(reactualizing)하는 작업이라고 볼 수 있다.[180] 이런 맥락에서 아란다와 정산의 사례는 모두 '그때'의 시간과 연결되며 성스러운 역사로서의 신화에 참여하려는 종교적 인간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다. 나아가 '그때'와의 연결을 통해 설정된 장소는 종교적 인간에게 신화에 참여하는 경험을 제공하기도 한다. 정산이 설정한 중심지에 위치함으로써 교인들은 천지공사로 설정된 도수에 참여하는 경험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박인규 또한 대순진리회의 신도들이 도장을 건립하는 등의 수도 생활에 참여할 때 자신이 도수에 참여하고 있다는 성스러운 의미를 경험한다고 말하기도 했다.[181] 이러한 점을 고려했을 때, 정산의 중심지는 단순히 종교 활동의 배경이 아니라 교인들에게 증산과 연결되는 경험을 제공하는 종교의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알 수 있다.

---

179) Eliade, *The Sacred and The Profane,* 95-100.
180) Eliade, *The Sacred and The Profane,* 99-104.
181) 박인규, 「대순사상의 도수론 연구」, 235.

Ⅳ. 정산 사후 중심지 이동의 두 갈래

Ⅲ장에서 중심지 이동의 시간적, 공간적 측면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근거에 대해 증산과 연결하는 도수의 특징을 설명했다. 앞선 논의를 통해 중심지 이동의 정당성은 증산과의 연결에서 주로 비롯된다는 점과 이러한 연결 과정에서 정산이라는 증산의 후계자의 역할이 결정적이라는 점을 짚었다. 이번 장에서는 정산 사후 교단이 분열하며 중심지 이동의 양상이 두 갈래로 나뉜 것에 대해 논의한다. 특히 지난 장에서 역사적 위치에 매이지 않고 중심지를 이동하는 정산의 특징을 다뤘었는데, 이번 장에서는 역사적 특수성을 강조하는 중심지 이동 사례와 정산의 사례를 비교하며 정산 사후 나타나는 중심지 이동의 두 유형을 설명할 것이다.

1958년 2월 정산이 사망한 이후 10년간은 우당 박한경이 태극도를 이끌었다. 우당은 정산이 생전에 교단 운영의 최고 책임자인 도전(都典)이라는 직책에 임명한 인물이었다. 하지만 우당은 교단 내부의 갈등을 겪다가 1968년에 태극도의 감천 도장을 떠난 이후 서울 중곡동에서 대순진리회라는 또 다른 교단을 창시했다. 결과적으로 정산 사후 교단은 부산의 감천 도장에 남은 기존 태극도와 서울로 떠난 대순진리회로 갈라진 채로 지금까지 종교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장소의 측면에서 봤을 때 기존 태극도는 정산이 마지막으로 설정한 중심지인 감천 도장에 계속 남아 있는 반면, 대순진리회는 우당의 도수 해석을 바탕으로 서울 중곡동과 경기도 여주에 도장을 건립하며 부산 감천동에서 중심지를 이동하는 모습을 보였다. 정산 사후 분열한 두 교단은 중심지 이동과 관련해서 서로 다른 선택을 한 것이다.

본 연구는 정산 사후 중심지 이동의 두 양상을 통해 종교 지도자의 카리

스마를 계승하는 방식이 중심지 이동의 양상과 밀접한 관련을 맺는다는 점을 보일 것이다. 카리스마적 지도자의 초월적 측면과 역사적 측면 중 어느 측면을 장소와 관련짓느냐에 따라 중심지가 이동하는 양상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이번 장의 첫 번째 절에서는 이러한 차이에 따른 중심지 이동의 두 유형을 효과적으로 도출하기 위해 정산 생전의 태극도 사례와 또 다른 증산계 교단인 증산법종교의 사례를 비교할 것이다. 두 교단은 모두 증산과의 연결을 근거로 삼아 중심지를 이동했다. 정산의 경우 천지공사를 통해 도수를 새롭게 설정한 상제로서 증산의 초월적 특징을 주로 강조했다. 하지만 증산의 친딸 화은당 강순임이 세운 증산법종교에서는 초월자의 측면도 간과되지 않지만, 정산의 사례보다 증산이라는 인물의 역사적 측면을 강조했다. 이 두 교단의 중심지 이동 양상을 비교하며 정산이 증산의 카리스마를 잇는 방식을 효과적으로 조명하고, 나아가 앞선 종교 지도자의 카리스마를 중심지와 관련짓는 방식에 따른 중심지 이동의 두 유형을 제시할 것이다.

두 번째 절에서는 이러한 유형 구분을 정산 사후 태극도와 대순진리회의 중심지 이동 방식을 설명하는 데에 적용할 것이다. ‘증산’의 카리스마를 계승하는 방식과 관련된 중심지 이동의 유형 구분을 ‘정산’의 카리스마를 계승하는 두 교단의 사례에 적용하는 것이다. 이는 정산의 중심지 이동 전략이 변화하는 모습을 추적하는 작업이기도 하지만, 앞선 종교 지도자와의 관계를 통해 중심지를 이동하는 두 유형을 드러내는 작업으로서 더욱 의미 있다. 또한 이러한 작업은 증산법종교와 태극도, 대순진리회를 교리가 아닌 장소를 통해 차이를 드러낸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1. 중심지 이동의 두 유형: 증산 사후 정산과 화은당의 사례 비교

앞서 밝혔듯이 정산 사후 태극도와 대순진리회가 보인 중심지 이동의 두 양상을 살펴보기에 앞서, 정산의 태극도와 화은당의 증산법종교가 보이는 중심지 이동의 양상을 비교할 것이다. 정산과 화은당 사례를 비교하며 증산의 카리스마를 중심지와 관련짓는 방식에 따른 중심지 이동의 두 유형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증산법종교의 사례에서 나타나는 중심지 이동의 모습을 살펴본다. 증산법종교의 창시자 화은당 강순임은 증산의 유일한 혈통으로, 1904년에 증산과 그의 배우자 정씨부인 사이에서 태어난 딸이다. 화은당은 자신이 서른네 살이 되던 1937년부터 죽은 증산의 음성 계시를 듣기 시작하며 본격적인 자신의 종교 활동을 시작했다. 화은당의 종교 활동 중 대부분은 음성 계시를 통해 증산이 지시를 따라서 여러 지역으로 이주하며 건축물을 세우고 증산에게 치성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증산법종교는 이러한 화은당의 과업을 '육기초공사(六基礎公事)'라고 부른다. 육기초공사는 여섯 장소에서의 기초공사를 뜻하는 말로, 이는 증산의 친딸로서 화은당이 증산의 천지공사를 이어서 완성하기 위한 임무였다. 증산법종교에서 화은당은 "상제님께서 규정하신 천지공사의 큰 강령의 세부적인 도수를 확정하시는 임무를 수명(受命)하고 태어나신 분"으로 여겨졌다.[182] 또한 증산법종교의 『교리문답』에는 화은당을 "상제님께서 규정하신 천지공사의 잔무처리(殘務處理)를 명받고 화현(化現)한 천상선녀"라고 표현하고 있다.[183] 이처럼 화은당은 증

182) 증산법종교본부, 『증산법종교60년사』 (전주: 문우당, 1997), 140.
183) 증산법종교본부, 『교리문답』 (전주: 문우당, 2001).

산의 유일한 혈통이라는 점으로 인해 천상선녀와 같은 특별한 지위를 갖고 증산의 음성 계시를 듣는 등 독보적인 관계를 형성했다고 여겨진다. 다시 말해, 화은당은 정산과는 다른 방식으로 증산의 카리스마를 계승하는 종교 지도자인 것이다.

특히 화은당의 육기초공사는 증산법종교의 중심지 이동 내러티브인 동시에 교단 역사 중 매우 핵심적인 사건이다.[184] 여섯 장소에서 여러 건축물을 만들고 여러 종교적 행위를 한 이유가 명확히 제시되지는 않지만, 화은당은 증산의 음성이 명령하는 대로 이동하며 증산의 천지공사를 이어서 실현하는 데에 기여했다고 여겨진다. 홍범초의 『범증산교사』와 증산법종교에서 펴낸 교단사인 『증산법종교60년사』를 참고하여 증산의 음성 계시에 따라 화은당이 행한 육기초공사의 내용을 정리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185] 가장 처음 화은당은 전라북도 전주의 노송동에서 6년의 시간을 보냈고, 두 번째로는 경상도로 이동해 의성의 금성산에서는 지하실과 같은 옥경대(玉京臺)를 만들어 단군과 증산, 정씨부인의 영위(靈位)를 보관했다. 세 번째 장소는 같은 의성의 장대골(長大谷)로, 이곳에서는 지하 성전을 지었다. 네 번째로는 다시 전라북도 김제의 금산으로 돌아와 구미란이라는 곳에 자리를 잡았고, 다섯 번째로는 전주 동곡에 성전으로 불리는 건물을 짓고 1948년 성전에 증산의 유골 봉안식을 시행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1949년 김제 오리알터에 새로운 도장을 짓고 증산과 정씨부인의 장례식을 치렀다. 이때 화은당은 증산으로부터 “오리알터는 나와 너희 어머니의 영원한 안장지니라”라는 계시를 들었다.[186] 이로써 화은당의 육기초공사는 마무리되고, 증

184) 증산법종교의 경전이자 화은당의 전기라고 할 수 있는 『화은당실기』는 총 8장으로 이뤄져 있는데 이 중 여섯 장이 육기초공사를 다룬다.
185) 홍범초, 『범증산교사』, 632-56.
186) 김병철, 『화은당실기』(김제: 증산법종교, 1989[1960]), 201.

산의 유골을 안장한 오리알터의 도장은 더 이상 다른 곳으로 옮겨질 필요가 없는 '최후도장'으로 여겨지는 장소가 되었다.[187]

화은당의 육기초공사는 본 연구에서 다루는 정산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중심지의 이동이 여러 차례 등장하는 증산법종교의 중심지 이동 내러티브다. 또한 정산의 중심지 이동 전략에서 나타난 것처럼 화은당 또한 증산과의 연결을 통해 새로운 장소들로 이동했다.

> 신사(辛巳)년 십일월 동지 날 치성을 올리고 나니 천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이곳에서 수년 동안을 무사히 지내왔으나 전쟁은 날로 심하여 가고 일제(日帝)는 날로 포악(暴惡)해져가니 너희들이 이곳에서는 이 이상 더 견디어낼 방책이 없을 것이니 어서 속히 경상도로 내려가라"고 명령하시더라.[188]

> 성부님의 지시가 계셨으니 "(중략) 이제부터 새로운 결심을 하여 성도와 상의하여 공사를 진행하되 기지는 금성산(金城山)에다 정할지어다."[189]

> 성부님께옵서 또 명령하시기를 "이곳으로부터 자리를 옮기도록 하라 옮아갈 기지는 성도(聖度)에게 책임을 주었으니 그에게 가서 상의하라"고 하시더라.[190]

위에서 드러나듯이 화은당은 증산의 음성 계시를 직접 들으면서 증산의

187) 증산법종교본부에서 발행한 「교의해설」의 '13.육기초(六基礎)'에는 '현 본부 오리알터가 최후기초도장(最後基礎道場)이다.'라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188) 김병철, 『화은당실기』, 49. 여기서 '천사'는 증산을 가리킨다.
189) 김병철, 『화은당실기』, 59. 여기서 '성부'는 화은당의 아버지, 즉 증산을 가리킨다.
190) 김병철, 『화은당실기』, 87.

명령에 따라서 장소를 이동했다. 정산이 본격적인 교단 활동을 시작한 후 도수를 통해 증산과 연결됐다면, 화은당은 음성 계시를 통해서 같은 시간대에서 증산과 연결됐다. 정산이 도수를 볼 수 있는 종통을 근거로 내세웠다면, 화은당은 증산의 친딸이라는 혈통을 강조했다. 정산과 다른 방식이지만 화은당 또한 증산과의 연관성을 핵심적인 근거로 삼아 중심지의 이동을 정당화했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두 교단은 증산의 카리스마를 계승하며 중심지를 이동했다는 점에서 중심지 이동의 근거가 유사하지만 그 양상은 분명히 다르다. 정산의 사례와 화은당의 사례의 가장 큰 차이는 중심지 이동이 무한히 계속될 수 있는 가능성의 유무다. 정산의 중심지 이동은 계속될 수 있는 반면, 화은당의 중심지 이동은 완결된다. 화은당은 정산과 마찬가지로 여러 차례 장소를 옮기지만 결과적으로 육기초공사는 하나의 완결된 내러티브로 마무리되었다. '육기초공사'는 완결되었기 때문에 일곱 번째 중심지는 있을 수 없는 것이다. 하지만 정산의 경우에는 정산이 중심지 이동과 관련된 도수를 다시 본다면 중심지 이동이 또 다시 일어날 수 있다. 실제로 정산이 부산의 감천 도장에서 더 이상 이동을 하지는 않았지만, 정산이 중심지를 이동하는 방식 자체를 놓고 봤을 때 중심지 이동의 가능성은 열려 있다.[191]

여기서 추가로 짚을 수 있는 차이는 두 중심지 이동이 지향하는 최종적인 종착지의 유무 여부다. 화은당의 중심지 이동은 육기초공사의 완결이라는 목적과 오리알터라는 종착지를 위한 과도기적 과정이다. 하지만 정산의 중심지 이동에는 종착지가 불분명하다. 도수 활용을 바탕으로 하는 정산의

191) Ⅲ장의 끝부분에서 정산이라는 인물이 없다면 중심지 이동이 불가능해질 수 있다는 문제를 제기했지만 그 문제는 이 맥락에 맞지 않는다. 여기서는 정산의 중심지 이동 사례가 하나의 유형으로서 갖는 특징을 일반적인 맥락에서 다루고 있다. 정산이라는 인물이 없는 상황에 대해서는 정산 사후 태극도와 대순진리회를 비교하면서 다룬다.

중심지 설정 방식은 새로운 장소가 등장하고 기존 장소가 폐기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도수가 장소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시간은 끝날 수 있기 때문에 최종적인 종착지처럼 정당성을 영원히 갖추는 대상은 앞서 논의한 도수의 특징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러한 정산과 화은당의 차이는 공통적으로 계승하는 증산의 카리스마를 중심지와 관련짓는 방식의 차이와 관련 있다. 증산의 카리스마를 잇는 두 종교 지도자는 중심지를 설정할 때 증산과의 연관성을 주된 근거로 삼았다. 따라서 증산의 카리스마를 강조하는 방식과 정산이나 화은당이 증산과 연관되는 방식 등은 각 교단의 중심지의 특성으로도 이어졌다. 특히 중심지를 설정할 때 증산의 역사적 측면과 초월적 측면 중 어느 측면을 더 강조하는지에 따라 두 교단의 중심지는 서로 다른 특성을 갖게 됐다. 증산은 천지공사를 통해 도수를 새롭게 설정한 '상제'인 동시에 1909년 전북 금산에서 사망한 '역사적인 인물'이었다. 태극도는 증산의 상제, 즉 초월자로서의 역할을 강조했다. 반면 증산법종교는 증산의 상제로서의 위상을 인정하면서도, 역사적인 체화(體化)에 더 큰 방점을 두었다.[192] 또한 정산과 화은당이 증산과 연관되는 방식도 다르다. 즉, 두 종교 지도자가 증산으로부터 카리스마를 계승하는 근거에서도 차이가 나타난다. 화은당은 증산의 유일한 혈통이라는 자신의 혈통(血統)을 중시했고, 정산은 증산이 설계한 도수를 볼 수 있는 능력으로 증명되는 종통(宗統)을 중시했다.

192) 화은당이 증산의 음성 계시를 듣는다는 내용을 보면, 증산법종교 또한 증산의 초월적 측면을 인정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화은당이 증산의 음성 계시를 들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자신이 증산의 유일한 혈통이었기 때문이다. 즉, 증산의 역사적 측면이 더 강조된다고 볼 수 있다.

	태극도	증산법종교
창시자	정산 조철제	화은당 강순임
증산을 계승하는 근거	도수를 해석하는 종통	친딸로서의 혈통
증산이 강조되는 방식	천지공사를 통해 도수를 설정한 상제로서의 초월적 측면	화은당의 친부로서의 역사적 측면 + 상제로서의 초월적 측면
중심지 이동의 유형	**계속되는 중심지 이동**	**완결되는 중심지 이동**
중심지 이동의 종착지	불분명	있음(김제 오리알터)

<표 1> 정산과 화은당이 증산의 카리스마를 장소와 연관짓는 방식과 중심지 이동의 양상 비교

정리해보면, 증산법종교의 사례는 상대적으로 '역사적 특수성'을 강조하고 있다. 앞서 언급했듯 증산의 유일한 혈통으로서 화은당은 천상선녀로 표현되고 증산의 음성 계시를 듣는 특별한 존재로 여겨졌다. 증산법종교 사례의 역사적 특수성에 영향을 미친 데에는 화은당의 혈통뿐만 아니라 증산의 유골이라는 물질도 있었다. 증산이라는 인물의 역사적 체화를 강조하는 맥락에서 증산의 유골은 매우 중요한 물질로 여겨졌고, 특히 증산의 장례가 치러지고 유골을 안장한 오리알터라는 장소가 종착지로 설정되는 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 성모께옵서 하명하시되 “너의 아버지 묘각이 그래 가지고는 장구하게 계실 수 없으니 오리알터에 영영 안장할 수 있도록 하라”[193]

> 성부께서 하명하여 말씀하시되 “오는 삼월 십오일에 장례식을 거행하도록 하라 오리알터는 나와 너의 어머니의 영원한 안장지니라.[194]

위에 인용된 내용처럼 증산법종교의 오리알터는 무엇보다도 증산의 유골이 안장된 장소로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증산의 장례라는 사건이 발생한 장소이자 유골이라는 물질이 있는 장소라는 점에서 오리알터라는 역사적 특수성을 갖게 됐다. 그 결과, 증산법종교의 오리알터는 증산법종교의 외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증산과 관련 있는 특수한 장소가 됐다. 이러한 이유에서 증산법종교 이외의 증산계 교단에서도 오리알터를 ‘성지’로 보는 경우가 나타난다.

> 그 공간들도 그 쓰임이 다한 후에는 즉 도수가 다 찬 후에는 성지로서의 생명력을 다 하게 되었던 것이다. (중략) 그러나 상제님의 성골(聖骨)이 모셔져 있는 오리알 터와 도주님의 옥체가 모셔져 있는 감천 태극도장의 도주님 능소(陵所)는 이런 논의들과는 상관없이 예외로 성지로 분류함이 타당할 것으로 여겨진다. 상제님의 생가 등 성적지는 비록 과거에 공사와 도수에 다 쓰였고 이제는 더 이상의 의미가 없다고 하더라도, 과거를 기념하는 상징물을 세움으로써 수도인들의 도심을 고취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는 있으므로[195]

193) 김병철, 『화은당실기』, 199. 여기서 ‘성모’는 증산의 모친, 정씨부인을 가리킨다. 화은당은 증산뿐만 아니라 정씨부인의 음성 계시 또한 경험했다고 알려진다.
194) 김병철, 『화은당실기』, 201.
195) 대순종교문화연구소, 「대순진리회의 성지 바로보기」. 『대순회보』 83. 여주: 대순진리회 출판부, 2008.

위의 글은 대순진리회의 정기간행물 『대순회보』에 실린 글로, 도수에 따라 생명력을 다한 과거의 중심지는 더 이상 성지로 간주하지 않더라도 오리알터는 예외로 두고 성지로 간주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도수에 따른 중심지를 중시하고, 화은당을 종교 지도자로 따르지 않는 대순진리회 교인들에게도 증산의 유골이 있는 오리알터는 역사적 특수성을 가진 장소이기 때문이다.

반면 정산의 사례에서는 역사적 특수성이 크게 강조되지 않는다. 무엇보다 앞선 Ⅲ장에서 설명했던 증산과의 시간적 연결을 통해 역사적 위치에 매이지 않고 중심지를 이동하는 정산의 특징이 다시 한 번 확인된다. 따라서 정산의 사례에서 역사적 인물로서의 증산은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다. 특히 화은당과 달리 정산은 증산과 직접 접촉한 적이 없었다. 대신에 정산은 도수의 해석을 통해 증산과 연결될 수 있었다.[196] 따라서 정산의 사례는 천지공사를 통해 도수를 새롭게 설정한 상제, 즉 초월자의 측면을 주로 강조한다. 따라서 정산의 사례에서 나타나는 중심지는 정산의 도수 해석이라는 외부적 개입 없이 갖게 되는 역사적인 특수성이 비교적 부족하다. 도수의 해석이 강조되는 과정에서 장소 자체의 특수성은 부수적인 것이었다. 참고로 오리알터 이전까지 화은당이 이동했던 중심지들은 정산의 사례가 보이는 특징이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오리알터라는 종착지 이전에 증산의 음성 계시를 통해 설정했던 중심지들은 그 자체로 증산과의 관련성이 떨어지고 역사적인 특수성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또한 증산법종교의 사례에서는 그 역사적 특수성으로 인해 육기초공사를

196) 정산 또한 무극도를 창시하고 본격적인 교단 활동을 시작하기 전까지는 화은당과 마찬가지로 증산의 음성 계시를 경험했다고 알려진다. 하지만 정산의 중심지 이동을 비롯한 주된 종교 활동은 도수 해석을 바탕으로 이뤄졌다.

통해 중심지를 설정했던 화은당의 개입이 정산의 사례만큼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다. 증산의 친딸로서 증산의 유골을 찾고 장례를 치른 행위가 오리알터가 중심지로 설정되는 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 것은 부정할 수 없다. 다만 여기서 주목하는 것은 오리알터가 증산의 유골이 안장된 곳이라는 이유만으로도 중심지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한다는 점이다. 교단의 신앙 대상인 증산의 장례가 치러졌고 그의 유골이 있다는 점에서 역사적 특수성을 갖게 됐기 때문이다. 따라서 화은당이 중심지로 설정하는 행위 자체가 정산의 사례만큼 결정적이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에도 정산의 사례는 대조된다. 정산의 중심지들은 화은당의 사례처럼 증산과의 역사적인 관련성이 크지 않았다. Ⅱ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증산이 태인 도장이 있던 곳에 대해 언급했다는 점에서 증산과의 관련성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지만, 화은당의 사례와 같이 중심지로 설정되는 데에 결정적인 특수성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대신 태극도의 사례는 정산이라는 카리스마적 인물이 증산의 도수를 해석하는 외부적인 행위가 해당 중심지가 설정되는 과정에서 결정적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정산의 도수 해석을 통해 부여된 유한한 시간이 끝나면 그 중심지는 다시 평범한 장소가 되었다.

	태극도	증산법종교
중심지의 특징	**역사적 위치에 매이지 않는다**	**역사적 특수성이 강조된다**
중심지 설정의 주된 근거	정산의 도수 해석	역사적 특수성 + 화은당의 육기초공사
증산과의 역사적 관련성	작다	크다 (증산의 장례가 치러지고 유골이 안장된 장소)
종교지도자의 개입이 중심지 설정에 미친 영향	정산의 도수 해석이 결정적이다	화은당의 육기초공사는 정산의 역할만큼 결정적이지 않다

<표 2> 정산의 도장과 화은당의 오리알터 비교

지금까지 정산과 화은당의 사례를 비교하며 증산의 카리스마를 중심지와 관련짓는 방식에 따라 중심지 이동의 유형이 나뉠 수 있다는 것을 논의했다. 증산의 초월적 측면과 역사적 측면 중 어느 측면을 장소와 관련짓는지에 따라 증산과의 관계를 바탕으로 중심지를 이동하는 양상의 차이가 나타났다. 중심지를 설정할 때 증산의 카리스마를 계승하는 방식의 차이는 각각 완결되는 중심지 이동의 유형과 계속되는 중심지 이동의 유형으로 이어졌다. 그리고 두 교단의 중심지 간의 차이를 드러내기 위해 두 교단의 중심지 자체가 증산과 역사적으로 얼마나 관련 있는지, 각 중심지가 설정되는 데에 증산을 계승하는 종교 지도자의 개입이 결정적이었는지 검토했다. 그 결과, 증산법종교의 최종 정착지 오리알터는 증산과의 관련성을 바탕으로 역사적 특수성을 띠게 되었다는 점을 밝혔다. 그리고 태극도의 중심지는 증산법종

교처럼 역사적 특수성을 강조하기보다는 정산이라는 증산의 카리스마를 계승하는 인물에 크게 의존하며 중심지로 설정됐다는 특징을 드러냈다. 여기서 살펴본 증산과의 관계를 바탕으로 하는 중심지 이동의 두 유형은 정산 사후 분열된 태극도와 대순진리회의 사례에 적용하는 데에 활용될 것이다. 카리스마를 계승하는 종교 지도자가 증산에서 정산으로 바뀌더라도, 중심지 이동의 유형 구분은 효과적인 설명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마찬가지로 유효하게 적용된다.

2. 정산 사후 태극도와 대순진리회의 중심지 이동 방식

정산 사후에 나뉜 중심지 이동의 두 양상을 효과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증산 사후의 두 사례를 먼저 살펴봤다. 앞서 제시한 카리스마를 중심지와 관련짓는 방식의 차이와 그 차이에서 비롯되는 중심지 이동 방식의 유형 구분을 정산 사후의 상황에 적용할 것이다. 이를 통해 정산 사후의 태극도와 우당 박한경의 대순진리회가 보이는 중심지 이동의 차이를 설명하고자 한다.

1958년 정산의 사망 이후에도 태극도는 10년간 그대로 유지됐다. 정산은 생전에 교단을 운영하는 지도자 직책인 도전(都典)으로 우당(牛堂) 박한경을 임명했고,[197] 10여 년간 우당은 감천 도장에서 태극도를 이끌었다. 하지만 1968년 우당이 태극도를 떠날 때까지 교단 내에서는 우당을 지지하는 세력과 반대하는 세력으로 나뉘어 갈등을 빚었다.[198] 결국 정산 사후 교단

197) 『태극진경』, 9장 48절.
198) 이 시기 우당과 관련된 태극도의 내홍은 다음을 참고하라. 홍범초는 각 교단의 입장을 모두 반영하고 있다. 홍범초, 『범증산교사』, 423-33(태극도), 791-94(대순진리회).

은 기존의 태극도에 남은 교인들과 우당 박한경이 세운 대순진리회로 분열했다. 우당은 태극도를 떠나 서울 중곡동에 첫 도장을 짓고 새로운 교단을 세웠다. 본 연구는 태극도와 대순진리회 사이의 갈등이나 이와 관련된 각 교단의 입장에 대해 자세히 다루지 않는다. 대신에 태극도가 감천 도장과 대강전을 강조하는 점과 우당이 부산을 떠나 중심지를 다시 한 번 옮긴 사건을 중심으로 대순진리회와 태극도의 중심지 이동 양상의 차이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 특히 앞서 제시한 중심지 이동의 두 유형을 활용하여 정산 사후의 태극도는 완결되는 중심지 이동의 모습을 보이고, 대순진리회는 계속되는 중심지 이동을 선택했다는 점을 설명하고자 한다.

태극도는 정산이 1955년 감천 도장으로 이주한 이래 지금까지 부산 감천동에 남아 있다. 우당을 따르는 세력이 갈라져 나간 사건이 있었지만 정산 사후에도 태극도는 중심지를 옮기지 않았다. 앞에서 다뤘던 정산의 '계속되는 중심지 이동'의 양상이 변화를 맞이하게 된 것이다. 정산이라는 카리스마적 인물에 의존하며 중심지를 이동해왔는데 정산이라는 인물이 역사 속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정산 사후의 태극도는 카리스마를 상실한 상황에서 증산에서 정산으로 이어지는 종통을 또 다른 후계자를 통해 계승하지 않고, 자신들의 카리스마적 지도자였던 정산을 기념하는 방식을 선택했다. 그 결과 정산 사후 태극도는 정산과 관련된 역사적 특수성을 강조했다. 이는 증산법종교가 증산과 관련된 역사적 특수성을 강조한 것과 대응된다. 특히 정산 사후 태극도는 정산이 마지막으로 설정했던 중심지인 감천 도장과 정산의 지시로 건축된 대강전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역사적 특수성을 드러낸다. 태극도의 경전 『태극진경』에서는 감천 도장이라는 장소가 갖는 특별한 의미가 앞서 인용한 구절 외에도 여러 차례 언급되고 있다.[199]

199) 감천 도장의 중요성에 관한 『태극진경』의 구절들은 다음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 이주할 곳은 감천이라야 하느니 그곳이 천장길방(天藏吉方)이니라. 감천(甘川)을 "감내"라 하니, 지성이면 "감천(感天)"이고 고진(苦盡)이면 "감래(甘來)"가 바로 이곳이며 새서울이 이곳이니라.[200]

> 너희는 이곳의 험난한 지형과 빈번한 풍우를 탓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이곳이 어찌 공동(空洞)으로서 천장길방하신 도수지지(度數之地)가 되었으리요? 너희는 감천의 풀 한 포기 돌 한 덩이라도 미워하지 말고 부디 정을 두고 지내라[201]

『태극진경』에는 감천 도장이 갖는 중요성에 관해 풍수적 해석을 비롯해 도수나 천장길방 등 다양한 방식으로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대순진리회의 경전 『전경』에는 감천 도장에 대한 내용이 거의 등장하지 않는다. 『전경』에 '감천'이라는 단어는 단 한 차례 나오는데 그 구절은 다음과 같다.

> 도주께서 청명한 정유년 가을 어느 날에 감천에서 박 한경에게 "누구의 소유지냐"고 한 곳을 손으로 가리키면서 물으시기에 그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고 아뢰니라. 그곳이 훗날에 도주의 묘소(墓所)로 정하여지도다.[202]

여기서 감천은 정산이 우당에게 자신의 묘소 위치를 암시할 때의 배경 정도로만 등장한다. 이 구절은 감천을 강조하기보다는 정산과 우당의 관계를 강조하는 의미를 담고 있을 뿐이다. 대순진리회의 『전경』은 정산의 언

『태극진경』, 6장 34-35절, 38절, 43절, 51절.
200) 『태극진경』, 6장 40절.
201) 『태극진경』, 6장 62절.
202) 『전경』, 교운 2장 61절. 이때 '도주'는 정산을 가리킨다.

행을 기술하면서 감천 도장에 대한 내용을 생략함으로써 『태극진경』과 달리 감천 도장의 의미를 축소하는 효과를 낳았다. 『전경』은 1974년에 출판됐고, 『태극진경』은 1989년에 출판됐기 때문에 두 경전은 모두 교단의 분열 이후 맥락을 반영하고 있다고 추정할 수도 있을 것이다.

『태극진경』의 대강전과 관련된 구절에서는 태극도 이외의 세력과 경쟁하는 상황 속 감천 도장의 독점적인 위상을 강조하는 맥락이 더욱 잘 드러난다.

> 이 전각은 내가 장차 50년공부를 종필(終畢)할 곳이며, 그대들이 심령심대를 봉안하고 진법을 봉행하여 대강(大降)을 봉대(奉戴)할 오도유일(吾道唯一)의 지중한 성전(聖殿)이니[203]

> 대강을 대강전을 떠나 다른 곳에서 찾거나 도통을 내가 설법한 진법공부 아닌 다른 방법으로 얻으려 한다면 그러한 생각만 가져도 벌써 배신, 배도자가 됨이니 계지신지(戒之愼之)하라.[204]

> 내가 전에도 말한 바 있거니와 도를 대강전을 떠나 진법 밖에서 구하려 하지 말라.[205]

이러한 『태극진경』의 구절들은 감천 도장의 대강전이 '유일한' 곳으로, 떠나서는 안 될 곳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구절들은 감천 도장과 마찬가지로 대순진리회의 『전경』에는 등장하지 않는다. 특히 정산은 50년

---

203) 『태극진경』, 8장 35절.
204) 『태극진경』, 9장 18절. 여기서 '진법'은 '난법'과 구분되며 자신의 정통성을 강조하기 위해 사용된 용어다.
205) 『태극진경』, 8장 121절.

수행을 마치면서 시학 및 시법 공부라는 불리는 태극도의 핵심적인 의례를 지시했는데 시학 및 시법 공부가 대강전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206] 이처럼 대순진리회와 달리 감천 도장과 대강전의 역사적 특수성을 강조한 태극도는 감천 도장에 남아 더 이상 중심지를 이동하지 않았다. 계속되는 중심지 이동의 사례였던 태극도가 정산이 사망한 뒤 기존의 도수를 보던 종통이 끊긴 상황에서 완결되는 중심지 이동의 모습을 갖게 된 것이다.

한편 완결되는 중심지 이동의 사례인 오리알터와 감천 도장 모두 카리스마적 인물의 무덤이 위치한 곳이라는 사실에도 다시 한 번 주목할 만하다. 태극도는 감천 도장의 대강전 인근에 있는 정산의 묘를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으며 정산을 대상으로 하는 의례를 정산의 묘에서 진행하고 있다. 유골이 안장된 무덤은 증산법종교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태극도의 감천 도장이 역사적 특수성을 갖게 되는 중요한 근거가 된다. 특히 앞서 인용한 대순진리회의 『대순회보』 글은 증산의 유골이 있는 오리알터와 함께 감천 도장의 정산 묘(“도주님 능소”) 또한 ‘성지’로 간주될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207] 실제로 대순진리회는 정산의 묘 관련 내용이 포함된 답사를 진행했다.[208] 태극도로부터 갈라져 나와 감천 도장을 떠났지만, 대순진리회에게도 정산의 무덤은 여전히 중요한 장소이기 때문이다. 이는 감천 도장이 가진 역사적 특수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시다.

이번에는 대순진리회의 ‘계속되는 장소 이동’의 모습을 살펴보고자 한다.

---

206) 시학 및 시법 공부에 관해서는 본 논문의 2장에서 앞서 설명한 바 있다. 시학 및 시법 공부에 관한 정산의 설명은 다음을 참고하라. 『태극진경』의 8장 85-95절, 9장 5-42절.

207) 대순종교문화연구소, 「대순진리회의 성지 바로보기」.

208) 김예진, 「대학생 답사기: 도주님, 그 깊은 발자취를 찾아서」. 『대순회보』 197. 여주: 대순진리회 출판부, 2017.

우선 교단의 간략한 역사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대순진리회를 창시한 우당 박한경은 1917년 충북 괴산군에서 출생했다. 우당은 자신이 30세가 되던 1946년 태극도에 입교해 뛰어난 포교 능력을 인정받으면서 정산에게 두터운 신임을 얻었다. 이후 정산은 죽기 전 마지막으로 교단 책임자인 '도전'의 직책에 우당을 임명했다. 10년간 교단 내 여러 내홍을 거친 끝에 우당은 1968년 감천 도장을 떠나 상경한 뒤 새로운 교단을 준비했다. 당시 태극도 교인 3백여 가구가 우당을 따르며 서울 중곡동으로 집단 이주를 했다고 알려져 있다.[209] 이듬해부터 우당은 대순진리회라는 이름의 교단을 창시하고 서울 중곡동에 도장을 건축했다. 이후 대순진리회는 빠르게 교세를 키워갔고, 1986년에 여주에 두 번째 도장을 지은 이후 1996년 우당이 사망하기 전까지 1989년 제주, 1992년 포천, 1995년 속초에 각각 추가로 도장을 지어 총 다섯 개의 도장을 확보했다. 대순진리회 본부는 1993년 중곡동에서 여주로 이전되어, 그 이후로 여주의 도장은 '여주본부도장'이라고 불린다.

우당은 부산에서 서울로 이동하고 또한 여러 도장을 건축하며 '계속되는 장소 이동'의 모습을 보였다. 우당은 정산과 마찬가지로 종통을 이어받은 카리스마적 인물로서 도수 해석을 제시하며 중심지 이동을 이끌었다. 우당은 정산으로부터 후계자로 임명받으면서 자신이 종통을 이어받았다고 주장하며 증산에서 정산을 거쳐 자신으로 이어지는 종통이 확립됐다고 말했다.[210] 우당은 정산처럼 도수를 볼 수 있는 유일한 사람으로서 중심지를 옮기는 상황을 도수로써 설명했다. 그 예로, 우당은 다음과 같이 자신이 부산에서 서울로 이동한 사건을 도수의 해석을 통해 설명했다.

---

209) 홍범초, 『범증산교사』, 793-94.

210) "구천상제(九天上帝)님의 계시를 받으신 도주(道主)님께서 종통을 세우셨다." 「우당 박한경 훈시」 1984년 12월 27일; "나는 도주님의 유명(遺命)을 직접 받아 종통을 계승하였느니라."「우당 박한경 훈시」 1980년 7월 22일.

> 군산(群山에서 수륙병진(水陸竝進)이라 하시며 서울로 가는 도수를 보셨는데, 군(群)은 무리가 많다는 뜻이다. 도수라는 것은 처음부터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가령 목적지를 간다면 어디어디 거쳐서 가야 되는 것이다. 도주님께서는 회문리에서 탄강하시고 을축년(1925년)에 도창현에서 무극도를 창건하셨으며, 신사년(1941년)에 무극도가 해산된 지 4년 만에 부산으로 들어가셨다. 도주님께서 무자년(1948년) 부산 보수도정에 상제님을 봉안하신 후 11년 동안 계셨고, 도주님 화천하시고 10년 만에 나도 떠났다.[211]

> 내가 감천을 떠나도록 한 사람들이 대순진리회의 공로자들이다. 서울 도장의 창건은 상제님의 수륙병진도수(水陸竝進度數)에 의한 것이다.[212]

위에서 나타나는 우당의 설명은 자신이 부산을 떠나 서울로 이동한 것 역시 증산의 도수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정산이 중심지를 옮겼듯이 자신도 중심지를 옮기고 있다고 말하며 정산에 빗대어 자신을 설명하고 있다. 정산, 우당이 언급했던 많은 도수가 증산의 언행으로 직접 확인되지 않는 것과 달리, 우당이 여기서 말한 '수륙병진도수'와 관련된 증산의 언술은 1926년 출판된 『증산천사공사기』에서 직접 찾아볼 수 있다.

> 삼월 이일에 천사께서 경성(京城)으로 향하야 떠나실 새 여러 제자에게 일러 가라사대 전함(戰艦)은 순창으로 회항하리니 김형렬은 지방(地方)을 선수(善守)하라 하시고, 남기(南基) 성백(成伯) 광찬(光贊)을

211) 「우당 박한경 훈시」 1989년 6월 25일.
212) 「우당 박한경 훈시」 1988년 12월 5일.

> 데리고 군항(群港)에 가서 기선(汽船)을 타기로 하시고 남은 사람은 대전에 가서 기차를 타라 하시며 가라사대 이것은 수륙병진(水陸幷臻)이라 하시더라. (중략) 익일에 천사께서 여러 제자와 함께 인천으로부터 경성에 이르시다.[213]

증산이 제자들과 함께 서울(경성)에 갈 때, 증산은 몇몇 제자들에게는 자신과 함께 군산항(군항)에서 배를 타고 인천을 거쳐 가도록 하고 다른 제자들은 대전에서 기차를 타고 가도록 지시하며 '수륙병진'을 언급했다. 우당은 증산의 언술과 자신의 행동을 병치시키면서 중심지 이동을 정당화하고 있다. 이는 정산과 마찬가지로 증산과의 연결을 시도하는 의미를 갖고 있다. 증산의 시간대에 벌어졌던 일을 자신의 시간대에 일어나는 일과 연결짓고 있다. 이처럼 우당의 중심지 이동은 Ⅲ장에서 살펴봤던 도수를 통한 정산의 중심지 이동과 중요한 특징들을 공유하고 있다. 우당은 증산의 수륙병진에 관한 언술을, 천지공사를 통해 설정된 하나의 도수로 규정하며 자신이 도수를 활용하는 능력을 갖고 있다는 점을 드러냈다. 부산에서 서울로 이동하는 사건 외에도 서울 중곡동의 도장과 경기도 여주의 새로운 도장을 지을 때, 그리고 여주 도장으로 본부를 옮길 때 모두 우당은 도수를 활용했다.

> 중곡동 도장과 여주수도장은 천지의 조판 이후 짜여진 천지도수이다. 어느 때 가 되면 대순진리회에서 중곡동과 여주에 도장을 짓는다는 것이 정해져 있다. 그것이 운이고 도수이다. (중략) 여주에 도장을 짓는 것도 천지도수다. 이것은 사람이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안 하려고 한다고 안 해지는 것이 아니다.[214]

---

213) 『증산천사공사기』, 57. 여기서 군항은 군산항을 가리킨다.
214) 「우당 박한경 훈시」 1991년 9월 28일.

정산과 마찬가지로 우당은 도수에 따라 특정한 '때와 장소'가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우당은 여주라는 공간적인 위치에 도장을 지어야 하는 것과 중곡동을 지은 이후의 시기에 여주에 지어야 하는 것 또한 도수에 의해 정해져 있다고 말했다. 우당은 다른 도장들을 지을 때에도 그 때나 장소와 관련해 도수를 활용했다.

우당의 중심지 이동은 증산과의 시간적 연결을 바탕으로 특정 역사적 위치에 매이지 않고 어떤 장소든 새롭게 정당화하는 특징을 잘 보여준다. 우당은 전국에 있는 다섯 곳의 도장의 위치를 선정할 때 매번 하늘이 감추어 뒀던 길한 장소, 즉 '천장길방'이었다고 설명했다.[215] 대순진리회의 도장이 들어선 장소들은 증산과 역사적으로 크게 관련이 없는 장소들이었지만, 도수를 보는 카리스마적 인물인 우당에 의해서 도장으로 설정되었다.[216]

한 가지 눈여겨 볼만 한 특징으로 대순진리회 또한 본부도장에서 시학 및 시법 공부를 시행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217] 대순진리회는 정산으로부터 이어지는 종통을 강조하며 정산이 제시한 시학 및 시법 공부를 이어오고 있다. 태극도는 시학 및 시법 공부를 대강전에서만 시행하고 있지만 대순진리회의 경우 부산 감천 도장의 대강전이라는 역사적 위치에 매이지 않고 장소를 옮겨서 의례를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 대순진리회가 역사적 위치에 매이지 않을 뿐 태극도와 마찬가지로 정산이라는 인물

215) 대순종교문화연구소, 「대순진리회의 성지 바로보기」.

216) 대순진리회 도장들의 위치를 정당화하는 데에 우당이 보는 도수가 결정적이었지만 도장이 위치한 지형의 풍수 또한 중요했다. 차선근은 대순진리회의 도장이 결정되는 데에 도수에 대한 신앙과 천장길방에 대한 신앙 그리고 풍수가 있다고 설명하며 대순진리회 각 도장이 위치한 곳의 풍수적 의미를 설명하고 있다. Cha, "Is Sacred Site Discovered? Or Created?," 333-39.

217) 박인규, 「한국 신종교의 주문 수행」, 『종교와 문화』 30(2017): 153-54. 시학 및 시법 공부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은 본 논문의 2장을 참고하라.

을 중요하게 계승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 정산 사후 태극도와 대순진리회의 중심지 이동 양상에 대해서 살펴봤다. 정산 사후 교단이 분열하며 중심지 이동의 모습 또한 두 갈래로 나뉘었다. 계속되는 중심지 이동의 유형을 보였던 태극도가 정산 사후에는 완결되는 중심지 이동의 유형으로 변화하면서 한 교단 안에서도 중심지에 대한 입장이 달라지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다. 이는 증산과 마찬가지로 정산 역시 역사적 인물인 동시에 종통을 이어주는 초월적 존재라는 두 속성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종교의 중심지 이동 유형은 어떤 측면을 강조하느냐에 따라 역동적으로 변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역사적 특수성을 강조하면 중심지를 이동할 때에 특정 역사적 위치에 매이는 반면, 초월적인 측면을 강조하면 역사적 위치에 매이지 않고 중심지를 이동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앞선 종교 지도자의 카리스마를 중요한 근거로 삼아 중심지를 옮기는 사례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면서 드러난 '장소'의 역할에 대해서 언급하고자 한다. 앞서 다룬 증산계 교단들의 사례에서 장소는 각 교단의 카리스마적 인물이 종교 활동을 벌인 배경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종교의 변화를 야기하는 동인(動因)이었다. 구체적으로 설명한다면, 먼저 장소는 종교 지도자들의 카리스마 계승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근거였다. 태극도, 증산법종교, 대순진리회의 지도자들은 중심적인 장소를 설정함으로써 카리스마를 계승하는 지도자의 위치를 확고히 하려고 했다. 우당은 중심지를 옮김으로써 정산 사후 태극도와 차별화하고 자신의 종통을 드러냈다. 두 번째로, 장소는 각 교단의 종교 공동체가 이동하도록 만든 주된 원인이었다. 정산의 종교 공동체는 도수에 따른 장소를 찾아서 이동해야 했다. 장소를 찾아 떠나는 이동은 교인들에게 증산과 연결되고 천지공사에 참여하는 경험을 제공했다. 증산과 연결될 수 있었던 것은 단순히 해당 장소에서 증산을 대상으로

한 의례를 행했기 때문만이 아니라, 증산이 천지공사로 정해둔 장소에 위치했기 때문이었다. 이처럼 각 교단들은 어떤 장소에 위치하느냐에 따라서 중요한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다.

Ⅴ. 결론

지금까지 정산의 중심지 이동 전략에 관해 살펴보며 정산의 중심지 이동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도수에 초점을 두고 논의를 전개했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 도수가 정산과 증산을 연결하는 역할을 수행하면서 정산이 특정 역사적 위치에 매이지 않고 어떠한 위치에서든 중심지를 설정할 수 있었다는 특징을 밝히고자 했다. 또한 정산이라는 카리스마적 인물에 의존하여 중심지를 설정하던 태극도가 정산의 죽음 이후 두 갈래로 나뉘어, 중심지 이동과 관련해 서로 다른 모습을 보이게 된 변화에도 주목했다. 정산 사후 태극도와 대순진리회의 차이를 설명하기 위해 증산 사후 정산과 화은당의 차이를 함께 다루면서 앞선 종교 지도자와의 관계를 바탕으로 하는 중심지 이동의 두 유형을 제시했다. 두 유형 구분을 바탕으로 각 교단의 중심지 이동 방식이 증산이나 정산 같은 종교 지도자의 카리스마를 중심지와 연관짓는 방식과 관계가 있다는 것을 밝힘으로써 교단 간의 차이를 장소의 관점에서 설명하고자 했다. 이러한 논문의 전체적인 흐름을 위해 본론의 각 장에서 전개한 구체적인 논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Ⅱ장에서는 본격적인 논의를 위해 전라북도 태인에서 부산으로 이어지는 정산의 종교 활동을 장소의 관점에서 재구성했다. 정산이 중심지를 이동하는 과정에서 활용한 전략의 여러 구성 요소들을 제시하면서도, 도수가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는 점을 논의했다. 먼저 정산은 특정 지역에 관한 증산의 언술을 활용하거나 풍수에 따라 물리적인 지형을 해석했고, 부산(釜山)이라는 지명을 파자(破字)하며 중심지로 설정하는 장소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기도 했다. 또한 부산으로 이동할 때 정산은 증산이 특별한 장소로

설정했던 금산(전라북도의 모악산)과 자신이 첫 중심지로 설정했던 태인 도장을 상징적으로 복제하는 전략을 동원했다는 점이 논의됐다. 이러한 설명과 함께 본 연구는 새로운 도장을 도입하거나 기존 도장을 폐기하는 설명을 포함해 도장을 옮기는 상황에 관한 포괄적인 설명을 제공하는 것이 도수였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도수가 증산의 천지공사를 통해 설정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증산의 종통을 잇는 정산이 중심지를 이동하는 데에 도수를 핵심적으로 활용했다는 것을 드러내고자 했다.

Ⅲ장에서는 도수가 중심지 이동 전략에서 수행하는 역할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도수가 정당성을 유지하는 유한한 시간을 설정하는 방식으로 중심지를 정당화했다는 것을 짚으면서 장소에 결합되는 시간의 측면을 드러냈다. 또한 정산이 특정 역사적 위치에 매이지 않고 중심지를 설정할 수 있었던 이유를 도수가 증산과 정산을 연결하는 특징과 관련지어서 설명했다. 정산은 자신만이 도수를 볼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증산으로부터 이어지는 종통을 입증하려고 했다는 점에 주목하며 중심지 이동을 비롯한 전반적인 정산의 종교 활동에서 도수는 매우 중요했다는 점을 논의했다. 그리고 증산이 천지공사를 할 때 도수로 설정해둔 일이 자신의 시점에서 일어나는 일과 동일하다고 설명하는 방식으로 정산이 여러 사건들을 정당화했다는 점을 밝혔다. 이러한 도수의 특징은 장소 설정의 문제에 적용됐을 때, 정산과 증산이 시간을 뛰어넘어 연결되면서 특정 역사적인 위치와 관계 없이 어떠한 장소라도 정산이 중심지로 설정할 수 있었다는 설명으로 이어졌다. 조나단 스미스의 표현에 따르면, 정산의 사례는 시간적 연결이 공간적 연결로 이행하는 사례였던 것이다.

Ⅳ장은 정산 사후 태극도와 대순진리회의 중심지 이동에 관해 논의하면서 증산 사후 정산과 화은당의 사례를 함께 다루고 중심지 이동의 두 유형을

제시했다. Ⅳ장의 논의는 다음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로, 이러한 작업은 정산이 죽고 난 이후 교단이 분열하고 중심지 이동의 양상이 두 갈래로 나뉜 현상에 대한 설명을 제공한다. 화은당의 사례로 대표되는 완결되는 중심지 이동의 유형은 '역사적 특수성'을 중시하는 반면, 정산의 사례로 대표되는 계속되는 중심지 이동의 유형은 역사적 위치에 매이지 않고 새로운 장소로 이동했다. 이러한 유형 구분은 정산 사후의 상황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됐는데 정산 사후 태극도는 화은당의 사례처럼 '완결되는 중심지 이동'의 유형에, 대순진리회는 정산의 사례처럼 '계속되는 중심지 이동'의 유형에 해당한다. 둘째로, 증산 및 정산 등 종교 지도자의 카리스마를 장소와 관련짓는 방식에 따라 중심지 이동의 양상이 달라진다는 점을 밝히는 것 또한 증산 사후의 두 교단과 정산 사후의 두 교단을 비교하는 작업의 목적이었다. 증산 사후 시기의 종교지도자인 정산과 화은당에게는 증산이 제일 중요했던 것처럼 정산 사후 교단이 분열하는 상황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정산이었다. 각 교단은 증산과 정산이라는 인물의 역사적 측면과 초월적 측면 중 어느 측면을 중심으로 카리스마를 중심지와 관련짓는지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셋째로, Ⅳ장의 비교 작업은 정산의 중심지 전략이 갖는 특징을 더 잘 드러낼 수 있다는 의의를 갖는다. 앞서 Ⅲ장에서 정산은 도수를 통해 역사적 위치에 매이지 않고 중심지를 설정한다는 것을 논의했는데, 이러한 특징을 역사적 특수성을 강조하는 화은당의 사례와 비교하는 작업을 통해 효과적으로 드러냈다.

정산의 중심지 이동 전략을 다루면서 종교의 장소에 관한 이론적인 논의들을 점검할 수 있었다. 먼저 정산의 사례는 종교가 새로운 장소를 도입하는 모습뿐만 아니라 기존의 장소를 폐기하는 모습을 효과적으로 드러냈다. 본 연구는 정산이 도수를 통해 특정 장소가 중심지로서의 정당성을 유지하

도록 하는 유한한 시간을 부여하기 때문에 기존 중심지가 때에 따라 정당성을 잃는다고 설명했다. 시간에 따라서 기존 중심지를 적극적으로 폐기하는 정산의 중심지 이동 전략은 중심지로서의 정당성이 장소의 측면뿐만 아니라 장소와 결합된 시간의 측면과도 관련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줬다. 이는 공간을 시간 등 다양한 요소들과의 관계 속에서 역동적인 개념으로 이해하려는 시각을 뒷받침한다.[218] 또한 정산 죽음 이후 중심지 이동 전략에 생기는 변화를 조명하면서, 카리스마의 상실과 계승이 중심지 이동과 관련 있다는 점을 밝히기도 했다. 그러면서 각 교단이 각기 다른 방식으로 카리스마적 인물을 중심지와 연관 지으면서 카리스마 계승을 뒷받침한다는 것을 보였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 장소가 인간 행위의 단순한 배경이 아니라 역동적인 변화를 만들어내는 동인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219]

또한 본 연구가 중심지 이동이라는 현상에 주목하면서 기존에 다뤄지지 않던 증산계 교단들의 차이에 주목할 수 있었다. 대표적으로는 정산 사후 태극도와 대순진리회의 차이를 정산의 카리스마를 계승하는 방식과 관련해 드러낼 수 있었다. 기존의 연구들은 두 교단의 차이를 효과적으로 드러내지 못했는데, 홍범초의 경우 "어느 쪽이 더 전 도주 조정산의 정통계승자냐 라는 주장 이외엔 대체적으로 동일한 신앙대상과 교리와 의식을 가진 교단이라 할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220] 이는 두 교단의 교리에 주로 주목했기

218) Kim Knott, "Spatial Theory and the Study of Religion," *Religion Compass* 2(2008): 1111. 노트는 최근 공간을 인간 활동의 수동적인 배경이 아니라 권력, 역사 그리고 시간과의 관계 속에서 역동적인 개념으로 이해하는 이론적 흐름이 등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19) 서론에서 논의한 것처럼 공간은 사회적 구성물로서 인간의 여러 역사들을 이해하는 데에 중요한 측면이다. 같은 맥락에서, 어떤 현상이 공간에서 일어난다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현상이 '어디에서' 일어났느냐의 문제가 그 현상을 이해하는 데에 중요하다. Warf and Arias(ed.), *Spatial Turn*, 1.

220) 홍범초, 『범증산교사』, 795. 차선근은 대순진리회와 태극도가 장소 설정과 관련해 유사한 점을 보인다고 짚었지만, 정산 사후 두 교단의 차이를 드러내지 못했다. Cha, "Is Sacred Site Discovered? Or Created?," 340.

때문이다. 하지만 본 연구는 중심지 이동이라는 공간적 차원에서 두 교단을 비교하면서 정산 사후 태극도와 대순진리회가 '동일한 신앙 대상'인 정산의 카리스마를 계승하는 방식에서 보이는 차이를 밝혔다. 정산 사후 두 교단의 분열 상황에서 '장소'는 정산이라는 카리스마적 인물을 공유하는 태극도와 대순진리회의 차별점을 분명하게 보여주었다. 대순진리회는 감천 도장이 아닌 우당이 도수를 통해 설정한 장소에 위치함으로써 우당의 종통을 드러냈고, 감천 도장과 대강전에 최종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정산 사후의 태극도와 차별화했다. 이외에도 증산 사후 시기 정산의 태극도와 화은당의 증산법종교를 비교하며 증산과의 관계를 바탕으로 중심지를 이동하는 방식과 관련된 두 교단의 차이를 드러냈다. 또한 정산의 죽음을 기점으로 태극도라는 교단의 중심지 이동의 유형이 계속되는 중심지 이동에서 완결되는 중심지 이동으로 변화했다는 점도 짚으며 한 교단 내에서 생기는 차이를 드러내기도 했다. 각 교단의 차이는 공간적 차원이라는 기존과 다른 시각에서 종교에 접근했기 때문에 조명될 수 있었다. 이러한 공간적 차원의 종교 연구는 교리를 중심으로 연구했던 기존의 흐름에 균형을 맞추는 작업으로서 의의가 있다.

한편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를 지니고 있어 향후 추가 연구를 통해 보완될 필요가 있다. 첫째로, 제한된 자료에 따른 한계가 있다. 우선 무극도와 태인 도장, 보수 도장 등 감천 도장 이전 시기에 관한 자료가 부족하다. 태인 도장과 보수 도장의 배치나 각 도장 내에서 이뤄진 의례 등에 관한 향후 연구가 진행돼 여러 자료들이 갖춰진다면 감천 도장과 비교가 수월해지면서 정산의 중심지 이동에 관한 더 자세한 논의가 가능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 대상으로 삼는 자료는 주로 각 교단의 경전이기 때문에 경전에서 드러나지 않는 실제 교인들의 경험을 논의에 충분히 포함하지 못했다.

정산이라는 종교 지도자가 중심지를 옮기는 종교적 이데올로기에 관해 교단 차원에서 정립했다는 점에서 경전은 중요한 연구 자료이지만, 실제 교인들의 경험에 대한 연구를 통해 보완될 수 있다.

두 번째 한계로는 주된 연구 대상을 종교 내부의 이데올로기로 삼으면서 종교 외부의 맥락이 논의에 충분히 강조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앞서 서론에서는 정산의 중심지 이동이 종교 내부의 이데올로기를 통해 설명됐지만 한편으로는 종교 외부의 상황에 따른 선택이었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산의 교인들 중 경상도 출신이 많았다는 점, 당시 무극도의 인근에는 전라도에서 영향력이 컸던 보천교가 있어 차별화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을 수 있었다는 점, 해방 이후 부산이 급격히 성장하는 도시이자 기회의 땅이었다는 점 등 당시 시대적 상황에 따른 이유를 제시한 바 있다. 이러한 종교 외부의 맥락은 본론에서 강조되지 않았지만, 본 연구에서 다뤘던 다른 사례에서도 마찬가지로 작용했다. 예를 들어, Ⅳ장에서 다뤘던 태극도를 비롯해 증산법종교와 대순진리회의 중심지 이동은 일제강점기와 해방을 거치며 격변하는 시대에서 신종교가 생겨나고 자리를 잡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새롭게 생겨난 이 종교들은 사회적 상황에 맞춰 여러 장소를 찾아다니며 정착해갔다. 우당의 대순진리회가 부산의 감천 도장에서 나와 다른 지역으로 이동했던 것은 도수를 보는 우당의 종통을 강조하면서도 감천 도장의 태극도와 차별화하기 위한 전략이었을 수도 있다. 이러한 점들과 더불어 당시 정산의 도장들이 위치했던 지역의 상황 등 종교 외부의 맥락을 함께 고려한다면 정산의 중심지 이동을 더욱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1차 자료〉

김병철.『화은당실기』. 김제: 증산법종교, 1989[1960].

대순진리회 교무부.『전경』. 여주: 대순진리회 출판부, 1974.

이상호.『대순전경』초판. 경성: 동화교회도장, 1929.

_____.『증산천사공사기』. 경성: 상생사, 1926.

증산법종교본부.『교리문답』. 전주: 문우당, 2001.

_____. 『증산법종교 60년사』. 전주: 문우당, 1997.

태극도 편찬위원회.『진경』. 부산: 태극도 출판부, 1989.

〈2차 자료〉

고병철. 「종교와 항일독립운동, 그리고 쟁점: 무극도 사례를 중심으로」.『대순사상논총』 35 (2020): 39-71.

권동우. 「'유사종교해산령'의 실체에 관한 연구: '무극도' 사례를 중심으로」.『한국학』 44 (2021): 41-78.

권선정. 「텍스트로서의 풍수 경관」.『문화역사지리』 21(2009): 117-134.

김탁. 「증산과 정산의 도수(度數)사상」. 대순사상논총』 30 (2018): 235-70.

김희재. 「도시공간의 변화」. 『부산 광복 60년』, 부산광역시사편찬위원회

엮음, 124-49. 부산: 부산광역시, 2006.
노관범. 「조선시대 '利用厚生'의 용법과 어휘 추세: 한국문집총간 정집을 중심으로」. 『한국실학연구』 40(2020): 573-625.
노길명. 「개벽 사상의 전개와 성격」. 『한국학연구』 28(2008): 181-204.
대순종교문화연구소. 「무극도 해산시기에 대한 고찰」. 『대순회보』 85. 여주: 대순진리회 출판부, 2008.
_____. 「대순진리회의 성지 바로보기」. 『대순회보』 83. 여주: 대순진리회 출판부, 2008.
류병무. 「대순문답: 상유도창 중유태인 하유대각」. 『대순회보』 190. 여주: 대순진리회 출판부, 2017.
박인규. 「일제강점기 증산계 종교운동 연구」.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2019.
_____. 「대순사상의 도수론(度數論) 연구」. 『대순사상논총』 28(2017): 207-41.
부산시. 『부산시 제4회 통계연보』. 부산: 부산시, 1965.
상기숙. 「중국 도교여선의 제 양상 소고」. 『동방학』 14 (2008): 361-406.
유요한. 「거인 엘리아데의 어깨의 위에서: 엘리아데 비판에 대한 엘리아데 관점의 답변」. 『종교학 연구』 30(2012): 55-74.
_____. 「첫 순교자 묘에서 꿈꾸다: 하늘과 땅을 잇는 세계의 중심, 초남이성지」. 『종교학연구』 40(2022): 27-67.
조현범. 「조선 후기 유학자들의 서학 인식: 종교/과학 구분론에 대한 재검토」. 『한국사상사학』 50(2015): 97-145.
종단역사연구팀. 「무극도 진업단과 개간지」. 『대순회보』 178. 여주: 대

순진리회 출판부, 2016.
차선근. 「종단 대순진리회의 변천 과정과 무극 태극의 관계」. 『대순회보』 94. 여주: 대순진리회 출판부, 2009.
_____. 「증산계 신종교 일괄기술에 나타난 문제점과 개선 방향」. 『신종교연구』 30(2014): 57-95.
최창조. 『좋은 땅이란 어디를 말함인가』. 서울: 서해문집, 1990.
하남구. 「부산시 감천2동 태극도마을의 특성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2012.
홍범초. 『범증산교사』. 서울: 한누리, 1988.
홍연진. 「인구와 시역의 변화」. 『부산 광복 60년』, 부산광역시사편찬위원회 엮음, 28-44. 부산: 부산광역시, 2006.

Cha, Seon-Keun. "Is Sacred Site Discovered? Or Created?: A Case Study of Daesoon Jinrihoe." In *Sacred Sites and Sacred Stories Across Cultures: Transmission of Oral Tradition, Myth, and Religiosity,* edited by David W. Kim, 327-54. London: Palgrave Macmillan, 2021.
Corrigan, John. "Spaitlity and Religion," in *Spatial Turn: Interdisciplinary perspectives*, edited by Barney Warf and Santa Arias, 157-72, Oxfordshire: Routledge, 2010.
Durkheim, Émile. *The Elementary Forms of the Religious Life*. Translated by Karen E. Fields. New York: Free Press, 1995[1912].
Eliade, Mircea. *The Sacred and The Profane: The Nature of Religion.* Translated by Willard R. Trask. New York: Harcourt,

1987[1957].

_____. *Patterns in Comparative Religion.* Translated by Rosemary Sheed. Lincoln: Uniersity of Nebraska Press, 1996[1949].

Heschel, Abraham J. *The Sabbath: Its Meaning for Modern Man.* New York: Farrar Straus and Giroux, 1994[1951].

Knott, Kim. *The Location of Religion: A Spatial Analysis.* London: Equinox, 2005.

_____. "Spatial Theory and Method for the Study of Religion." *Temenos* 41(2005): 153-84.

_____. "Spatial Theory and the Study of Religion." *Religion Compass* 2(2008): 1102-1116.

Munn, Nancy. "The Transformation of Subject into Objects in Walbiri and Pitjantjatjara Myth." In *Australian Aboriginal Anthropology*, edited by Ronald. M. Berndt, 141-63. Nedlands: University of Western Australia Press, 1970.

Orsi, Robert. "The Center out There, in Here, and Everywhere Else: The Nature of Pilgrimage to the Shrine of Saint Jude, 1929-1965." *Journal of Social History* 25(1991): 213-32.

Smith, Jonathan Z. *Map is not Territory: Studies in the History of Religions.*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78.

_____. *To Take Place: Toward Theory in Ritual.*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7.

_____. "Constructing a Small Place." In *Sacred Place: Shrine, City, Land,* edited by Benjamin Z. Kedar and R. J. Zwi Werblowsky,

18-31. London: Macmillan, 1998.

Tweed, Thomas A. *Our lady of the Exile: Diasporic Religion at a Cuban Catholic Shrine in Miami.*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97.

Weber, Max. *The Theory of Social and Economic Organization.* Translated by A.M. Henderson and Talcott Parsons. Glencoe: The Free Press, 1947.

〈신문 기사〉

「제이 보천교 무극종교단, 보천교와 한가지 강증산의 지류여파로 협잡하는 무리, 교도가 벌써 만여명」, 『시대일보』 1925.7.8.

「복마전(伏魔殿)을 차저서 8 무극교정체(無極教正體), 보천교의 자매격 무극도」, 『동아일보』 1929.7.26.

Abstract

A Study on Jeongsan's Strategy of Sacred Center Relocation

Choi, Myunghoon
Department of Religious Studies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thesis examined the case of the *Taegeukdo*(太極道) and its center's relocation from *Taein, Jeolla-do*, to *Gamcheon-dong* via *Bosu-dong*, Busan, under the leadership of Jeongsan(鼎山) Jo Chul-je, the founder of Jeungsan group following Jeungsan(甑山) Gang Il-sun who was the leader of a new religious movement in Korea. The main focus lies in examining how the religious community justified the establishment and relocation of its sacred centers. Three key characteristics in Jeongsan's relocation strategy are examined: Firstly, Jeongsan relocated centers mainly based on his connection with Jeungsan. Jeongsan declared that although he had never met Jeungsan directly he moved along *Dosu*(度數) set as the law of the universe through the *Cheonjigongsa*(天地公事) by Jeungsan regarded as the emperor of Heaven, *Sangje*(上帝). Consequently, the thesis examined the spatial aspect of Jeongsan's relocation, particularly the relationship between Jeungsan and Jeongsan. Secondly, the establishment of the new center by Jeongsan exhibited a

notable detachment from any specific historical location, including the former centers such as *Taein Dojang*. Despite being displaced by the Japanese Empire, Jeongsan chose not to return to *Taein Dojang* even after liberation. Instead, he established the new center in Busan. Moreover, he did not deem the former place as important as before. Thirdly, Jeongsan's religious community underwent division, with one group opting to relocate center again and another group choosing to remain at the previous center. Udang(牛堂) Park Han-kyeong's *Daesoon-jinrihoe*(大巡眞理會), inheriting the lineage of Jeongsan, moved its center to Seoul, while *Taegeukdo* continued to remain at *Gamcheon Dojang* in Busan, the last center established by Jeongsan.

Of particular importance in justifying Jeongsan's relocation is the concept of *Dosu*. As a charismatic figure, Jeongsan played a pivotal role in connecting to time and place directed by *Dosu*, acting as a mediator between Jeungsan and his followers. Jeongsan declared himself to have the exclusive ability in utilizing *Dosu*, which allowed him to relocate the center based on the charisma inherited from Jeungsan. It is revealed that *Dosu* enables the justification of a new center's establishment and the dissolution of the existing center, resulting in fluctuations in the center's legitimacy over infinite time, which *Dosu* sets. Furthermore, the thesis explored the specific grounds on which the center's relocation was justified. Notably, it is observed that Jeungsan and Jeongsan were linked across time through *Dosu*. Jeongsan related what happened during his time to the events during Jeungsan's *Cheonjigongsa*, identifying his work with that of Jeungsan. This thesis explained that temporal connecting with the time of Jeungsan enabled the establishment of a center in any spatial location, independent of historical ties. Jonathan Z. Smith's discourse on time-related to place movement effectively underpins this explanation, wherein *Dosu*

established a connection between the mythical time of Jeungsan and the present time of Jeongsan.

Furthermore, the thesis also dealt with the changes after the death of Jeongsan, a charismatic figure who enabled the relocation. The division into *Taegeukdo* and *Daesun-jinrihoe* showed distinct patterns in their center relocation. Analyzing cases after the death of Jeongsan, the thesis presented two types of center relocation based on the way Jeungsan's charisma was inherited. In order to effectively explain the two types of center relocation divided after Jeongsan, the two cases after Jeungsan were analyzed first. The thesis compared Jeongsan's case with that of Hwaeundang(華恩堂) Gang Sun-im who is Jeungsan's sole daughter and founded another Jeungsan group *Jeungsan-beopjonggyo*(甑山法宗敎). While Jeongsan emphasized the transcendent aspect of Jeungsan by highlighting Jeongsan's exclusive ability to utilize *Dosu*, Hwaeungdang emphasized the historical aspect of Jeungsan with the lineage of Jeungsan's biological daughter. This distinct difference led to a difference in the relocation strategy, as Jeongsan's case allowed continuous center movement without being tied to the historical position, while Hwaeundang emphasized the historical specificity related to Jeongsan and completed the center movement at a specific place. Moreover, these two types were found to be applicable to the case of *Taegeukdo* and *Daesun-jinrihoe*, which experienced division after Jeongsan. *Taegeukdo* remained at the last center set by Jeongsan, underscoring the historical specificity tied to Jeongsan, whereas *Daesun-jinrihoe* relocated its center based on *Dosu*, emphasizing the charisma from Jeongsan to Udang.

In conclusion, this thesis aimed to review and examine theoretical characteristics in religious studies, with a particular focus on exploring the significance of space and place in religious contexts. First,

it was confirmed that the concept of time can be related to space in religion. Jeongsan's relocation case exemplifies not only the relocation of a religious center to a new place but also the dissolution of the existing place, including the transformation of a place from a sacred to an ordinary space at a specific time. It was also discussed that the justification of a new place can be based on its temporal connection with mythical time. Additionally, the thesis also explored how the succession or loss of charism is interconnected with center movement, observing that the place itself can be a factor for dynamic change beyond its mere background role.

Furthermore, the thesis revealed the distinctions between Jeungsan groups from a spatial perspective, shifting attention from doctrinal differences in existing studies to relocation strategies. Especially, this research examined how each group connects the charisma of its religious leader to the relocation of the places, resulting in two types of relocations characterized by either historical specificity or independence from historical locations. This comprehensive analysis not only explains the division in relocation patterns after Jeongsan's death but also sheds light on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Jeungsan groups revealed when considering space or place.

keywords : *Jeungsan* (甑山), *Jeongsan* (鼎山), space/place, relocation and displacement, *Dosu* (度數), *Mugeukdo* (无極道), *Taeguekdo* (太極道), *Daesoon-jinrihoe* (大巡眞理會), *Jeungsan-beopjonggyo* (甑山法宗敎), New Religious Movement in Korea

Student Number : 2020-21539